

백제문화
전시회

백제문화
전시회

1999년 가을

조선 시기 음성과
백제문화를 중심으로

1999년 11월 3일 ~ 11월 5일

연·세·대·학·교·문·과·대·학·사·학·과

O₁ ^{X₀} ^E f₂₂₃
O₁^b n₂₁

1999년 가을

시
학
교

전
시
교
과

조선시기 읍성과

백제문화를 중심으로

1999년 11월 3일 ~ 11월 5일

연·세·대·학·교·문·과·대·학·사·학·과


**차
례**

1. 답사를 떠나면서	1
1) 답사를 떠나면서	
2) 답사 일정과 경로	
3) 답사지역 지도	
2. 답사지역 및 유물·유적 소개	6
1) 제 1일	
2) 제 2일	
3) 제 3일	
3. 주제 논문 (1)	30
1) 백제의 문화수용과 전파	
2) 충남 서해연안의 읍성에 대한 고찰	
4. 주제 논문 (2)	48
1) 구석기 문화의 연구 - 공주 석장리 유적을 중심으로	
2) 성주사지에 관하여 - 신라말 선종구산문과 관련하여	
3) 대원군 정권의 개혁정치	
4) 홍성지방의 의병운동과 국가건설운동	
5. 참고자료	79
5. 답사를 준비한 사람들	84

답사를 떠나며

언젠가 백양로를 걷다 문득 유심히 바라본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초조함과 고단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들에 쫓기고 학문적인 희열보다는 의무감이 앞서는 수업을 위해 걸음을 재촉하는.. 그런 모습들을 에워싸고 있는 유난히 청명한 가을 하늘과 정취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답답한 일상을 벗어나 해안을 끼고 있는 성곽과 붉게 물들어가는 단풍의 정취를 만날 수 있는 답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답사를 준비하게 된 우리는 일상의 무게에 지친 여러분들이 이번 답사를 통해 시끄러운 축제와 번잡한 유흥으로도 얻을 수 없는 만족과 위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답사는 내력이 있는 곳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 답사에서 만나게 될 성곽에 새겨진 이름들과 흔적만 남아있는 사찰의 유물 그리고 고대인들의 흔적에서 우리는 그들의 삶과 애환과 고뇌를 읽어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나를 포함한 거대한 우리를 생각해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역사적 맥락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몇 분의 지도교수님들과 연구자들이 동행하는 이번 답사는 역사학도임을 자임하는 우리에게 훌륭한 학습과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생활속에서 각자가 사연이 있는 물건을 간직하고 상처를 돌아보는 마음으로 역사의 흔적을 '유심히' 살펴봄으로써 수업과 책을 통해 얻을 수 없는 값진 배움을 얻게 되기 바랍니다. 주어진 것이 아닌 발견해낸 깨달음이 무엇보다 의미 있고 오래 지속되리라 확신합니다.

당부하고 싶은 것은 공식 학부답사는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것이기에 정해진 일정에 맞춰 무리없이 움직여줘야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점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여러 사람들이 찾는 유적지에서 학교와 학과의 위신을 훼손할 만한 행동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답사가 차질 없이 준비되도록 애쓰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번 답사가 유익한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답사 일정 및 경로

11월 3일 (水) 제 1 일

서울 ⇒ 추사고택 ⇒ 점심(도시락) ⇒ 남연군묘 ⇒ 윤봉길의사 사적지 ⇒ 해미읍성 ⇒ 서산마애삼존불 ⇒ 보원사지 ⇒ 덕산(숙박)

11월 4일 (木) 제 2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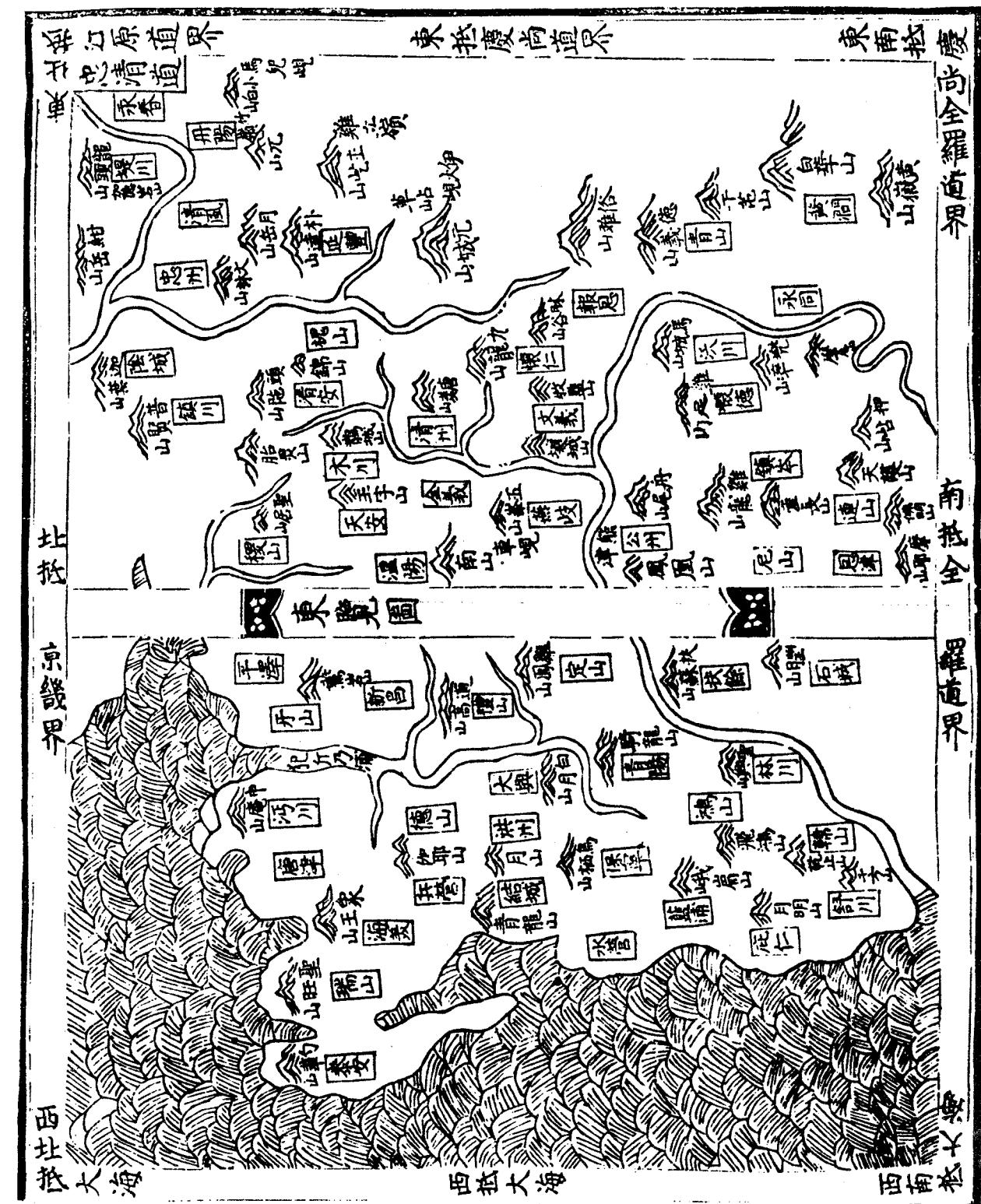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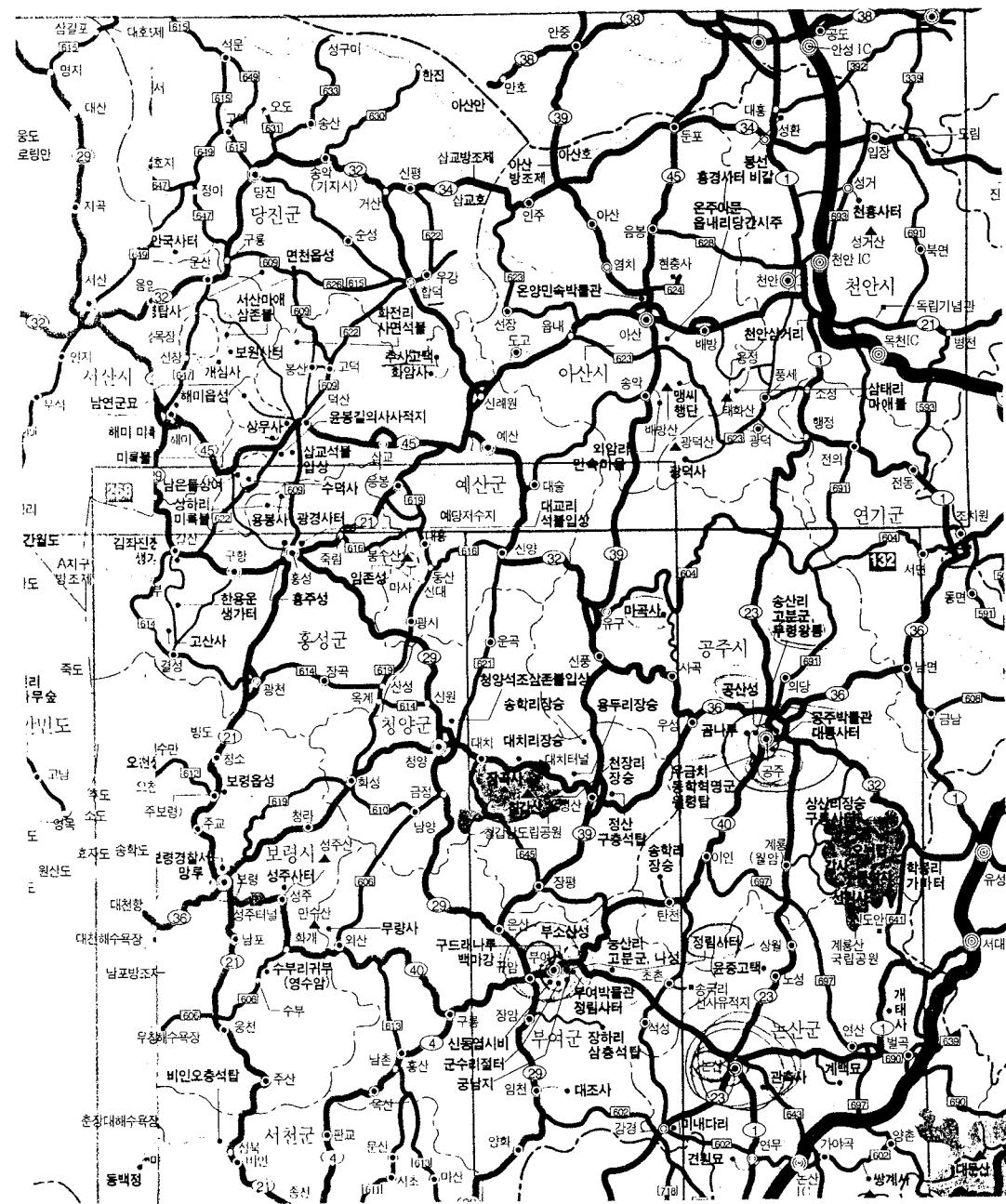
AM 6:40 흥성행

덕산 ⇒ 홍주성 ⇒ 오천성 ⇒ 보령읍성 ⇒ 성주사터 ⇒ 점심(무량사삼호식당) ⇒ 무량사 ⇒ 부여박물관 ⇒ 정림사지 ⇒ 부소산성 ⇒ 능산리고분군 ⇒ 부여(숙박)

11월 5일 (金) 제 3 일

부여 ⇒ 동학위령탑 ⇒ 공산성 ⇒ 공주박물관 ⇒ 점심(공주시내) ⇒ 석장리유적지 ⇒ 마곡사 ⇒ 서울

답사지도



忠 · 清 · 南 · 道

제 1 일

우리나라 중남부에 위치한 충청남도는 북쪽으로는 경기도의 평택·안성군과, 동쪽으로는 충청북도 진천·보은군과 맞닿아 있다. 남쪽으로는 전라북도의 완주·익산군 등과 접하고 있으며 서쪽으로 황해를 끼고 있다. 면적은 8,304km²로 남한 면적의 약 8.3%, 인구는 200만 2684명(1989년 현재)로 전국 인구의 7.2%를 차지한다.

기후는 온화한 편으로 1년에 평균 1,000mm~1,500mm 정도의 비가 내리며 토질은 기름진 편이어서 농사 짓기에 알맞다. 주요 생산지대는 금강유역의 저지대로 인구가 조밀한 편이다. 해안선은 전형적인 리아스식 해안으로 직선 거리는 150km에 불과하나 굴곡이 심하여 실제 거리는 1,700km에 달한다.

관광자원으로는 국립공원으로 계룡산이, 도립공원으로 칠갑산과 덕승산 등의 명산이 있으며 사찰로는 수덕사, 마곡사, 갑사, 개심사 등이 있다. 곳곳에 백제 시대의 유물·유적들이 많이 있다.

물산이 많기로는 영남이나 호남에 미치지 못하지만, 산천이 평온하고 아름다우며, 서울에 가까운 남쪽이어서 사대부들이 모여 사는 곳이 되었다. 서울에 대대로 사는 집 가운데 이 도에다 논밭과 집을 마련하여 생활의 근본으로 삼지 않은 집이 없다. 게다가 서울과 가까워 풍속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터를 끌라 살기에 가장 알맞은 곳이다.

-『택리지』 중에서

이곳에는 동성마을이 특히 많은데 30세대 이상의 동성마을 수가 442개에 달한다. 이중 규모가 큰 것으로는 서천군 한산면의 韓山 李氏, 연기군 양화리의 扶安 林氏, 보령군 웅천면의 慶州 金氏 등이 있다.

공주 석장리 유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곳에는 구석기 이래로 사람들이 거주하였다. 삼한 시대에 이르러 이 지역에는 마한 54개국 중 약 10여국이 있었다고 추정되며 이후 백제에 병합되어 웅진시대, 사비시대를 거치면서 그 중심지가 되어 왔다. 백제 멸망 후 현 예산군에 위치한 任存城에서 黑齒常之 등이 부흥운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백제 멸망 후에는 한때 당나라 도독부의 통치를 받다가 신라에 병합되어 熊州에 속하였다. 신라가 쇠퇴하자 후백제·후고구려가 運州(현재의 洪城)·옹주(현재의 公州)에서 활약하였으나 931년(태조 14) 고려에 통합되었다.

'충청'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얻은 것은 1356년(공민왕 5)에 이르러서였고 조선이 건국되면서 계룡산 지역이 새 도읍지로 주목되기도 하였다. 풍수지리상 부적합하다는 말에 따라 新都 건설은 중지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계룡산 일대는 신흥 종교들의 본산으로 주목받아 왔다.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바다에 접한 내포 땅에서 급격히 교세가 확장되었다. 1791년(정조 15) 典禮 문제를 일으킨 윤지충도 충남 진산 사람이었으며 우리 나라 최초의 신부 김대건도 당진 사람이다. 1794년(정조 18)에는 청나라 신부인 주문보가 직접 이 지역에서 포교를 하기도 하였다. 이 지역의 천주 교세가 급격히 확장됨에 따라 백여 명이 처형되기도 하였다.

갑오농민전쟁이 마감된 곳, 청일전쟁이 시작된 곳 모두가 충청남도로, 근현대의 격동기를 함께 한 지역이었다.

禮 · 山 · 郡

이 군의 동쪽에는 차령산맥이, 서쪽에는 가야산맥이 남서쪽으로 달리고 있어 동부와 서부는 산지를 이루며, 중앙부에 넓은 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동부에 道高山(482m)·鳳首山(534m) 등이 서부에 修德山(495m), 伽倻山(678m) 등이 솟아 있으며 이들 사이를 삼교천과 무한천 등이 흐르면서 그 유역에 넓고 기름진 禮唐 평야를 전개시킨다. 불교문화재로 덕산면 사천리의 修德寺가 유명하며 백제 유일의 四方佛인 봉산면 화전리의 예산화전리면석불 등이 있다. 오페르트에 의한 도굴 사건으로 유명한 남연군묘가 위치한 곳도 이곳 덕산면이다.

추사 고택 (秋史 故宅)

·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43호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에 있는 조선시대의 주택. 조선후기 서예가이며 금석학자인 김정희의 고택으로, 중조부인 駙馬 金漢蘊에 의하여 건립되었다. 집을 지을 때 京工匠들이 와서 지었다고 전한다. 지금은 대문채·사랑채·안채·사당채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에 더하여 곳간채가 있었다. 추사의 직계손이 끊겨 다른 사람에 팔린 사이에 많은 건물들이 헐렸다. 지금 건물들은 1977년 수리·복원된 것이다.

전체적으로 서쪽의 안채와 그 지반보다 약간 낮은 동쪽의 사랑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건물 전체가 서에서 동으로 길게 배치되어 있는데 안채와 대청이 동향하고 사랑채와 안채의 각 방이 남향하여 기능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각 방의 전면에는 톱마루가 있어 이것을 통로로 서로 내왕할 수 있게 하였다. 지붕구조는 홀처마에 팔작지붕을 주로 하고 지형의 고저차가 생긴 곳에서는 맞배 지붕으로 처리하여 지형에 따라 총이 지게 적절히 처리하였다.

【안 채】 가운데에 있는 안마당을 중심으로 사방이 완전히 밀폐된 ㅁ자형의 평면배치를 이루었다. 서쪽 중앙부분에는 3×2칸의 대청이 동향하고 이에 對向하여 동쪽에 2칸 규모의 중문과 1칸의 행랑방이 있다. 한편 안방과 그에 부속된 공간들은 북쪽을 차지하고 있으며 안방 동쪽으로 계속해서 2칸의 부엌이 이어져 있으나 이 부엌과 안마당의 사이에는 벽이 없어 개방된 상태다.

【사랑채】 대청 건너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건넌방은 그 동쪽에 2칸 규모의 부엌이 달려 있으며 다시 그 동쪽으로 두 개의 방을 이어내고 중문과 연결하고 있다. 남향하여 역 ㄱ자형의 평면을 이루고 있다. 남으로부터 1칸의 온돌방과 2칸의 마루방이 있으며 그로부터 동쪽으로 꺾여서 1칸 규모의 대청이 있고 다시 2칸으로 이어진 큰 사랑방이 있다.

고택 원쪽을 따라 계곡을 하나 지난 자리에 추사 김정희의 묘가 있고 오른쪽으로 둔덕을 하나 넘으면 추사의 증조할머니가 되는 영조의 딸 화순옹주묘가 있다. 화순옹주는 남편인 추사의 증조부, 김한신이 죽자 식음을 전폐하여 따라 죽은 것으로 유명하다.

추사 김정희 (秋史 金正喜)

· 1786(정조 10)~1856(철종 7)

본관은 慶州이며 字는 元春. 호는 秋史, 阮堂, 禮堂, 詩庵, 老果, 農丈人, 天竺古先生 등 백여가지에 이른다. 충청남도 예산 출신으로 조선조의 훈척가문의 하나인 慶州 金門에서 병조판서 魯敬과 杞溪俞氏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나 큰아버지 魯永 앞으로 출계하였다. 추사의 집안은 7대조인 金弘郁이 황해도 관찰사로 있을 당시에 姜嬪獄事에 대해 바른 말로 상소하다가 杖殺된 일이 있은 후 名門으로 부상하였다. 추사의 고조 興慶은 영의정을 지냈고 증조 漢蘊은 영조의 장녀인 和順翁主의 부마가 되어 月城尉에 피봉되었다.

추사는 어려서부터 총명하였고 암기력이 비상하였으며 일찍부터 서울에 올라와 학업에 정진할 수 있어서 20대에 이르러 이미 학문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특히 추사가 일찍 학문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楚亭 朴齊家의 영향이 매우 컸다.



당시 북학파의 중심 인물이었던 박제가는 추사의 생부 김노영과 함께 燕行을 하는 인연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추사와 박제가는 자연스럽게 師弟 관계를 맺게 되었다. 추사는 박제가로부터 북학파의 영향을 받게 되어 청조 고증학에 대한 관심이 커져 갔다.

1809년 24세로 생원시에 일등으로 入第한 추사는 그 해 12월 생부인 김노경이 冬至兼謝恩副使로 여행함에 따라서 子弟軍官으로 수행하게 되어 청조의 학문을 직접 접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 여행은 추사의 학문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당대 대학자인 阮元, 翁方綱 등을 만나 師弟義를 맺을 수 있었는데, 이들은 추사의 학문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추사는 31세 때 『實事求是說』을 저술하여 자신의 經學觀을 밝혔으며 北漢山 巡狩碑를 발견, 판독하였다. 34세인 1819년(순조 19)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이후 규장각 대교, 예조참의 등을 거쳐 병조참판에까지 올랐다.

한편 1830년 생부 김노경이 尹商度獄에 연루되어 古今島에 유배된 적이 있었는데, 1840년 안동김씨와 풍양조씨의 정권 싸움에서 이것이 재론되어 김노경은 관직을 추탈당하고 추사는 제주도로 유배되어 9년을 보내다가 1848년에야 귀양에서 풀려났다. 그러나 1851년 친구인 영의정 權敦仁이 안동김문이 행한 철종의 왕위 계승이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비판한 것에 연루되어 北青으로 유배되었다가 2년 만에 풀려 돌아왔다. 당시는 안동 김문이 득세하던 시기였으므로 다시 정계에 복귀하지 못하고 생부 김노경의 묘소가 있는 과천에 은거하며 지냈다. 추사는 10여 년 간의 유배생활로 불우한 말년을 보냈지만 유배기간 중에 더욱 학문에 정진해 많은 저술들을 남겼고 서화에 있어서도 『歲寒』 등 여러 작품들을 남겼다. 추사는 果川의 瓜地草堂과 뚝섬의 奉思寺를 왕래하면서 저술과 작품활동, 불교 신앙 생활에 열중하다가 철종 7년인 1856년 71세의 나이로 서거하였다.

추사의 제자로는 趙熙龍, 田琦 등이 유명한데 특히 추사가 높이 평가했던 인물은 小癡 許鍊이었다. 허련의 화풍은 그의 가문과 후계자를 통하여 현대의 湖南畫壇에 전해 오고 있다.



◆ 『秋史影幀』 1857년 李漢喆작

남연군묘 (南延君墓)

남연군 묘는 조선조 말 홍선대원군의 야망이 묻힌 곳이다. 1822년 남연군이 돌아가고 난 뒤 명당을 찾던 도중, 두 곳이 눈에 들어왔다. 가야산 동쪽에 2대에 걸쳐 천자가 나오는 자리와, 광천 오서산에 만대에 영화를 누리는 자리이다. 홍선대원군은 두 말 할 것 없이 가야산을 택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이미 가야사가 있었고, 명당 그 자리에는 금탑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다 폐하고 남연군의 묘를 옮겼다. 남연군 묘의 지세는 한 마디로 풍수지리가 일컬는 명당의 조건을 모두 갖춘 곳이다. 뒤로 가야산 서편 봉우리에 두 바위가 문기둥처럼 서 있다는 석문봉이 주산이 되고, 왼쪽으로는 옥양봉, 남경봉이 덕산을 거치면서 30리에 걸쳐 용머리에서 몇몇 청룡세를 이루고, 오른쪽으로 백호의 세는 가사봉, 가엽봉에 원효봉으로 이어지는 맥이 금청산 월봉에 뭉쳐 감싼 자리이다. 동남향을 바라보던 평야를 지나 멀리 60리 떨어진 곳에 있는 봉수산이 안산이 된다. 남연군 묘 앞에 있는 장명등 창으로 남쪽을 바라보면 그 동그란 창새로 보이는 곳이다. 또 청룡맥의 옥녀폭포의 물과, 백호의 가사봉 계곡의 물이 와룡담에 모였다가 절 앞에서 서로 굽이치며 흐르니 임수의 지세도 얻었다. 가야사는 그 두 물줄기가 합치는 곳에 있었다. 금탑이 있던 자리라는 남연군 묘는 그 뒤 우뚝 솟은 언덕빼기이나, 흔히 절 마당이나 법당 앞에 탑을 놓는 방식과는 달리 절 뒤쪽의 언덕에 탑이 있었던 것만도 예사 자리는 아니다.

윤봉길 의사 사적지

윤봉길 의사 사적지는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에 있다. 사적지에는 생가와 네 살 때부터 중국 망명 전까지 살던 집이 따로 있다. 생가는 두 물길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배모양의 도중도에 있고 광현당이라는 당호가 붙여 있다. 옛 집은 그가 네 살 때 옮겨온 곳이다. 이 집에는 '한국을 건져내는 집'이라는 뜻으로 윤봉길이 지어붙인 '저한당'이라는 당호가 있다. 둘 다 조출한 초가집이다. 윤의사 사적지는 1972년에 사적 제 229호로 지정되었다.



사적지를 정비하면서 여러 곳을 갈고 다듬고 하여 건문 자체의 옛 맛은 남아 있지 않다. 기념관 안에는 상해 홍구공원에서 의거 할 때 지니고 있던 소지품과 그가 생전에 쓴 유품과 서책, 글씨들이 전시되어 있다. 그중 회중시계는 상해에서 의거하기 직전에 김구 선생과 마지막으로 작별하면서 서로 나누어 가졌던 물건이라고 한다. 그가 사형을 당한 일본 가와사나 교외의 미코시 공병 작업장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윤봉길의 무덤에서 나왔다는 형틀대도 있다. 그가 20세에 야학을 꾸릴 때 교재로 펴낸 『농민독본』도 있다. 이와 더불어 국립중앙박물관 등지에도 있는 윤봉길의 유품은 그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인정받아 일괄하여 13종 68점이 함께 보물 제568호로 지정되어 있다. 사적지 길 건너에는 사당 충의사가 있어 해방 후에 돌아온 유해가 보존되어 있다.

해미면 (海美面)

충청남도 서산군 남동부에 있는 면. 면소재지는 읍내리이다. 면의 동부는 대체로 100~500m의 산지를 이루며, 동쪽 경계에는 석문봉(653m) · 가야봉(678m) · 뒷산(448m) 등이 솟아 있다. 동남부의 연암산(441m) 일대에서 발원한 해미천이 면내에서 북서류하며, 남서쪽의 해미천 하구에는 천수만방조제를 쌓아 형성된 담수호가 조성되어 있다. 면의 서부에는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다. 쌀 · 마늘 · 생각 등이 많이 생산되며, 비닐 하우스를 이용한 배추재배가 활발하다. 유물 · 유적으로 해미읍성(사적 제116호)이 있으며, 읍성 밖의 해미천 연안은 천주교도들의 생매장 순교지였다. 서산 - 예산을 잇는 국도가 면내를 지나며, 남북 방향으로 관통하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건설된 예정이다.



해미읍성 (海美邑城)

충청남도 서산군 해미면에 소재한 조선시대의 읍성. 사적 제116호. 해미는 1414년(태종14)에 충청도 덕산으로부터 충청도

병마절도사영이 옮겨온 곳으로, 충청도병마사영이 청주로 이전한 1651년(효종 2)까지 군사적 거점이 외었던 곳이다. 해미읍성은 1491년(성종 22)에 축조되어 서해안방어를 맡았던 곳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성의 둘레가 3172척, 높이가 15척, 성안에는 3개의 유물과 군창이 설치되어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영조때 편찬된 『여지도서』에 의하면 성의 둘레가 6630척으로 보로 계산하면 2219보가 되고 높이는 13척, 치성은 382첩으로 되어 있으며 사방에 문이 있다고 했다. 이 기록을 통하여 볼 때의 표본으로 삼아 서적으로 지정하고 보수 공사를 하는 한편, 성 안팎에 무질서하게 자리잡은 민가를 철거 · 이전시키고 종합적인 보존계획을 세웠다. 1974년에 동문 · 서문이 복원되었으며 1981년에는 성안의 일부를 발굴한 결과 관아 터가 확인되었다.

서산마애삼존불 (瑞山磨崖三尊佛)

• 국보 제84호

충청남도 서산군 운산면 용현리에 있는 백제시대 마애삼존불상. 7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태안반도에서 서산마애불이 있는 가야산계곡을 따라 계속 가면 부여로 가는 지름길이 이어지는데, 이 길은 예로부터 중국과 교통하던 古路였다. 바로 이 길에 서산마애삼존불, 예산화전리 사면석불, 태안마애삼존불 등이 위치하고 있다.

서산마애삼존불은 本尊과 左 · 右脇侍菩薩로 구성되어 있다. 목중하고 중후한 체구의 본존은 머리에 寶珠形 頭光이 있으며, 素髮의 머리에 육계는 작다. 살이 많이 오른 얼굴에는 흔히 '백제의 미소'로 알려진 미소를 띠고 있다. 목에는 三道가 없고 법의는 두꺼워서 거의 몸이 나타나지 않는다. 옷주름은 앞에서 U자형이 되고 수인은 施無畏 · 與願印을 맺고 있다. 대좌부터 광배 까지의 길이는 2.8m에 달한다.

우협시보살은 머리에 높은 관을 쓰고 눈과 입을 통하여 만면에 미소를 풍기고 있다. 상체는 裸形이고 하체의 법의는 발등까



지 내려와 있다. 좌협시보살은 일반적인 양식에서 벗어나 半跏像 을 배치하였다. 두 팔에 크게 손상을 입었으나 전체적인 형태는 충분히 볼 수 있다. 머리에는 관을 썼고 역시 만면에 미소를 띠고 있다. 두 보살 모두 전체적으로 4등신의 비례를 가졌으며 대좌부터 광배까지의 길이는 약 1.7m이다. 본존의 눈을 크게 뜯은 웃음, 우협시보살의 소녀같은 미소 등은 백제의 특색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 삼존상은 『法華經』의 授記三尊佛, 즉 석가불·미륵보살·제화갈라보살의 삼존불로 보거나 당시 성행했던 신양형태에 따라 석가여래와 관음·미륵보살로 추정하기도 한다.

김좌진 장군 생가터

홍성에서 해미가는 길에 있는 길산면 행산리는 '청산리대첩'으로 유명한 백야 김좌진(白治 金佐鎮, 1889~1929) 장군의 고향이다. 개화 사상이 투철한 장군은 15세 때에 가노를 해방할 정도였다. 1905년 호명 학교를 세운 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국권 회복의 신념을 가지고 상경하여 지사들과 교류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대한협회지부를 결성하였다. 다시 상경하여 기호홍학회, 청년학우회, 한성순보의 간부로 활발하게 활약하였다. 1913년 대한 광복단에 가입하여 군자금을 모으다가 체포되어 3년형을 선고받았다. 출옥 후 1917년에 만주로 건너가 대종교에 입교하였는데 이후 죽을 때까지 평생을 항일운동에 바쳤다. 삼일운동 후에는 북로군정서의 사령관이 되어 1600여명의 독립군을 훈련시켰는데, 이를 기반으로 1920년 10월 20일에서 23일까지 나중소, 박영희, 이범석 등과 함께 청산리전투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다. 제1921사단의 5만군대를 2500명의 독립군이 대항하여 3300여명의 일군을 섬멸한 이 싸움은 독립전쟁 사상 최대의 승리로 손꼽힌다. 그 후 흑룡강쪽으로 부대를 이동하여 대한독립군단을 결성하여 부총재에 취임하였고, 1925년에 만주로 돌아와 신민회 중앙집행위원장을 맡으면서 성동사관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 간부 양성에도 주력하였다. 1929년에는 한족연합회를 결성하여 황무지 개간, 문화계몽 산업, 독립정신 고취와 단결을 호소하다가 박상실에 의해 암살당하였다. 1962년 건국공로훈장 중장을 추서받았다.

만해 한용운 생가터

무량리의 고산사를 지나 청룡산 옆구리로 난 길을 따라 북쪽으로 가면 결성면 성곡리에 이른다. 양옆으로 과수원이 용기종기 있는 한갓진 길에 자그마하게 한용운 선생 생가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표지판이 있다. 포장된 길을 따라 조금만 들어가면 산자락에 기대 조붓하게 앉아 있는 초가 삼간 한 채가 눈에 들어온다. 이곳은 시인이며 독립 운동가인 한용운 선생이 1879년(고종 16년)에 태어난 곳이다. 선생의 호는 만해이며 속명은 유천이다. 어려서부터 신동이라는 평을 받았으며 의협심이 강했다고 한다. 16세에 설악산 오세암으로 들어가 27세(1905년)에 인제의 백담사에서 득도하니 은사는 연곡화상이며, 계명은 봉완, 법호는 용운이다. 1919년 3·1운동 때 독립선언서에 공약 3장을 첨가하였다. 민족대표 33인의 한 분으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 체포되어 3년형을 받았다. 1926년 시집 『님의 침묵』을 출간하여 저항 문학과 일제 침략 당시의 민족혼을 일깨우려 노력하였다. 1944년 5월 9일 성북동 심우장에서 66세를 일기로 입적하였고, 유해는 망우리에 안장하였다. 1962년 건국공로훈장이 추서되었으며 한용운 선생의 애민·애국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자 이곳에 표석을 설치하였다. 현재의 초가집은 옛터에다가 최근에 복원한 것이다. 기념식수와 안내판, 석비들이 다소 어색하지만 그래도 바자울에 사립문이 있어서 꺽 정답다.

보원사지 (普願寺址)

최치원의 『당대천복사 고사주 변경대덕 법장화상전』에 기록된 통일신라시기 화엄 10찰중의 하나. 백제시대 서산마애삼존불상의 본사라고도 하고, 한때 고란사라는 이름이었다고도 하나 절의 내력에 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 조선중기의 『동국여지승람』에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전에 폐사가 된 듯 보인다.

입구의 당간지주가 늠름하게 수문장 노릇을 하고 있고, 그안쪽 거의 일직선 상으로 키 큰 고려시대의 5층석탑이 있으며, 안쪽으로 석조와 범인 국사부도, 그 부도비와 건물자리의 기둥초석

들이 넓은 터에 여기 저기 흩어져 있다. 이들을 각각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동서로 길게 누워있는 봉원사터는 현재 사적 361호로, 발굴조사시 백제 금동여래입상과 통일신라시대 금동여래 입상이 발견되었다.

제 2 일

홍성군

충청남도 서해에 있는 군. 예로부터 충청남도 서부 지역의 교통·통신·행정·교육 및 기타 서비스업의 중심지로 발달해 왔다. 지금의 홍성군은 조선시대의 홍주목과 결성현이 합해져 이루어진 군이다. 홍주목의 고려시대 이전의 역사는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단지 《대동지지 大東地志》에는 백제 멸망 후 부흥 운동의 최후의 항거지였던 주류성으로, 그 후 신라가 임성군을 설치한 것으로 기록했을 뿐이다. 조선시대에 차령산맥 이북의 충청도 서북부의 중심지역이며, 충청도 4대 고을 중 하나였던 이 지역은 이후 대전의 성장 등으로 그 세력이 축소되기 시작했다. 전체적으로 군의 동쪽·남쪽·북쪽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서쪽은 천수만에 접해 있다. 홍주목의 소재지로 예로부터 공주와 함께 충청남도 지역의 행정·경제·교육·군사 중심지로 발달해, 유물·유적이 많다. 노은서원·성삼문 선생 유허비·홍주성 등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14점이 있다.

홍주성

홍성에 진입하여 길 한가운데에 들어서면 홍주성의 동문인 조양문과 맞부딪치게 된다. 조양문을 바라보아 원쪽으로 난 길을 따라 쭉 들어가면 홍성군청문 옆에 홍주목의 정문이었던 홍주아문을 볼 수 있다. 사적 제231호로 지정되어 있는 홍주성을 보기 위해 가장 좋은 곳은 홍주아문 원편으로 난 길을 따라 올라간 곳이다. 돌을 잘 다듬어 얌전하게 쌓아올린 4m 높이의 석축이 둘러싸여 있다. 현재 남은 길이는 810m 정도인데, 이것은 원래

- 신증동국여지승람

“홍주는 호서(湖西)의 거읍(巨邑)이다. 그 땅은 기름지고 넓으며, 그 백성이 번성하고 많아서, 난치의 고을로 일컬어 왔다”

1772m 길이의 성곽을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들이 허무려하는 것을 읍민들이 강경하게 반대하여 지킨 것이다. 홍주성은 백제가 멸망했을 때에 부흥군의 중요 거점이었던 주류성으로 추정되기도 하지만 처음 성을 쌓은 것이 언제인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조선 초기에 새로 수축한 모습이 아직까지 남아 있으므로, 조선 초기의 축성 규칙에 따른 모습을 충실히 보여 주어 역사적으로나 학술적으로 그 가치가 높다. 축성 당시에는 적대(敵臺)가 24곳, 문이 4곳, 성내에 우물이 2곳 있었으며 둘레에는 해자를 파지 않았다고 한다. 여러 번 수리를 했으나 1870년에 목사 한웅필이 동문인 조양문(朝陽門)과 서문인 경의문(景義門), 북문인 망화문(望華門)과 관영을 지었다. 다른 성들과는 달리 문루가 없다는 점이 특이하다.

조양문 (朝陽門)

홍주성 문루 가운데에 가장 중심이 되는 문이며 유일하게 복원된 것으로 사적 제201호이다. 주문이 동문인 점은 대개 남문이 주문인 다른 성들에 견주어 특이하다. 그러나 홍주성이 서해로부터 침공해 들어오는 왜구를 물리치는 거점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이해가 간다. 조양문의 문루는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팔작지붕에 다포계 전물이다. 현재의 모습은 1975년에 완전히 해체하여 복원한 것인데 삭축 가운데 부분에는 세월의 때를 입은 옛 돌이, 바깥쪽에는 흰 빛의 새 돌이 있어 세월의 대조를 보여 준다.

오천면

충청남도 보령군 중북부에 있는 면. 면소재지는 소성리이다. 대부분의 지역이 200m이하의 구릉성 산지를 이룬다. 북쪽은 천수만, 서쪽은 서해에 면해 있으며, 원산도·삽시도·효자동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경지는 해안과 하천 연안에 분포한다. 농업과 어업은 약 6 : 4의 비율을 보인다. 주요 농산물은 쌀·콩·잎담배 등이며, 멸치·꽃게·우럭·새우·전복 등의 어획과 김 양식이

활발하다. 보령오천성·오천향교대성전 등의 우적과 외연도에 상록수림(천연기념물 제136호)이 있으며, 원산도에 원산도 해수욕장이 있다. 대천·홍성을 잇는 국도와 연결되는 지방도가 면내를 지난다.

오천성 (鰐川城)

오천성(鰐川城)은 조선 중종 5년(1510년)에 서해안 방어 기지의 하나로 쌓은 성이다. 구릉 주변에 성을 쌓아 성밖과 바다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아주 전망 좋은 곳이다. 오천항은 고려 때부터 배가 드나들던 항구로 일본과 중국을 향한 중요한 교역항이었고, 조선시대에 와서는 충청도 수군절도사영이 있던 수영(水營)이 있었으니 군사적인 중요성이 강조되었던 곳이다. 넓이가 1만 3747m² 나 되는데 그 안에 관덕정 등 정자와 옹성 5개, 문 4개, 봉 1개소와 40여동의 건물이 있었으나 지금은 장교청 등 두 채 외, 서문이었던 망화문터의 석문 홍예만 남아있고 성축이 남은 길이는 모두 1km 남짓하다. 충청남도 기념물 제9호이다. 충청남도 읍성들의 돌 크기는 보령·면천·해미 읍성에서도 그러하지만 여기에도 큼지막한 돌들을 잘 다듬어서 쌓은 것임을 볼 수 있다. 남아서 잘 보이는 부분은 많지 않으나 그 쌓은 모양만큼은 정연하다. 다만 너무나 폐허처럼 버려져서 찾는 이가 드물고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지 못하니 그래서 더 쉬이 망가질까 걱정스럽다.

보령읍성 (保寧邑城)

서해안은 백제 시대 이래로 왜구의 침략이 끊이지 않아 늘 불안한 곳이었다. 그래서 서해안 쪽에는 방비를 위한 수영도 세워지고 읍성도 석축으로 견고하게 쌓은 곳도 많은데 보령읍성도 그 가운데 하나다. 지금은 보령에 내주고 말았지만 옛날에는 이 곳 주포면이 보령 행정의 중심지였다. 보령리의 이 읍성은 고려 시대에 처음 쌓고(아마 토성이었던 듯하다) 조선시대 석성으로

고쳐 쌓은 것으로 여겨지니 그때부터 조선시대까지 이 읍성은 군사요충지로서, 행정중심지로서 그 구실을 다했다. 높이 3m의 성돌레는 633m가 남아 있으며, 성안에는 봉 하나와 우물 둘이 있었다고 한다. 충청남도 문화재 자료 제146호이다. 11세기인 고려 현종 때 거란의 침입을 방비하려고 처음 쌓았으며 고려 말엽에는 외곽에 고남산성을 쌓아 방비를 더 튼튼히 했다. 결국 왜구의 손에 크게 파손되어 10여년 동안 방치되다가 조선시대에 들어 석성으로 다시 세워졌던 것이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에 완전히 파괴되어 오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맨 아래쪽 둘은 1m 가 넘는 큰 것도 있어 매우 튼실해 보이나 그야말로 세월의 무상함을 말하는 듯하다.

성주사지 (聖住寺址)

충청남도 보령군 마산면 성주리 성주상에 있었던 사찰. 선문구산의 하나인 성주산파의 중심사찰이었다. 『三國史記』에 기록되어 있는 백제 법왕 때에 창건된 오합사가 이 사찰이라는 사실이 1960년부터 수합된 기왓장조각에서 확인되었다. 백제의 멸망 직전에 이 절에 큰 적마가 나타나 밤낮으로 여섯 번이나 절을 돌아다니면서 백제의 멸망을 예시해주었다고 한다. 신라 문성왕 때 당나라에서 귀국한 국사 무염이 김양의 전교에 따라 이 절을 중창하고 주지가 되어 선도를 선양하게 되자 왕이 성주사라는 이름을 내리게 되었다. 그 뒤 이 절은 성주산파의 총본산으로 크게 발전하였으나 임진왜란 때 전소 된 뒤 중건되지 못하여 현재 폐사터만이 사적 제 307호로 남아 있다. 그러나 번창하였을 때에는 절에서 쌀 씻은 뜨물이 성수천을 따라 10리나 흘러내렸다고 한다. 문화재로는 국보 제8호인 성주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를 비롯하여 4기의 석탑과 석등, 석불입상, 당간지주, 석계단 등이 있어서 옛날의 규모를 말해준다. 이 가운데 백화상탑비는 890년(진성여왕 4)에 세워진 신라 최대의 것으로 최치원의 글들 짓고 최인연이 썼는데 고어연구에도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4기의 석탑은 신라 말에 건립된 것으로 보물 제 19호인 경주사지오총석탑과 보물 제 20호인 성주사지중앙삼층석탑, 조각수법이 우수한 보물 제 47호의 성주사지서삼층석탑,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 26



호인 성주사지동삼층석탑 등이다. 또한 높이 1.85m의 석등은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 40호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2단이 남아 있는 석계단은 목에 방울이 달린 석수가 앉아 있으며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 140호로 지정되어 있다.

무량사 (無量寺)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만수산에 있는 사찰. 대한 불교조계종 제 6교구 분사인 마극사의 말사이다. 신라 말에 범일이 창건하여 여러 차례의 중건, 중수를 거쳤으나 자세한 연대는 전하지 않는다. 다만 신라 말의 고승 무염이 일시 머물렀고, 고려 시대에 크게 중창하였으며, 김시습이 이 절에서 말년을 보내다가 입적하였고, 저선 중기의 고승 진묵이 아미타불을 점안하고 나무 열매로 술을 빚어서 마시면서 도도한 시심을 펼쳤던 사찰이다. 현존하는 당우로는 극락전을 비롯하여 산신각, 요사채 등이 있다. 보물 제 356호로 지정된 극락전에는 동양최대의 불좌상아라는 아미타여래삼존상이 봉안되어 있으며, 산신각에는 김시습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중요 문화재로는 보물 제 233호로 지정된 석등과 보물 제 356호로 지정된 오층석탑, 절 문앞에 있는 거대한 당간지주, 김시습의 부도 등이 있다. 또한 김시습이 1493년 (성종 24)이곳에서 죽자 승려들이 그의 영각을 절 곁에 짓고 초상을 봉안하였다. 그 위 읍의 선비들이 김시습의 풍모와 절개를 사모하여 학궁 곁에 사당을 짓고 청일사라 이름하고 그 초상을 옮겨 봉안하였다. 이 절에서는 조선시대 상당수의 경판이 간행되었다. 1498년(연산군 4)에는 『법계성풍구류승회재의궤』를, 1522년(중종 17)에는 『몽산화상육도보설』을, 1470년에서 1494년 사이에는 『지장보살본원경』을 간행하였다.

부여군 (夫餘郡)

충청남도 서남부에 위치한 군. 동쪽은 논산군, 서쪽은 서천군·보령군, 남쪽은 금강을 경계로 전라북도의 익산군 북쪽은 공주군·청양군과 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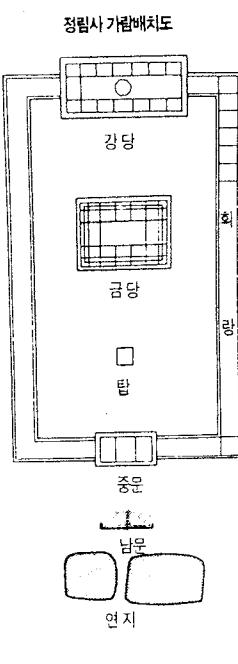
백제의 옛 도읍지였기 때문에 유물·유적이 많다. 1975년에 발굴, 조사된 초촌면 송국리 선사취락지는 농경생활을 영위하던 청동기 문화인의 유적으로서는 최대 규모이다. 이곳에서는 주거지를 비롯하여 민무늬토기·간석기·돌널무덤 등이 발견되었으며, 탄화미도 발견되어 벼농사의 기원을 무문토기문화와 확실하게 연결지을 수 있게 되었다. 또 이것도 연관성이 있는 초촌면 산적리와 규암·은산·충화·석성 등에는 고인돌을 비롯하여 청동기기대의 많은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삼한시대에는 마한의 초산국이 이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의 부여군은 백제 시대의 소부리·대산흘·가람흘·진악산에 해당된다. 특히 부여읍일대는 소부리 혹은 사비라고 하였으며, '부리'하는 말은 '밝다'·'붉다' 등에서 나왔다고 한다. 538년(성왕 16)에 백제는 웅진에서 사비로 도읍을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었다. 그 뒤 6대 120여 년 간 백제의 수도로서 번성기에는 13만여호의 가구가 살았으며, 이 시기에는 문화의 꽃을 피웠다. 백제가 멸망한 뒤에는 문무왕이 총관을 두었다가 686년(신문왕 6)에 사비주를 군으로 삼았으며, 경덕왕 때 웅천주를 웅주로 고치면서 부여를 그 속군으로 하였다. 석산현·열성현 등이 속현으로 부여군 소속이 되었다. 신라 말에는 후백제의 영역이 되었다가, 고려가 성립된 되태조가 후백제 신검의 항복을 받고 후삼국을 통일한 뒤에 곧 이곳도 고려의 영역이 되었다. 그 뒤 성종 때 하남도에 예속되었고 예종 이후에는 청주목의 속군인 공주에 속하였으며 부여군이라 하였다. 현종 때는 일시 현으로 강등되기도 하였다. 1028년(현종 19)에는 정림사가 중건되었다고 한다. 고려 말엽에는 왜구의 침입이 극심하였는데 1376년(우왕 2)에 죄영이 홍산면 일대에서 왜구를 크게 토벌하였다. 건국초기에는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채택하여 오다가 태종 때에 팔도제를 정비하면서 공주목의 속현이 되었다. 부여군은 부여현·홍산현·임천군·석정현으로 나뉘어 있었고, 4개군현에 각각 향교가 설립되었다. 또한 6개의 사액서원을 비롯하여 많은 서원·사우가 세워졌다. 1895년(고종 32)에는 팔제도가 폐지되고 전국을 23부로 구획하여 공주부 아래의 부여군으로 승격시켰다. 1896년 13도제로 변경하였을 때 충청남도의 군이 되었다. 1914년 부·군통합령의 실시로 홍산·임천 전 지역과 공주의 일부 지역을 편입하여 16개면을 관할하였다. 1960년 부여면이 읍으로 승격되었으며, 1963년에는 석성면 현북리가 부여읍에 편입되었고, 장암면 사산리는 세도에 편입되었다.

국립부여박물관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 부소산에 있는 국립 박물관. 1929년 부여고적보준회가 백제유물을 전시하여 백제관을 개관한 뒤 39년 4월 총독부 박물관 부여 분관이 되었고, 49년 12월 문교부 소속의 국립 박물관으로 승격하였다. 90년 1월 문화부가 분리, 신설되면서 문화부 소속이 되었다. 제 1실이 선사시대 백제 시대실, 제 2실은 불상·공예실, 제 3실은 석불·석등 등의 석주 물실이고, 정원에 석조·석비·석재·주춧돌 등이 전시되어 있다. 소장 유물은 6,814점(1989년 3월 말 현재)이다.

정림사지 (定林寺址)

부여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이 정림사지는 백제사찰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적의 하나이다. 현재 경내에는 5층 석탑 1기와 석불좌상 일구가 남북으로 마주보며 남아있다. 이들 유물들 중앙에 두고 장방형으로 구획된 약 3000여평의 대지는 대부분 발굴조사를 마치고 정리 되었으며, 건물지 유구가 잔디 식재로 그 자리를 알 수 있도록 복원되었다. 이 사지는 그 유래나 사명 등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폐사지의 하나인데, 1942년 일본인 학자 등택일부에 의하여 발굴조사가 실시 되었다. 당시의 조사는 소규모의 것으로, 출토된 강당지와 편중에 '太平八年? ? 定林寺大? 當草'라는 명문이 있어 그 이후로는 정림사로 부르게 되었다. 그후 1979년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충남대학교박물관에 의해 2차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이 때는 사지 전역에 걸쳐서 약 3000평 정도를 조사하였는데, 일정시의 1차 조사에서 밝히지 못하였던 여러 중요 자료를 확인하였다. 현재 강당지의 중앙부에는 석불좌상이 안치되어 있으며, 이 강당은 고려시대에 재건된 것인데 고려시대 불상의 전재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되지만, 2차에 걸쳐 형성된 기단의 성격으로 보아도 정림사는 고려 때 재건된 사찰임이 분명하다. 정림사지는 남북오선상에 그 기분축을 두고 2개의 연못, 나문지, 중문지, 석탑, 금당지, 강당지 그리고 회랑이 구비된 일탑일금당의 전형적인 백제 가람의 모습을 갖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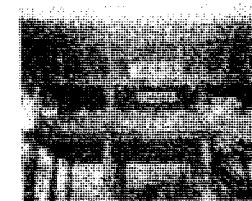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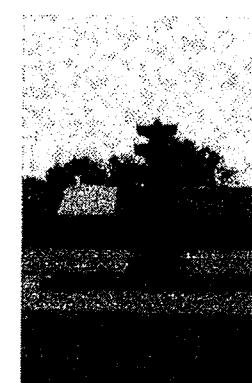
고 있다. 이 사지의 창건년대는 유구와 유물을 종합하여 볼 때 공주에서 부여로 도읍을 옮긴 직후 얼마지나지 않은 6세기 중엽으로 추정되며, 고려시대에 강당자리에 중창하였던 정림사는 그 평화에 부조된 명문과 마찬가지로 고려 현종 19년(1028)이 된다.

정림사지5층석탑 (定林寺址五層石塔)

국보 제 9호. 높이 8.33m. 재료는 화강암으로 7세기의 것으로 추정. 현재 남아있는 2기의 백제 탑 중의 하나로서 한국석탑 양식의 발전과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다. 좁고 얕은 2기의 백제 탑 중의 하나로서 한국석탑 양식의 발전과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다. 좁고 얕은 단층기단이나 1층 우주의 엔타시스 기법, 얇고 넓은 옥개석 형태, 목조 건물의 두공(斗拱)을 병형시킨 받침수법이나 탑의 세부를 따로 만들어 구조한 것 등은 목탑 형식에서 번안된 것임을 말해준다. 1층 탑신에는 당나라 소정방이 백제를 침략한 후에 4면에 새긴 명문이 있다. 전체형태가 세련되고 장중한 느낌을 누는 것으로 후세 석탑의 모범이 되는 초기형태의 석탑이다.

부소산성 (扶蘇山城)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소재 부소산에 있는 백제시대의 토석혼축산성. 사적 제 5호. 둘레 2,200m 면적 74만6202km². 부소산의 산정을 중심으로 테뫼식 산성을 축조하고 다시 그 주위에 포곡식 산성을 축조한 복합식 산성으로, 성내에는 사비루·영일루·반월루·고란사·낙화암·사방의 문지·군창지 등이 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사비성'·'소부기성'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산성이 위치한 산의 이름을 따서 부소산성으로 불리고 있다. 이 산성은 백제의 수도인 사비를 수호하기 위하여 538년(성왕 16) 수도 천도를 전호한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보이나, 이보다 먼저 500년(동성왕 22)경 이미 산봉우리에 테뫼형 산성이 개



축되었고 605년(무왕 6)경에 현재의 규모로 확장, 완성된 것으로 추종되고 있다. 성의 바깥 벽면은 기황색사질토를 겹겹이 다져 놓았다. 그 위에 돌을 3~5단으로 쌓고 흙을 덮었다. 이런 방식으로 축조된 산성의 입지는 경사면이어서 원래의 경사도보다도 더욱 가파른 경사를 이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이 삼성의 아래 너비는 7m 가량이며 높이는 대략 4~5m에 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내에는 동·서·남문지가 있으며, 북쪽의 금강으로 향하는 낮은 곳에 북문과 수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동문지로 추정되는 곳에는 대형 철제 자물쇠가 발견되어 문지 옆음을 입증해주고 있으며, 남문지에는 아직도 문주로 사용하였던 초석 2개가 동서로 나란히 있다. 1978년 금강상수도 사업 공사로 인하여 성벽의 단면이 노출되었는데 성벽 내부는 잡석으로 적심석을 넣었음이 확인되었다. 또 한, 최근의 발굴조사에서 목책지와 수혈상의 주거지가 발견되었다. 이 삼성은 성내에 군창지와 건물지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일단 유사시에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보이나 평상시에는 백마강과 부소산성의 아름다운 경관을 이용하여 왕과 귀족들이 즐기는 비원으로서의 구실을 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한편 사비 천도 이후 백제 멸망시까지 국도의 중심산성으로서 인근의 청산성·창마산성 등의 보산성으로 왕도의 방어를 강화한 성곽발달사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낙화암 (落花巖)

충청남도 보여군 백마강변의 부소산 서쪽 낭떠러지 바위. 바위 위에는 백화정이라는 조그마한 정자가 있다. 『삼국유사』 백제고기에 의하면 부여성 북쪽 모퉁이에 큰 바위가 있어 아래로는 강물이 임하는데, 모든 궁녀들이 굴욕을 면하지 못할 것을 알고 차라리 죽을지언정 남의 손에 죽지 않겠다고 하고 서로 이끌고 이곳에 와서 상에 빠져 죽었으므로 이 바위를 타사암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낙화암의 본래 명칭은 타사암이였는데, 뒷날에 와서 궁녀, 즉 여자를 꽃에 비유하고 이를 미화하여 불인 이름이 분명하다. 이 바위와 관련되어 전해오는 전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은 용

담이 많은 영주였는데 여러차례 신라의 여러 고을을 쳐서 천하에 그 성세를 높인 뒤로는 정사는 돌보지 않고 날마다 궁성 남쪽의 만해정에서 궁녀들을 데리고 가무주연의 향락을 일삼았다. 좌평 성충은 이를 근심하고 극력 간하였으나, 왕은 이 말이 귀에 거슬려 그를 옥에 가두어버렸다. 그러자 그는 마음이 아파서 죽고 말았다. 이러할 때 일찍이 백제의 침략을 받아온 신라는 무열왕 및 김유신 등의 영주와 명신이 나타나서 크게 나라의 힘을 길러 복수를 하고자 당나라 군사와 힘을 합하여 백제를 치게 되었다. 이에 백제의 용장 계백은 4천의적은 군사로써 황산벌에서 신라군사와 싸웠으나 패배하고 말았다. 그러자 나당연합군의 수많은 군사가 일시에 수륙 양면에서 쳐들어와 왕성에 육박해오자 왕은 그제서야 성충의 말을 듣지 아니 하였음을 후회하였다. 왕은 하는 수 없이 해질 때를 기다려 왕자 효를 데리고 웅진성으로 달아나서 싸웠으나 성문은 부서져 열리고 말았다. 수많은 궁녀들은 슬피 울면서 흉악한 적군에게 굴욕을 당하는 것보다 깨끗하게 죽는 것이옳다고 생각하여 대왕포 물가 높은 바위에서 치마를 뒤집어쓰고 사자수 깊은 물에 몸을 던지고 말았다. 이러한 일로 하여 이 바위를 낙화암이라 하였다고 한다.

우금치 동학 혁명군 위령탑

제 3 일

공주에서 부여로 가는 40번 국도는 고개 하나를 넘어서 이어진다. 이 고개는 부여로 가는 길목이기도 하지만 부여나 논산에서 공주로 들어오려면 꼭 넘어야 하는 고개이다. 그리 험하거나 굽이지지도 않건만 이 고개는 우리 근대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곳이다. 1894년에 외세에 밀리는 관리들의 폭정과 수탈에 견디다 못해 '보국안민, 제폭구민'을 기치로 떨쳐 일어선 농민군이 이 우금치 전투를 마지막으로 처절히 패배를 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농민군의 주요 집결지였던 정읍, 부안, 고창 등과 더불어 그 역사를 길이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들려 보아야 할 3곳이다. 1994년은 1984년에 못 이룬 갑오농민 전쟁의 100주년이 되는 해였다. 고부봉기를 기념하여 2월부터 시작된 갑오농민 전쟁 100주년 기념 행사는 10월 30일 여기 공주 우금치에서 한 많은 농민군들의 넋을 달래는 추모제로

마무리되었다. 농민군이 스러져 간 지 꼭 100년이 된 1994년에서야 이 우금치는 사적 제387호로 지정될 수 있었다. 갑오농민전쟁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이토록 뒤늦게 이루어진 것이야말로 지난 100년 동안의 세월이 농민군이 빌뻔고 누울 수 없었던 세월이었음을 반증한다. 우금치 고갯마루에는 1973년에 세운 동학혁명군위령탑이 서 있다. 탑의 명칭이 '동학'이냐 '농민'이냐, '운동'이냐 '전쟁'이냐 '혁명'이냐가 불느냐에 따라 그 탑을 세운 건립 주체가 이 1894년의 농민 봉기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곧 어떤 역사에 기대고 있느냐를 짐작할 수 있다. 이 탑은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유신 정치로 폭정을 하던 당시 대통령 박정희씨가 세우고 자신의 쿠데타를 농민군의 혁명 전통을 잇는 것으로 보아도록 하려 했으니 참으로 역사의 아이러니라 하겠다. 그래서인지 탑 뒤편의 새김글에 새겨진 그 이름 석자를 뒷날 누군가가 돌로 뭉개놓아 분풀이를 한 흔적도 있다.

공주군 (公州郡)

충청남도 중앙부에 있는 군. 차령산맥 남동쪽에 위치하여 국립공원 계룡산을 비롯한 수려한 경관과 선사 및 백제 시대 유적, 그리고 동학사·갑사 등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한강 이남에서 최초로 구석기 유물이 발견된 장기면 석장리를 비롯하여, 군내 여러 곳에서 유물·유적이 발견되어 사람의 거주가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공주 지역이 역사적으로 주목받게 된 것은 475년 백제가 웅진으로 도읍을 옮기면서부터이다. 신라 말기에 후백제의 영토에 속했다가 고려조에 들어 940년 현재의 이름인 공주로 바뀌었다. 조선 시대에도 공주목이 유지되어 충주·청주·홍주와 함께 충청도 4대 고을의 하나로, 차령산맥 이남의 중심지였으나 인조·현종·영조·정조대에는 현으로 강등되기도 하였다. 군의 북서부에는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차령산맥이 이어져 국사봉(402m)·무성산(813m)·금계산(575m) 등 많은 산이

솟아 있으며, 동남부는 계룡산(828m)이 자리잡고 있다. 그밖에 군내 곳곳에 200~300m 정도의 구릉성 산지가 널리 분포하며, 중앙부 하천 유역에는 평야가 펼쳐져 있어 전체적으로 분지 형태를 이룬다. 공주군은 옛 백제의 고도를 포함하고 있을 뿐아니

있을 뿐 아니라 군내에 많은 유물·유적이 분포하여 훌륭한 관광자원의 보고를 이루고 있다.

무령왕릉 (武寧王陵)

백제 무령왕(501~523, 재위)과 왕비가 합장된 능으로 1971년에 우연히 발견되어 발굴조사 되었다. 동성왕(479~501, 재위)의 뒤를 이어 즉위한 무령왕은 안으로 동성왕 말년에 일어났던 귀족들의 반란을 진압하여 왕권을 재확립하는 한편, 밖으로는 고구려의 침입을 막아내고, 신라 및 중국 남조의 양나라와 외교를 강화하는 등 웅진 천도 초기의 혼란을 극복하여 백제가 중흥을 이룰 수 있는 기틀을 다졌다. 이 능은 6호분과 같이 벽돌로 축조한 터널형 전축분으로 직사각형 현실의 남쪽 가운데에 현실로 들어가는 짚은 연도가 달렸다. 연꽃무늬, 인동무늬, 마름모꼴 선무늬 등 여러 가지 무늬를 아름답게 새긴 벽돌을 각기 그 TM일 위치에 알맞게 갖가지로 만들어 쌓은 현실의 벽 5곳에는 등잔을 놓았던 등감이 있고, 등감 아래에는 창을 배치하였다. 발굴에는 당시 왕과 왕비의 시신을 안치했던 목관이 현실 바닥에 동서로 놓여 있었고, 현실 내부와 연도에서는 금제관식, 팔찌를 비롯한 각종 금은제 장신구와 무기류, 도자기 등 108종 2906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 능의 주인공이 무령왕과 그 왕비였음을 명확히 알려 주었던 2장의 석판으로 된 묘지는 연도 입구 가까이에 나란히 놓여 있었다. 백제왕릉으로서는 최초로 주인공을 확실히 알 수 있고, 또 많은 유물을 간직한 채 고스란히 발견된 이 무령왕릉의 발굴 조사는 백제 문화 연구에 전환점을 마련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이곳에서 발견된 유물은 국립공주박물관에 보관 전시되어 있다.

공산성

공주 시내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왼쪽으로 공주 시가를 외호하고 있는 둔덕을 만나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공산성이다. 백제의 공주 도읍 때에 궁성이 있던 곳이라고 하니 백제 역사에서의

웅진성은 바로 그곳인 셈이다. 사적 제12호인 공산성은 강을 북쪽에 두고 있다. 475년에 고구려 장수왕에게 한강 유역의 한산성을 함락당하고 개로왕마저 잃고 쫓겨 내려온 곳이 공주였으니 가장 무서운 적이 북쪽에 있었기 때문이다. 성왕대인 538년에 다시 천도한 부여도 같은 이유로 백마강을 북에 둔 사비성에 자리한 것이다. 공산성은 조선 시대 때의 이름이고 백제 때에는 웅진성이라고 했는데 당시에는 훑성이었으리라고 짐작된다. 지금 있는 석축은 조선 중기에 새로 쌓은 것이다.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 폭이 좁은 산성의 전체 길이는 2.2km쯤이다. 서문 터를 지나 걸어서 한 10분 올라가면 공산성의 가운데에 이른다. 가는 길 오른쪽에 인조가 1624년의 이팔의 난 때 난을 피해 머물다가 평정 소식을 듣고 나무 두 그루에 벼슬을 내렸던 자리라는 쌍수정이 있다. 조금 더 가서 난 네갈래 길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진남루가 나오는데 이것이 공산성의 남문이다. 진남루 건물은 1971년에 새로 지은 것으로, 진남루 앞의 넓은 터는 백제 때의 궁궐터로 짐작한다. 네 갈래 길에서 곧장 난 길로 좀 더 가다 보면 광복루 못미처 임류각터가 있다. 『삼국사기』 동성왕 22년(500)조에 “왕궁의 동쪽의 높이가 5척이나 되는 임류각이란 누각을 세우고 또 연못을 파 기이한 새를 길렀다”고 한 그 자리로 짐작된다. 거기서 10여분 능선을 따라 가면 공산성의 남서쪽 끝으로 동문터와 광복루에 다다르게 된다. 여기서 성벽을 따라 쭉 북쪽으로 거슬러 오르면 연지가 나오는데 거기가 암문터이며 근처에는 세조 때 세워진 절인 영은사가 있다. 공산성의 마지막 코스는 공복루이다. 공복루는 1603년에 옛 망복루터에 세운 2층 다락집이다. 그 앞쪽에 최근에 복원한 연지에는 잉어 몇 마리가 노닐고 있고, 서늘한 강바람을 맞으며 걸터앉아 노을지는 금강을 가장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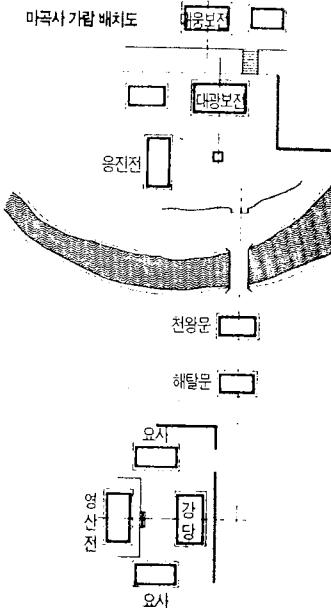
석장리 유적

충청남도 공주군 장기면 석장리에 있는 구석기 시대부터 중석기 시대에 걸친 한데 유적. 유적 앞에는 동서 방향으로 금강이 흐르고 있으며, 유적의 북쪽으로 높지 않은 산 언덕지대가 자리잡고 있다. 남한에서 처음으로 구석기 시대 문화층의 존재가 확

인된 곳으로 1964~74년 10차례에 걸쳐 연세대학교 박물관이 발굴했고, 1990년 봄에는 한국선사문화연구소에 의하여 발굴되었다. 석장리 유적의 퇴적 두께는 약 8m이다. 구석기 시대의 지층은 크게 3개의 뚝음으로 나눌 수 있다. 전기 구석기 층에는 찍개·주먹대패·긁개 등의 석기가 나왔다. 중기 구석기로 넘어오면서 석기를 만드는 시기가 그 전(前) 시기보다 발전된 것으로 나타나며, 석기의 종류도 늘어난다. 찍개·주먹대패·자르개·긁개·찌르개·주먹도끼 등이 중기 구석기문화층에서 나왔다. 후기 구석기문화층에서는 석기제작터·집터·살림터가 드러났다. 집터에서는 사람 머리털이 여러 점 발굴되었고, 집 터의 문 앞에 있는 불 땐 자리에서는 오리나무 속의 나무숯이 나왔다. 집터의 크기로 보아 열 명 안팎의 사람들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돌을 조금 다듬어 거북·새·개와 같은 짐승 상을 나타낸 돌조각품을 비롯하여 고래상을 새긴 흔적이 집터 바닥에서 드러났다. 이 문화층의 특징은 석기의 크기가 작아지고, 그 종류가 많아지며, 수정이나 흑요석과 같이 새로운 재질의 암석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마곡사(麻谷寺)

태화산 남쪽에 위치한 마곡사는 백제 의자왕 2년(642)자장을 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확실한 내력은 알 수 없다. 그후 고려 명종 때 보조 국사가 중건하고, 범)일선사·도선국사가 중수하였다. 임진왜란의 화로 인하여 폐사가 된 것을 조선 효종 원년(1650) 각순대사가 중창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사명은 신라승보찰화상이 설법 전도할 때 모인 신도가 삼발의 삼대 같다고 하여 미곡사라 지은 것이라 한다. 영산전의 현판은 세조가 하사한 글씨이고 대웅보전의 현판은 신라의 명필 김생의 글씨라 전한다. 사찰 경내에는 사역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개울을 경계로 양분되는데, 남쪽에는 천왕문, 해탈문, 영산전, 강당, 명부전, 국사당이 북쪽에는 대웅보전, 대광보전, 오층석탑, 응진전, 심검당 등이 있다. 옛부터 춘마곡이라 하여 주위의 봄의 경관이 빼어나며 계곡이 깊어서 택리지·정감록 등의 자리거나 비기에서도 병란을 피할 수 있는 십승지지의 하나로 이 일대를 꼽고 있다.



마곡사의 5층석탑은 고려말기 작품으로 사각형 기단부 위에 당시 유행하던 元의 라마교양식으로 지은 탑으로서 세계에서 3개밖에 없는 특수한 탑이라고 전하며, 영산전은 그 안에 千佛像(보물 제800호)이 있기 때문에 일명 '천불전'이라고 하는데, 조선 효종 2년(1651) 覺淳大師가 중수한 것으로서 마곡사에서 제일 오래된 건축물이다.

백제의 문화수용과 전파

사학과 3학년 차효라

1. 머리말	3. 文化의 日本 전파와 그 의의
2. 百濟文化의 형성	4. 맷음말
1) 高句麗文化의 수용	5. 참고문현
2) 中國文化의 토착화	

1. 머리말

일반적으로 문화는 그 나라가 가지는 사회적 성격과 그 민족의 역사적 경험을 집약시킨 결산을 말한다.¹⁾ 이런 점에서 삼국의 문화는 삼국성립 이전부터 꾸준히 발전되어 온 역사적인 산물로, 그들 나름의 고유한 독자성을 지니면서도 삼국 상호간의 인접성, 비슷한 발전과정, 그리고 외래(중국)문화의 수용이라는 측면으로 인하여 공통적인 면도 가지고 있다. 이중 백제문화는 백제사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백제인의 생활양식으로 다양한 외래 문화를 수용함으로서 독특한 문화를 이룩하였으며 가장 활발하게 일본에 전파되었다. 백제만이 가지는 문화적 우수성²⁾과 독특한 문화적 성격³⁾은 백제가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이 고

1) 文化라는 용어는 범위를 정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기 때문에 좀은 의미에서 정의되는 몇 개의 개념들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의 일상사가 문화에 포함된다. 문화는 언어, 예술, 관습, 의복, 종교, 생활상 뿐 아니라 경제 영역과 정치영역까지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이다. 이 글에서는 문화의 개념을 예술적·학술적·기술적 측면에 한정하고자 한다.

2) 백제문화의 선진성 내지 우월성에 대하여 成周鐸은 지리적 조건, 활발한 대외관계, 그리고 그 나라의 국민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成周鐸, 1971, 「대외관계에서 본 백제문화의 발달요인」『백제 연구』2, 207쪽)

3) 백제문화의 독특한 성격에 대하여 김철준은 첫째, 고구려의 지파로서 부여족이 가지는 전통적 성격의 계승면과 그 전통문화의 변화과정, 둘째, 소도와 같은 백제국가성립 이전의 삼한토착사회의 발전이 백제국가 발전에 작용한 제약면, 셋째, 낙랑·대방군 시대에서 그 뒤까지 계속된 漢 문화의 수입과 5호 16국시대 아래의 국제관계의 변동이 백제사회의 성장방향에 끼친 영향과 일본지역에

구려나 신라에 비해 복잡하였다는 역사적 조건과 서해를 끼고 적극적으로 중국 문물을 수용하였다는 지리적 요건, 그리고 농업 경제가 중심이 되었던 백제의 경제 구조 등 제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외부 요인을 주체적으로 수용함으로서 백제 고유의 문화를 이룩하려 했던 백제인들의 문화의식에 더 큰 의의가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문화의 우수성과 고유성을 지닌 백제문화의 형성과정과 전파에 대하여 살펴보자 한다. 특히 형성과정에서는 중국 남조에서 받아들인 선진 문화를 토착 문화와 접목시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낸 점을 중심으로, 전파과정에서는 백제의 고유한 문화전파와 그 의의에 초점을 맞추어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2. 百濟文化의 형성

1) 高句麗 文化的 수용

백제의 건국은 고구려로부터 남하한 부여족 계통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문헌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백제의 건국 설화는 크게 네가지로 나뉘어진다. 첫째, 溫祚를 시조로 하여 夫餘·朱夢·溫祚의 계보를 백제 왕실의 근간으로 하고 있는 온조 시조설과 둘째, 온조의 형 沸流를 시조로 하여 온조와 비류는 북부여왕의 손자였고 주몽은 그들의 계부였기 때문에 백제 왕실의 줄기는 解扶婁·優台(비류의 친부)-沸流로 이어진다는 비류시조설,⁴⁾ 셋째, 『周書』에 실린 글을 바탕으로 仇台를 시조로 하여 부여-구태로 곧바로 계보가 이어지는 설, 넷째, 일본족 사서에 전하는 都慕說⁵⁾ 등이 있다. 이중 첫번째 설화는 백제의 지배층이 고구려에서 출신이라는 것이고, 두번째·세번째 설화는 부여와 백제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형태로 전승되고 있는 백제 건국 설화는 지배층이 단일한 집단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즉, 백제 왕실은 통일된 집단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여러 집단이 연맹하고 분열하면서 차차 고구려 계통의 온조계 집단으로 세력이 이동하면서 형성되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시조설화에서부터 고구려의 문화적인 요소가 가미된 백제문화는 고분

대한 백제세력의 진출, 그리고 고구려와 신라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백제의 지정학적 조건들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김철준, 1975, 「고대사회와 그 문화」『한국고대사회연구』, 자식산업사, 91쪽)

4) 『三國史記』 백제본기 권1 시조 온조왕조

5) 백제 遺祖 都慕王은 河伯의 딸이 日精에 감응하여 태어났다. 都慕가 누구인지는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부여의 시조로서의 동명과 고구려 시조로서의 朱夢이 동일시 되면서 都慕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續日本記』 권40 延曆 8년 명년 정월; 『한국사』 6, 1993, 국사편찬위원회, 19쪽에서 재인용)

에서 더욱 뚜렷하게 그 형상이 발견된다. 대표적인 것으로 서울시 석촌동 일대의 基壇式 積石墓를 들 수 있겠는데, 외형상으로 압록강 유역의 고구려 적석묘⁶⁾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는 바로 초기 백제의 고분양식에 고구려의 문화적인 요소가 포함된 것으로 백제 지배세력이 고구려 계통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백제의 지배 집단이 고구려 계통(혹은 넓은 의미에서의 부여계통)인데 비해 피지배 총은 청동기 문명을 가진 韓人으로 여겨지는 점에서 초기 백제의 지배층 문화와 피지배층 문화는 상당히 달랐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한반도 중서부 지방에 널리 분포하는 木棺墓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고구려계 유이민들의 묘제인 적석묘와 뚜렷이 구분된다. 그러나 목관묘는 서울지역에서만은 葦石封土墳⁷⁾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발전⁸⁾하게 되는데, 이는 고구려계 유이민이 만든 적석묘의 영향이라고 보여진다.⁹⁾

A.D. 3~5 세기 이후의 백제 문화는 지배층의 고구려 문화와 피지배층의 토착 문화가 나름대로 융합되어 형성되었다. 석촌동에 분포하는 적석묘들은 돌만을 쌓아 만든 할석식 적석묘와 외부는 돌로 쌓았지만 내부를 점토로 채운 점토 충전식으로 나뉘어지는데, 후자가 고구려 지역에서 전혀 발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할석식 적석묘가 백제에서 발전한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좁석봉토분 역시 토착 문화가 외부 문화를 받아들여면서 문화적인 발전을 이룬 결과일 것이다.

2) 中國 文化的 토착화

백제 초기의 문화는 고구려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나 웅진 시대부터는 고구려와의 정치적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졌다. 특히 남조 문화의 영향은 백제의 문화 예술의 발달에 큰 기여를 하였다. 문헌상으로 확인된 백제와 중국간의 공식적인 관계는 근초 고왕 때부터로¹⁰⁾ 이후 백제와 중국은 정치적 목적으로 끊임없는 동맹, 조공, 전쟁, 회맹등의 관계를 지속하였다. 백제는 진 이후 송대에 이르러서도 기존의 對 중국관계를 유지하였다. 개로왕 시기에 와서는 북조인 북위와도 교류를 하면서 고구려의 남진을 막으려고 하였으나,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후 북위와의 교류는 단절되었다. 劉宋시대에 백제가 남조에 사신을 보낸 횟수는 평균 약 5년에 한 차례 이상, 南齊시대에는 약 3년에 한 차례 이상 정도가 된다. 梁代 사신의 파견횟수는 약 10년에 한 차례 정도였으며, 동진·송·齊 時代보다도 오히려 줄어들었다. 비록 공식적인 외교관계는 줄어들었지만 민간통로가 활발히 열렸기 때

6) 石塊 또는 磚石을 사용하여 지면 위에 사각형으로 묘의 기단을 쌓고 그 上部에 직사각형 櫛室을 만들고 그 위에 석괴 또는 역석을 쌓아 봉하였다. (최무장, 1995, 『고구려 고고학』 1, 민음사, 307쪽)

7) 봉토의 표면에 葦石을 덮는 형태를 가지는 목관묘로 方形土壙墓라고 불리기도 하고 封土土壙墓라고 불리기도 한다.

8) 이외의 지역에서는 대형 옹관묘나 목관묘로 변형되었다.

9) 국사편찬위원회, 1993, 『한국사』 6, 21쪽

10) 春正月 遣使入晉朝貢(『三國史記』 권24, 百濟本紀, 近肖古王 27년조)

문에 더욱 활발하게 중국문화가 수입되게 되었다.¹¹⁾

이처럼 백제가 중국문화를 활발하게 수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서해를 끼고 있었던 해로상의 잇점에 의해서였다. 남조와의 교류는 주로 해로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근초고왕 이후 시종 북쪽의 고구려와 대립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육로의 길이 막히어 자연 해상 항로의 개척에 힘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여진다.¹²⁾ 또한 백제가 중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은 삼국의 경쟁 때문이기도 하였다. 백제와 남조와의 관계는 단순한 조공 관계가 아닌 삼국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었다. 끊임없이 중국으로부터 인정받고자 사신을 파견하고, 정치적인 친밀성을 유지하는 것 외에도,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자신들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중국과의 친화성을 보여주고자 하였던 것이다.

중국문화의 수입은 불교를 포함한 다방면에서 진행되었다. 불교가 처음으로 백제에 전래된 것은 枕流王 원년(384) 동진으로부터였다. 당시 수입된 불교는 이미 수백년전에 인도에서 중국으로 수용되어서 크게 漢化되었던 종교로, 인도 불교라기보다는 오히려 중국불교로의 변형된 형태였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¹³⁾

불교 미술의 대표적인 예는 불상이다. 백제의 불상은 큰 틀에서 보았을 때 고구려나 신라, 인도 중국의 유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백제의 如來像이 걸친 옷은 남조의 송, 제, 양나라 및 북조 魏나라의 여래상이 걸친 옷과 같다¹⁴⁾. 그러나 捧寶珠菩薩像은 고구려와 신라 지역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형태의 보살상이면서 백제 조각의 고유함을 보여주는 불상이다. 머리에 寶冠을 쓰고 관대 양쪽으로 관식이 늘어져 어깨까지 내려오며, 천의는 허리 아래에서 X자 형으로 교차하여 몸 양쪽으로는 몇 갈래의 물고기 지느러미 모양으로 뻗치게 표현하고 있다. 또한 목걸이는 가운데 아래가 뾰족한 심엽형을 공통적으로 취하고 있다¹⁵⁾. 이러한 형태의 상은 백제에서 6세기 후반에 집중 조성되었는데, 남조의 영향이라고 보여진다.¹⁶⁾ 또한 불상의 대좌에 새겨지는 백제 고유의 연꽃 무늬 장식¹⁷⁾ 등은 불상 제작

11)周一良, 1993, 「百濟와 中國 南朝와의 關係에 대한 몇가지 考察」 『백제사의 비교연구』,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29쪽

12) 權允遠, 1993, 「百濟의 南遷과 中國文化의 영향」 『백제사의 비교연구』, 충남대학 교백제연구소, 131쪽

13) 서산의 마애석불중 여래입상의複製가 일본 飛鳥 시대의 불상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한다. 또 한 이와 같은 여래상의 복제 기원이 인도나 파키스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있으며 더 구체적으로는 운강석굴 중기부터 용문석굴 초기에 조성된 석불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고 한다. 權允遠, 1990, 「百濟의 南遷과 中國文化의 영향」 『百濟研究』 21,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4) 백제 여래상이 입고 있는 의상 가운데 웃옷과 치마 위에 걸옷을 걸쳐 입는 식은 南宋으로부터의 영향이고, 걸옷을 왼팔·왼쪽 어깨에서 등뒤로 오른쪽 어깨·오른팔과 배를 둘러 다시 끝자락을 왼팔과 왼쪽 어깨에 걸치는 식은 南齊로부터의 영향이며, 오른쪽에 偏衫을 걸치는 식은 북위에서 양을 경유하여 백제에 전래되었다.(朴鐘術, 1988, 『百濟, 百濟人, 百濟文化』, 知文社)

15) 俞元載, 1996, 『百濟의 歷史와 文化』, 학연문화사, 366쪽

기술의 토착화를 알려준다.

백제시대의 지상 건축물은 현재 거의 인멸된 상태¹⁸⁾이기 때문에 고분이 백제의 건축 양식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고분의 부장 유물 역시 백제 문화 이해의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고분 중에서 남조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武寧王陵이다. 벽돌을 재료로 하는 무덤¹⁹⁾은 한반도 고유의 문화가 아닌, 남조에서 수입된 문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송산리 6호분이 무령왕릉과 거의 동일한 외관을 지닌 채 벽면의 구축에 사용하는 벽돌을 五銖錢이라는 중국 엽전을 문양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비해 무령왕릉의 벽돌 무늬는 연꽃이다. 또한 터널형 천장이나 연도의 끝에 있는 아치문은 남조에서 찾아볼 수 없는 형태로 백제의 독자성을 보여주고 있다.

삼국 중에서도 백제는 유난히 儒學을 강조하여 지배 이념으로 구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한문학이 발전하여 그 수준이 상당하였다. B.C 2세기 말경에 辰國이 한에 대해 직접 통교를 희망한 국서를 보낸 사실로 미루어²⁰⁾ 백제 지역에서는 고구려나 신라보다 빨리 한자를 받아들였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신라어와 백제어가 유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라의 이두와 같은 표기법을 찾아보기 힘든 것도 백제의 한문학이 신라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일 것이다.²¹⁾ 또, 백제는 중국으로부터 經典과 史書를 받아들였다. 五經, 子史, 毛詩 등 백제가 수용한 경전 중에서도 毛詩는 특히 남조에서 중시된 것으로, 南方的 漢學으로 이해된다. 또한 백제는 梁 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남조 유학에서 강조된 禮學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며 이를 받아들였다.²²⁾ 백제는 고조선 아래의 禮義思想에다 漢代 아래의 五行思想을 포용하여 經學思想으로 전개하며 학문적 수준을 높히게 되었다.²³⁾ 특히 백제의 유교사상은 단순히 교육제도나 경전을 통한 학문적 경지를 높혀준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²⁴⁾에서 조직되어 국가 의식으로 자리잡았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16) 특히 일본의 비조 및 나라시대 보살상에서도 이들 봉보주보살상이 다수 발견되고 있어 일본 초기 불상과 우리나라 삼국시대 불상과의 양식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유원재, 위의 책, 366쪽)

17) 연꽃 무늬는 백제의 고유한 무늬로, 불상의 대좌에 어김없이 새겨져 있고, 무령왕릉등의 벽돌이나 기와, 수막새에도 자주 보여진다.

18) 현재 남아있는 백제 시대의 지상 건축물은 석탑뿐이며 간헐적으로 사찰의 遺地를 통해 간접적으로 모습을 추정할 수는 있다.

19) 벽돌을 재료로 하는 무덤을 塼築墳이라고도 하는데, 무덤 내부, 즉 관을 안치하는 墓室의 벽과 천장이 벽돌로 된 무덤을 말한다.

20) 李基東, 1996, 『백제사 연구』, 一潮閣, 36쪽

21) 그러나 백제의 금석문중 일부의 것은 북조의 자형을 닮은 것도 있다.(『무령왕릉 사택지 적비』, 李基東, 위의 책, 61쪽) 이것은 한문학이 남조로부터 직수입된 것이 아니라 북조를 경유했을 수도 있다는 가설을 펼 여지를 남긴다.

22) 백제의 관재가 비교적 빨리 정비되는 것도 예학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유원재, 위의 책, 343쪽)

23) 柳南植, 1982, 「百濟思想의 研究」 『百濟研究』 특집호, 96쪽

道教는 본래 중국의 민간 신앙에서 발전된 종교로, 신비주의적인 민간신앙이 남북조시대인 5세기경에 불교의 영향을 받아 종교로 자리 매김한 것이었다. 문현에 나타나는 삼국의 도교 수용은 7세기 고구려가 도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것 정도일 뿐으로 백제에 정식으로 도교가 전해진 기록은 없다. 그러나 신선사상 등에 도교의 영향은 일찍부터 나타났다. 신선사상 뿐 아니라 方術등의 도교적인 주술, 무령왕릉 지석과 함께 출토된 두개의 구리거울에 적혀있는 문구²⁵⁾나 山景 무늬 벽돌 등은 백제에 퍼진 도교 신앙의 실태를 엿볼 수 있는 자료들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백제는 중국, 특히 남조의 문화를 여러 분야에서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를 원형으로서만 간직하고 보존한 것이 아니라 백제역사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토착적인 요소들과 결합시켜 백제만의 고유한 문화를 이룩하였다. 즉, 이는 바로 백제인들이 외래문화를 단순히 모방하고 찬양하는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이를 수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이점에 백제문화의 특성이 있는 것이다.

3. 文化的 日本 전파와 그 의의

한반도와 일본열도와의 교류는 신석기시대부터 이루어져 왔다²⁶⁾고 하나 공식적인 관계를 시작한 것은 4세기 중반이었다. 백제와 일본과의 관계는 『三國史記』나 『三國遺事』보다는 『日本書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일본서기』에 의하면 神功皇后 52년(A.D. 252년)²⁷⁾에 백제에서 七支刀一口와 七子鏡一面을 보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적어도 근초고왕 때에는 일본의 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²⁸⁾. 초기에는 양국이 지역적으로 접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큰 교류가 있지는 않았으나, 고구려의 남진이 시작되자 백제로서는 고구려를 견제하고 자신과 연맹할 외부 세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왜와 적극적으로 교류하였을 것이다. 특히 5세기 말, 고구려가 남하하면서 백제를 압박하자 많은 백제인들이 일본 열도로 진출을 시도해 정착하였다²⁹⁾. 백제 멸망 이후 백제유민들이 대거 일본으로 이동하면서 또 한차례 문화의 전달이 일어났다. 백제 부흥 운동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백제와 왜와의 공식적인 관계는 끊어졌으나 이후에도 백제인들

24) 申瀋植, 1984, 「韓國古代史에 나타난 忠孝思想」 『韓國古代史의 新研究』, 425쪽

25) 『上有仙人不知老』 위에仙人이 있어서 늙는줄 모른다.(李基東, 위의 책, 46쪽)

26) 고대 한반도 제민족의 영향이 일본에 많이 미쳤다는 것은 현재 열도 각지에 남아있는 한국 계지명을 보면 알 수 있다.

27) 『日本書紀』의 상대 기사 연대는 간지 2운인 120년씩 내려서 이해하여야 하는 것이 통설이므로 위의 기사에 대한 실제의 연대는 A.D. 372년에 해당한다.(유원재, 앞의 글, 290쪽)

28) 서기 372년은 근초고왕이 공식적인 對中관계를 시작한 해이므로 더욱 신빙성이 있다.

29) 403년, 백제에서 弓月君이 주민을 거느리고 일본 열도로 대거 이동하였다. 그 2년 후에는 궁월군이 가야 지역에 체류하고 있던 예하의 주민들을 이끌고 기나이(畿內)지방에 정착한 것이 그 현저한 사례이다.(유원재, 위의 책, 405쪽)

의 일본으로의 진출은 계속되었다³⁰⁾. 양국의 관계는 외교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졌으나, 백제가 일본에 영향을 끼친 것은 문화의 측면에서였다. 군사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진 관계가 대체로 우호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문화전달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할 수 있다.

백제는 6세기 전반 사비천도 이후 불교를 전파하고³¹⁾ 사원 건축에 필요한 각종 기술자들을 비롯하여 五經博士 등의 전문 지식인을 왜에 보내는 등 학술과 지식을 왜국에 전파하였다. 백제로부터 파견된 승려들은 불교신앙의 스승일 뿐 아니라 제반 생활과 문화발전을 촉진시키는 역할도 하였다³²⁾. 불교의 전파가 미술과 생활, 건축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일본의 불상중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은 일본 국보 제 1호인 彌勒菩薩半跏思惟像³³⁾이다. 이것은 한국의 국보 제83호로 백제시기에 제작된 金銅彌勒菩薩像의 복제로 여겨질 정도로 유사한데다가 재료인 소나무가 일본에서 자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져 화제가 된 작품이다. 뿐만 아니라 7세기 백제에서 불상의 천의의 후면을 U자 형으로 처리한 방식이 일본에서도 그 예가 보여지고 있어 백제의 불상 제작 기술이 일본에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는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회화에 있어서도 백제의 영향은 지대했는데, 수명의 백제 출신 화가들이 일본에서 활동하였다. “百濟”라는 성을 가진 화가들이 10세기 이후까지 명성을 날린 것은 백제계 화풍이 일본의 회화 발전에 영향을 주었음을 뜻한다. 그리고 하쿠호 시대인 7세기 후반에 축조된 가미요도지터의 금당 북편에서 출토된 벽화는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익산의 彌勒寺地에서 출토된 벽화와 내용상 유사성을 보이면서 백제에서 건너온 기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공예기술의 전파는 근초고왕이 왜왕에게 선사한 七支刀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충청남도 부여군 군수리사지의 목탑자리 중앙의 심초석 밑에서 칠지도의 일부로 추정되는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동일본의 토치키현(木縣) 오야마시(小山市)에 소재한 5세기대의 고분에서도 칠지도로 여겨지는 도검이 출토되었다. 사이다마현(埼玉縣) 이나리야마고분(稻荷山古墳)과 구마모토현(能本縣) 후나야마(船山古墳)에서 출토된 금은으로 된 상감문자와 나라의 호우린지(法輪寺)와 오사카의 시텐노지에 전해내려 온 칠성검도 백제에서 제작³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法隆寺 금당에 있는 다마무시노즈시(玉蟲廚子)³⁵⁾라는 불상 안치용 상자의 지붕 양식 또한 백제 산경문전에 새겨진 것과 비슷하고, 금동투조 무늬는 부여 능산리 고분에서 출토된 금동투조문 장식과 비슷하다. 그래서 아마무시노즈시 역시 백제인에 의해 제작되었거나

30) 국사편찬위원회, 1993, 『한국사』 6, 160쪽

31) 백제에서 왜로 전래된 불교를 중심으로 한 이 시대의 문화를 아스카 문화라고 하는데, 이것은 당시의 정권이었던 야마토 정권의 소재지가 아스카(飛鳥)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32) 유원재, 위의 글, 414쪽

33) A.D 603년에 하타노 미야쓰코 가와가즈(泰造河勝)가 쇼토쿠 태자로부터 백제에서 온 불상을 받아가지고 廣隆寺를 세워 봉안한 것이다.

34) 유원재, 위의 책, 424쪽

35) 玉蟲의 날개를 가지고 장식을 하여 붙은 이름이다.

백제의 영향을 받은 작품으로 해석된다. 무령왕릉과 나주 新村里 9호분에서 출토되는 신발들은 일본의 후나야마 고분에서 출토된 신발과 동일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 이로써 공예기술 뿐 아니라 복식에서도 일본과 백제가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건축에서도 백제의 영향은 여실히 나타나는데, 궁전과 공공 건물, 사원들의 건축을 한국계 이주민이 담당하였다. 일본 최초의 본격적인 사원인 아스카자는 백제인들에 의해 창건된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창건 당시 아스카자의 가름 배치는 1탑 3금당 양식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평양의 청암리사지와 동일한 양식으로서, 고구려 양식이 백제를 통해 왜로 전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반도에서는 부여에서만 확인되는 와적 기단의 축조법이 일본의 아스카자와 시텐노지를 비롯하여 그 후대의 사원 건축에서도 많이 쓰여졌다.³⁶⁾

백제의 발달된 농업 기술 역시 일본에 전파되었는데 이것은 『일본서기』에 잘 나타나 있다. 특히 韓人池 혹은 百濟池라는 이름의 저수지가 일본에 남겨진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왜의 저수지의 축조나 농업기술의 전파, 농기구 보급 등은 백제가 담당하였다. 특히 수리시설 등은 상당한 수학적 지식과 건축술을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기술이 해외에 까지 수출되었다는 것은 백제 건축술의 선진성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백제는 토착문화와 중국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당시 이웃하였던 일본에 그 문화를 전파함으로써 일본의 문화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결국 백제의 일본으로의 문화전파는 비록 초기에 대외군사적인 측면에서 시작된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지닐수 있겠지만, 이후 백제 멸망시까지 전개되는 문화교류는 일본의 중세사회·문화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리라 생각한다.

4. 맷음말

이상과 같이 백제문화의 형성과정과 수용, 일본으로의 전파를 고찰해보았다. 이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발제자 나름의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맷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초기 백제의 문화는 고구려 문화와 마한의 토착 청동기 문화를 공유하였다. 그러나 이 두 문화가 이질적으로 공존한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백제 고유의 문화로 변화 발전해 간 것으로 보인다. 이후 4세기 중국과의 교류가 시작되고 발전된 남조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백제 고유의 문화에 중국대륙의 문화가 유입되는데, 백제는 이를 토착문화와 주체적으로 융합하여 백제만의 특특한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한편 백제는 발전된 자신의 문화를 보존만 하지 않고 일본에 전파하여 고대 일본 문화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물론 백제 국가 수립 전에도 한반도 세력과 일본과의 교류는 있어왔고, 당시의 문화 전파도 일본의 문화 발전에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백

36) 유원재, 위의 책, 421쪽

제가 국가로서 발전한 이후에는, 외부 문화를 수입하여 한층 세련되고 발전한 문화를 보급 하였기 때문에 그 전의 문화 교류와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성왕대에 유민들은 본격적으로 문화를 보급하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는 유민들이 대거 일본으로 건너가 정착하면서 다시 한번 백제 문화를 일본에 전파하게 된다.

이 글에 참고된 대부분의 논문의 요지는 모두 백제가 중국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토착화 시킨 점, 일본으로의 일방적인 전파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간의 문화교류를 이해하는 데는 커다란 벽에 부딪히게 된다. 이렇게 밖에 평가하지 못한 이유가 일본에 대해서 가지는 과거와 현재의 열등감에서 비롯된 민족주의적 잔재와 연구성과의 부족인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서로 다른 문화가 교류를 가진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그 결과 양쪽 모두의 영향이 있었음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중국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의 영향이 있었음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중국문화와 백제문화가 만나서 새로운 형태로 발전된 것에는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일본문화와 백제문화의 교류에는 일방적인 “전파”로 칭하면서 일본에는 문화란 것이 존재하지 않았고, 일본문화의 원형을 백제가 이룩한 것처럼 평가하고 있다. 결국 한국학자들이 쓴 논문에서는 일본이 백제문화를 어떻게 수용하고 형상화하여 일본의 고유한 문화로 발전시켜 갔는지에 대한 서술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백제가 일본에 문화를 전파하였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또한 이것은 우리민족의 우월감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백제의 문화전파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먼저 백제의 문화를 수용한 일본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그 문화를 변화·발전시켜 나아갔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참고문헌

- 공주대박물관, 1992, 『백제의 조각과 미술』
- 국사편찬위원회, 1993, 『한국사』 6
- 김철준, 1975, 『한국고대사회연구』, 지식산업사
- 박종술, 1988, 『백제, 백제인, 백제문화』, 지문사
- 박현숙, 1999, 『백제이야기』, 대한교과서
- 송형섭, 1988, 『일본속의 백제문화』, 한겨레
- 유원재, 1996, 『백제의 역사와 문화』, 학연문화사
- 이기동, 1996, 『백제사연구』, 일조각
- 이도학, 1997, 『새로쓰는 백제사』, 푸른역사
- 최무장, 1995, 『고구려고고학』 1, 민음사
- 충청남도, 1994, 『백제의 종교와 사상』
- 김철준, 1984, 『백제사회와 그 문화』 『한국고대사회연구』, 서울대출판부
- 성주택, 1971, 『대외관계에서 본 백제문화의 발달요인』 『백제연구』 2

- 신형식, 1984, 「한국 고대사상에 나타난 충효사상」 『한국고대사의 신연구』
- 유남식, 1982, 「백제사상의 연구」 『백제연구』 특집호
- 이도학, 1996, 「백제문화의 일본전파」 『백제의 역사와 문화』, 학연문화사
- 안승주, 1996, 「제6장 제3절 백제의 미술문화」 『백제의 역사와 문화』, 학연문화사
- 주일량, 1993, 「백제의 중국남조와의 관계에 대한 몇가지 고찰」 『백제사의 비교연구』,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홍이섭, 1968, 「백제사의 성격과 그 문화적 특질」 『한국사상』 9, 한국사상연구회
- 권태원, 1993, 「백제의 남천과 중국문화의 영향」 『백제사의 비교연구』,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유원재, 1996, 「제5장 제1절 중국왕조와의 관계」 『백제의 역사와 문화』, 학연문화사

충남 서해연안의 읍성에 대한 고찰

사학과 4학년 홍정완

1. 머리말
2. 여말선초 연안읍성 축조의 배경과 과정
3. 조선초기 하삼도 연안 읍성의 특징 - 입지 조건과 성곽 시설을 중심으로
 - (1) 입지 조건
 - (2) 성곽시설
4. 조선초기 연안 읍성의 성내 구조와 기능 - 洪州, 保寧, 海美邑城을 중심으로
 - (1) 邑城內 주요 시설과 구조
 - (2) 洪州, 保寧, 海美邑城의例
5. 맺음말

1. 머리말

조선초기에 이르러 우리나라에는 築城이 성행하였는데, 당시의 축성은 북방으로는 明과 왕래 통로인 평안도 지방의 도회지 읍성류, 그리고 여진족 방어와 영토 경계 설정을 위한 행성, 진보성자류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고, 남방으로는 한양 도성 축조를 제외한다면 下三道의 沿岸邑城류와 山城류 축조가 그 주된 것이라 하겠다.

이렇게 조선초기에 성행했던 축성 사업 중에서 이 글에서는 고려말부터 조선초까지 광범위하게 추진된 하삼도, 특히 충남 서해연안 읍성축조의 배경, 과정, 특징, 성곽 시설 및 성내 구조 등을 중심으로 간략히 검토하려 한다. 이 글에서는 특히 기존의 산성 중심의 방어 체계에서 좀더 탈피하여 읍성 중심의 방어 체계로 전환된 배경과 그러한 읍성 축조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주된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 여말선초 연안읍성 축조의 배경과 과정

고려말기부터 조선초기에 걸쳐 광범위하게 시설되기 시작한 하삼도 연안읍성의 축조 배경 중 가장 현저했던 것은 바로 왜구의 노략질에 대한 대비책이라 할 수 있다. 고려 高宗10년(1223)에 왜구의 침략이 시작된 이래 고려후기 忠定王2년으로부터 恭讓王4년까지 약 40여년 동안 왜구의 노략질이 없는 해가 없었으며 왜구의 침략을 받지 않은 연안 지역이 거의 없을 정도였으며, 조선 초기에도 왜구의 침략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왜구의 노략질은 특히 충청(양광)도, 전라도, 경상도의 하삼도 연안 지역에 집중되었고, 특히 고려 恭愍王과 禱王代에는 해안 지방뿐 아니라 내륙 깊숙히까지 침투하여 피해가 극심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 조정은 그 대비책 강구에 부심하였는데, 먼저 都巡察使(都指揮使, 都巡撫使) 등을 파견하여 왜구를 토벌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직접적인 토벌책과 함께 왜구의 노략질이 심한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城堡 축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왜구 침략에 대비하기 위한 城堡 축조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있었는데, 주로 기존 沿海 郡縣에 존재하는 산성을 修築하자는 주장과 연해 군현의 평지에 읍성을 축조하자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城堡 축조의 문제에 대해서 고려말부터 조선초기의 太祖·太宗代까지는 산성의 유리함을 내세워 高險山城을 중심으로 한 城堡 구축이 그 대부분을 이루었다. 고려말 禱王代 이후로 연해 군현의 읍성 축조에도 관심을 가져 점차 하삼도를 중심으로 읍성 축조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城堡 구축의 주된 경향은 아니었다.

世宗代에 들어서 강구된 왜구 노략질에 대한 대비책은 기존의 것보다 적극적인 형태를 띠었다. 세종원년에 대마도를 정벌하고, 세종3년에는 중앙에서 관리(敬差官)를 파견하여 邑基를 審定토록 했으며, 同11년에는 병조판서 崔閏德을 충청도·전라·경상도의 도순무사로 삼아 3都의 城堡를 수축하는 방침을 모두 위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도순무사가 城基의 審定 및 監築을 하는 때를 분수령으로 방어에 본격적으로 대처하게 되었다. 이때 최윤덕이 보고한 「各官城子造築條件」속에는 가장 긴요한 연해 읍들은 산성 대신 읍성을 축조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읍성을 중심으로 하는 入堡策이 강조되었다.

세종대의 이러한 읍성 축조는 비교적 순탄히 시행되어 세종17년쯤에는 연해 읍성 축조가 거의 전역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동26년 7월에는 연해 읍성의 축조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다. 하지만 축조 과정에서 인력 동원의 비효율성과 흥년, 재해 등으로 인해 읍성 축조 과정에는 부역민들의 많은 고충이 따랐다. 세종대 전반기에는 연안 읍성의 축조 과정에서 부역자들의 회생이 많았는데³⁷⁾, 민력 동원 방법으로 주변 군현의 민력까지 동원하여 하나의 읍성을 축조하는 방식이나 흥년, 재해가 발생하는 해에도 축성을 강행하려 함으로써 부역민들의 고충이 컸다. 이러한 부역민들의 고충 완화와 축성의 효율화를 위하여 세종16년에 들어서는 각 고을의 城堡는 다른 고을의 군인이나 사역민이 사역치 않고 境內의 경작하는 바

37) 세종12년 축성 功役이 春秋로 이어져 축성군의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였다는 上疏로 인하여 봄에는 사역시키지 않는다는 것과, 매년 각 道에 1城씩만을 쌓게 하며 완성치 못하면 다음해에 쌓는다는 것 등으로 축성 방도가 변화하게 되었다.

의多少에 따라 城基를 나누어주어 해마다 쌓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세종대 읍성 축조 노력은 그 이후 文宗~端宗代에는 세종대에 광범위하게 축조된 읍성을 중심으로 그대로 유지해야 할 읍성과 修築·改築·退築해야 할 읍성, 그리고 추후에 반드시 축조해야 할 읍성 등을 분류하여 先代의 읍성 축조를 완성하려는 의지를 보이지만, 결국 일부 대신의 반대와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세종대 이후 일관되게 추진되었던 읍성 축조가 일시 정지되게 되었다.

요컨대 여말선초, 특히 세종대에 들어서 읍성축조가 활발해진 배경에는 왜구 침략에 대비한다는 점과 더불어 부근 주민에 대한 안전과 편의 도모, 그리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력의 확보를 위한 군사적인 기반 시설 확보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고려말~조선 태종대에는 산성 중심의 방비책의 이점을 논하기를, 평지읍성이 지키기 어려움을 들면서 고험산성이 방어하기 용이하다는 점을 들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고려말의 경우에는 왜구의 노략질이 내륙 까지 침투하고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 기존의 산성을 이용하자는 보다 수세적인 방비책을 구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조선초 太宗代까지는 都城 축조로 인하여 人的·物的 資源의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읍성 축조는 제 축면의 부담을 발생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종대 광범위한 연안 읍성 축조는 세종대의 국가 체제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안정적인 농업 생산력 확충을 모색하고 백성의 편의 도모와 왜구 침략에 대한 적극적 대처 방안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3. 조선초기 하삼도 연안 읍성의 특징

- 입지 조건과 성곽 시설을 중심으로

(1) 입지 조건

조선초기의 연안 읍성의 특징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그 입지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조선초기 읍성은 그 입지 조건에서 일부의 읍성을 제외하고는 중국의 읍성처럼 완전한 평지에 축조된 것도 아니며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기존의 산성과 같이 고험산지에 축조되지 않았다. 조선초기 연안 읍성은 그 입지 조건에서 방비의 용이성과 주민의 편의와 효과적인 행정 시설 설치 등의 요소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려 하였다.

세종대 광범위한 연안 읍성 축조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가장 신중하게 고려했던 것이 그 입지 조건 선정 문제였는데, 세종3년 敬差官을 파견하여 邑基를 審定토록하고, 11년에는 도순무사가 직접 巡行하여 城基를 審定토록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城基 審定 과정에서 가장 중시되었던 입지 조건들로서 ①넓고 평평한 곳, ②水泉이 풍부한 곳, ③險阻함에 의지한 곳, ④교통이 편리하고 경작지에 가깝고 비옥한 곳 등이 있었고, 그 외에 내부가 험하고 큰 곳, 주민들이 번성한 곳, 석재가 많아서 功力を 덜 수 있는 곳 등도 고려되었다. 이러한 입지 조건들 중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중시되었던 것은 城地가 넓고 평평하며, 水泉이 풍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읍성의 축조 목적이 '有事則固門防禦 無事則盡趨田野'하기 위한 것이므로, 백성들이 入堡하여 오랜기간 머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풍부한 水源과 백성들이 주거하고 官舍 및 倉庫를 설치할 만한 적당히 넓은 지형이 요구되었던 것이라 하겠다. 방어의 편의를 위하여 광활한 평지보다는 협준함에 의지할 수 있고, 海水나 川流가 휘둘러진 곳으로 자연적인 지역 조건이 방어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주위에는 토지가 비옥하고 충분히 경작할만한 곳들이 선호되었다. 高險山地에 설치되어 방어가 용이할지라도 水泉이 빈약하고 경작지와 너무 거리가 멀 경우 평지에 근접하여 新基를 審定하여 읍성을 옮겨 쌓도록 하였고, 평지에 쌓게 되어 방어의 용이성이 저해되는 읍성의 경우에는 敵臺와 龜城의 성곽시설을 보다 강화하여 쌓도록 하였다. 따라서 읍성의 입지 조건으로 방어의 용이성, 주민 入堡時 활동의 용이, 주변 주민들의 생산 활동 장소와 근접, 기존 邑治址와의 거리 등이 동시에 고려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입지 조건 審定을 통해 축조된 조선초기 읍성들은 背後의 山地나 丘陵에 의지하고 있는 경우도 많지만 평지성이거나 山稜線의 末端에 입지하여 평지에 가까운 平山城의 경우도 꽤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조선초 읍성 축조 전반을 살펴 볼 때 평지성 축조가 일반적이 경향이라 보기 힘들며, 기존의 高險山城을 유지했다고 볼 수도 없다. 즉 조선초 하삼도 연안 읍성의 경우에는 高險山城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점차 주민 거주 지역이나 경작지와 근접한 곳으로 이동하려는 모습은 보이지만, 완전히 평지성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었으며 자연적인 지리 조건을 이용하여 방어 능력을 제고하는 것 또한 동시에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성곽시설

城體를 중심으로 城子의 윗면에 시설되는 부속시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女牆이다. 여장은 적의 화살로부터 몸을 피하기 위한 방어시설인데, 여장은 조선조 이전에도 여러 사료에서 비슷한 용어가 나타나고 있지만 성행된 성곽 시설은 아니었다. 그러나 조선초에 있어서 특히 연안 읍성에 있어서는 城體에 여장을 시설하는 것이 規式化되어 예외없이 여장을 시설하고 있으며, 여장의 수와 합하여 入堡하는 人丁의 수를 맞추도록 하였다.

雉城은 성 밑에 근접하는 적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시설이며, 성문 좌우에 曲城을 설치하여 龜城를 대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고려말에도 이러한 치성 혹은 곡성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조선 이전에도 읍성·치성의 축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세종대에 보다 규식화되어 각처의 성을 축조할 때 성면이 굴곡이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평평하고 곧은 부분에는 그 지형에 따라 100步 마다 1개의 臺를 쌓도록 하여, 敵臺³⁸⁾와 읍성의

38) 雉城은 공격의 효율화를 위해 성벽의 일부를 돌출시켜 내쌓은 구조물이고, 龜城은 성문을 밖으로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윤덕이 세종22년에 上言하여 野人과倭奴가 火砲를 사용치 못하니 옹성과 적대를 없애도 가하다하여 옹성과 적대 설치에 있어서 규격에 따르는 것보다는 功力에 맞게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에 알 수 있듯이 치성·옹성의 축조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規式化된 것 같이 엄격히 준수되어 성행하지는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즉 치성·옹성·적대의 경우 각 읍성들에 規式보다 소수 혹은 소형의 시설물들이 조선초 연안 읍성 축조 과정에서 시설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설레는 앞으로 살펴 볼, 洪州읍성과 海美읍성의 성곽시설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垓子는 성벽 주변에 인공적으로 땅을 파서 고랑을 내거나 자연 하천 등의 장애물을 이용하여 성의 방어력을 증진시키는 성곽 시설의 하나로 고려말의 기록에도 성곽에 해자가 시설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해자의 설치가 規式화되고 있는데, 충남지역의 읍성을 예로 든다면 해자는 規式에 따라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었다. 충남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읍성의 해자 시설은 읍성마다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대체로 城體에서 5~10m 정도 떨어져 5~6m의 폭의 해자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미읍성의 경우에는 해자의 上部幅이 10~11m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조선초기 읍성은 그 부속시설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었으며, 여장·적대·옹성·치성, 해자 등은 세종대 이후 새롭게 강조되어 시설된 대표적인 부속시설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조선초 읍성 축조기술이 前代 보다도 발전되었다는 것은 新羅代 '三年期限崩壞'가 '五年期限崩壞'로 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거니와 이러한 축성 기술의 발전은 고려시대 갖은 외침으로부터 축성의 성행이 이 방면의 경험을 중대시켰다는 점과 종래의 土築에서 石築 위주로의 전환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도 있겠다.

4. 조선초기 연안 읍성의 성내 구조와 기능

- 洪州, 保寧, 海美邑城을 중심으로

(1) 邑城內 주요 시설과 구조

성내 시설의 경우 읍성이 산성류에 비해 다양하다. 읍성의 경우 객사 동헌을 비롯하여 주민 일부까지 수용하고 있는데, 산성의 경우는 유사시 입보 항쟁할 수 있을 최소한의 시설인 우물, 창고 건물 등에 제한되었다.

① 水泉

앞에서 조선초 연안 읍성의 입지 조건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水泉의 풍부함인 것에 알 수 있듯이 외침을 당하여 입성한 경우 가장 중요한 필수 요소의 하나가 음료이다. 일정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설치한 이중성벽을 말하며, 敵臺는 성문좌우에 설치한 치를 특별히 적대라하여 치성의 치와 구분하였다.

기간 농성을 위해 병사의 식수 뿐 아니라 일정 기간의 취사, 세탁 등에 필요한 물을 성내에서 해결해야 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성곽 내부에 샘, 우물, 저수지 등이 존재하였다. 성의 입지 조건에 따라 水源이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물이 고일 수 있는 지점에 池(池)을 집중적으로 조성하여 물을 확보하려 했다.

② 도로망

성곽을 중심으로 한 성내외의 도로망은 성문을 통해서만 도로의 발전이 가능하였는데 행정적인 성격을 많이 띤 都·邑城에서 잘 발달되어 있었다. 한 고을의 읍성은 행정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도로망이 의도적으로 조성되기도 하고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기도 하였다. 도로망은 성내의 객사 관아 등 주요 건물과 성문간의 연결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읍성을 비롯 모든 성의 출입은 성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문의 수와도 큰 연관이 된다. 기존의 도로망과 성문 설치 위치는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발전되어 오늘날까지 이용되는 간선도로도 많다.

③ 城內 건물

읍성의 경우 가장 중요한 건물은 客舍였다. 객사는 客館이라고도 하는데 실제적인 기능은 중앙으로부터의 使臣들의 숙소였으나, 國王을 상징하는 殿碑를 안치하고 궁궐쪽을 향해 配享하였으므로 지방에서는 중앙의 국왕을 상징하는 건물인데 邑城內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배치하였다. 그외 중요 시설로는 고을 수령의 거주지인 衙舍, 守廬이 公事를 처리하던 곳인 東軒, 지방 출신 인물들이 수령을 보좌하던 자문기관인 鄉廳은 지방 고을에서는 수령 다음가는 官衙였다. 그외 성내 주요 시설로는 각종 창고가 있는데 위치, 용도에 따라 다양하였다. 대표적인 창고 시설로 邑倉, 軍器庫, 火藥庫, 司倉 등이 있었는데 이는 읍성의 행정적, 군사적 목적에 맞게 설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외에도 성내에는 각종 제사를 위한 시설, 상업 시설 등도 있었다.

(2) 洪州, 保寧, 海美邑城의例

① 保寧邑城

『世宗實錄地理志』에 의하면 본래 新村縣인데 신라시대 新邑縣으로 고쳐 結城郡의 領縣으로 삼았고, 고려시대에 保寧縣으로 고치어 顯宗9년에 運州와 任內에 불였다가 睿宗元年 비로소 監務를 두었고, 조선조 太宗13년에 縣監으로 고쳤다.

세종12년(1430)에 도순찰사 최윤덕은 기존의 보령 古邑城이 높은 구릉에 위치하고 있으며, 잡석과 흙을 섞어 쌓았고, 성내 우물과 샘마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그 부적합함을 上言하였고, 이후 최윤덕과 監司 朴安信, 兵使 李興發이 다시 성터를 살펴 池內洞의 堂山 남쪽으로 터를 잡아 그 해 수개월만에 성을 완성하였다. 이후 부임한 현감에 의해 객사를 비롯한 성내 시설 건축이 완성되었다. 『文宗實錄』에 의하면 보령읍성의 둘레는 2109尺,³⁹⁾ 體城의 높

39) 문종실록에서는 布帛尺(46.73cm)을 사용하였으므로, 성체의 둘레는 약 985m에 달한다.

이는 12척, 여장의 높이 2척, 적대 8척, 성문은 3군데 시설하되 한 곳은 옹성이 없다고 하며, 여장의 數는 412, 해자의 둘레는 2190척, 성내 우물이 셋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城址는 낮은 구릉과 약간의 평지에 걸친 것으로 구릉 줄기가 곧 北壁을 이루고 있으며, 구릉의 東南으로 흘러내린 비탈은 東·西壁으로 하고, 평지 부분과 구릉지와의 접촉부에 南壁이 있어서 山勢를 많이 이용하였다. 성내에는 북쪽에 동헌이, 중앙에 객사가 있었고, 門址는 西壁에는 없는 듯하고 東南北에 있었으나, 그 중 南門格인 海山樓만 남아있다.

② 洪州邑城

『世宗實錄地理志』에 기록된 바로는 백제시대의 명칭은 알 수 없고, 고려 太祖10년에 運州라 불리워졌고, 顯宗 이후에는 洪州라는 명칭으로 불리워져 조선시대에도 계속하여 불리워졌으며 또 다른 명칭으로 安平과 海豐이 있었다. 홍주읍성은 내포평야를 끼고 있는 요충지로서 고려시대 이래 조선시대까지 읍치지로서 계속 중요시되었다.

『문종실록』에 의하면 城周는 4865척이며, 높이 11척, 여장의 높이 3척, 적대는 24개중 6개 소만 쌓았고, 문은 4개소 중 1개소는 옹성이 없었으며⁴⁰⁾, 여장이 608개, 성내 우물이 2, 작은 개울 2, 해자는 굴착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 이후 읍성에 대한 수축은 顯宗代에 韓桂洙에 의하여 重修되고, 純祖23년(1823년)에 鎮將 金啓默과 牧使 李憲圭에 의하여 수리되었으며, 高宗7년(1890) 牧使 韓應弼이 朝陽門을 짓고 景義門, 望華門과 官營을 경영하였다.

홍주읍성은 북쪽을 제외하고는 산악으로 둘려 쌓은 있는 삼태기형의 평지 읍성의 지리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여러 문현 속에는 曲城이 2개소에서 8개소까지 각기 다르게 수록하여 놓고 있지만 현재는 동벽과 남벽이 교차하는 곳에 길이 6m, 폭 8m의 규모의 치성이 축조되어 있다.

③ 海美邑城

『世宗實錄地理志』에 의하면 海美縣은 太宗7년에 貞海縣과 餘美縣을 합쳐서 만든 縣으로 同王13년에 監務를 두었다. 태종14년(1414)에 兵馬節度使營이 충남 德山에서 海美로 移設된 후 1651년 清州로 다시 옮겨질 때까지 해미는 군사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였던 곳이며, 宣祖12년(1578) 10월에 이순신이 兵使營의 군관으로 부임하여 10여개월간 근무한 적이 있다고 한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都節制使營을 해미에 새로이 설치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으며, 『문종실록』에는 해미현 內廂城에 대하여 수록하고 있는데, 이는 덕산으로부터 병마절도사영을 해미로 옮김에 따라 营城을 축조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비교적 內廂城의 규모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內廂城의 城周는 3352척(약1566m)이고 높이가 12척, 여장의 높이가 3척인데 적대는 18개 소 중 16개소가 아직 축조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문은 4개소인데 옹성은 없었고, 여장은 688개, 성 안에 샘이 3곳, 해자가 3626척이라는 것이다. 해미읍성은 동북쪽에 표고 130m인 야

40) 『문종실록』에 의하면 이 성에 문이 4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본래 造營한 것은 셋으로 보이는데, 동문·서문·북문이 그것으로 북문에는 門樓가 없었으며, 남문이 없었던 것 같다.

산을 포용하고 있는 平山城으로 평면은 타원형에 가깝다. 성문은 현재 동서남북의 4개처에 시설되어 있는데 동문과 서문은 平據式의 城門으로 門樓가 있어서 東門樓를 岑陽樓, 西門樓를 枳城樓라 칭하고 있다. 남문은 외부는 虹霓門을 시설하고, 내부는 평거식으로 구축하였는데 내부 평거식의 門幅은 紅 예문의 문폭에서 양측벽으로 조금씩(25cm) 넓혀져 시설되었고, 남문의 문루는 鎮南樓라 칭하고 있다. 『輿地圖書』 및 『忠淸道邑誌』에는 북문이 시설되지 않은 것으로 수록되어 있으나, 현재 暗門형식의 북문이 설치되어 있다.

북벽 밖으로 해자 시설이 확인되는데, 북벽에서 8m 정도 떨어져서 상부폭 10~11m, 하부 폭 5m, 깊이 1.4m~2.4m가 잔존하고 있다. 성벽과 해자 사이에는 『輿地圖書』의 기록과 같이 부분적으로 팽자나무(枳木)를 심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팽자성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5. 맷음말

지금까지 고려말 조선초에 하삼도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읍성 축조 사업과 이 시기에 축조된 읍성의 기본적 특징들은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하삼도 연안 읍성은 그 직접적인 배경이 여말선초에 극심했던 왜구의 침략에 방비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는 왜구 침략 방어라는 표면적 의미와 더불어 조선초기의 국가 체제 정비 과정과 연계된다고 할 수 있다. 조선 태조~태종기에도 기존의 산성 중심의 방비 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도성 축조 사업과 왕조 개창 후 국가 체제의 안정화가 아직 성취되지 못한 이유라 하겠다. 하지만 세종대에 들어서면서 국가 체제의 안정이라는 토대 위에서 읍성의 축조가 광범위하게 추진되는데, 이는 단순히 국가 안정화의 결과물이 아니라 국가 체제 안정화를 확고히하고, 민간에 생업 장려하여 생산력을 확충토록 하는 사회 기반 시설 확대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성격은 단순히 방어의 의미만을 갖는 기존의 산성 중심의 방비 체계에서 벗어나 외침의 방비와 안정적인 민간 생활의 확충을 동시에 도모하는 읍성 중심의 적극적인 방비 체계로의 전환 속에서 내포되어 있다. 조선초 연안 읍성 축조의 적극적 성격은 구체적인 읍성 축조 과정에서 성지 택정 논의에서 단순히 군사적 방비 문제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행정적 기능과 민간 생활의 편의가 고려되고 있다는 점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참고문헌

沈正輔, 1995, 『韓國 邑城의 研究 ; 忠南地方을 中心으로』, 學研文化社.

孫永植, 1987, 『韓國 城郭의 研究』, 문화재관리국.

심수보, 1991, 우리나라 城郭都市의 空間構造에 關한 研究, 목원대석사논문.

- 金哲洙, 1984, 韓國城郭都市의 形成發達過程과 空間構造에 關한 研究, 索大 박사논문.
- 손정복, 1977, 『조선시대 도시사회 연구』, 一志社.
- 심정보, 1994, 고려 말 조선초의 하삼도 읍성 축조기사 검토, 『석당논총』20, 동아대석당전통문화연구원.
- 李相泰, 1992, 조선시대 군현의 변천, 『실학사상연구』3, 무악실학회.
- 孫禎睦, 1991, 조선사회의 도시의 구조와 발전, 『한국의 사회와 문화』1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車勇杰, 1977, 세종조 하삼도 연해읍성 축조에 대하여, 『사학연구』27.

구석기 문화의 연구

-공주 석장리 선사유적을 중심으로-

사학과 3학년 전민석

목차	3. 석장리 전기·중기 구석기 문화
1. 머릿말	4. 석장리 후기 구석기 문화
2. 석장리 유적지와 발굴조사개략	5. 맷음말

1. 머릿말

구석기 시대(문화)라 함은 약 250만년 전부터 1만년전까지 빙하기와 간빙기동안(제4기 플라이오세)에 주로 존재한 것으로 웬석기를 도구로 사용하여 수렵·채집을 생업으로 한 인류 문화 사상의 한 단계를 말한다. 그리고 중석기·신석기시대를 통틀어 선사시대라 한다. 각 지역에 따라 상이한 특색을 가지고 있고, 연대적으로 차이가 있어 그 전반적 개관은 불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유라프리카의 온대지역·아열대지역에서의 문화발전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석기를 만드는 기술, 수법, 모양새 등에 있어서 원리는 비슷했으며, 수법의 발달도 시간에 따라 달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 나라에서 구석기 문화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은 일찍부터 알려져 있었으나 고고학적 방법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발굴되고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이다. 현재까지 발굴된 대표적인 구석기문화 유적으로는 북한의 함경북도 웅기군 노서면 굴포리와 충청남도 공주군 장기면 석장리 유적지이다. 석장리 선사유적의 중요성은 우리겨레의 역사가 흔히 알고 있는 단군 시대, 청동기 시대쯤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 구석기시대부터 이어진다는 것을 증거 한다는 점에 있다. 구석기 시대를 처음으로 우리 뿌리를 밝혀서 우리의 역사시대에 이어주는 작업이 선사 고고학의 일이며, 석장리 연구는 바로 이러한 뜻을 지니고 이루어졌다.

2. 석장리 유적자리와 발굴조사 개략

1) 유적자리 ; 지형, 기후, 식생

- **지형:** 석장리 선사유적은 충남 공주군 장기면 석장리(북위36도 26분 35초, 동경127도 11분 30초)에 자리잡고 있으며, 공주시에서 동쪽으로 금강을 따라 5km쯤의 석장리 마을 앞에 펼쳐진 논밭에 위치한다. 현재 금강은 해발 5m, 유적은 해발 11-14m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일부 문화층은 강수면 아래쪽으로 이어진다. 유적 북쪽으로 장군산(해발 354m)과 강건너 남쪽으로 명덕산(해발 326m)과 청벽산(해발 368m)이 있다. 유적은 강을 굽어보는 강가의 언덕에 자리하여 위로부터 흘러온 강 자갈들을 쉽게 얻을 수 있어 석기를 만들어 쓰기에 좋고, 또한 산에서 개울을 따라 강가로 내려오는 짐승을 잡기에도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 **기후:** 연평균 기온은 섭씨 12.0°C, 1월평균 -5.6°C(최저 -8.6°C), 8월평균 25.1°C(최고 30.7°C)이며 연평균 강수량은 1330mm로서 그 가운데 약 56.2%가 6-8월에 내려 여름철 집중 강우 현상을 보인다. 보통 해발 5-6m이던 강물의 높이가 장마때 해발 15m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 그에 따라 강쪽의 문화층이 조금씩 무너져 내린 곳도 있다.

- **식생:** 이곳은 냉온대 남쪽에 들어 있는 지는넓은잎나무(낙엽활엽수림)에 속한다. 유적을 중심으로 지름 5km 반경 안의 숲면적에서 바늘잎나무(침엽수)가 41.9%, 넓은잎나무(활엽수)는 36.5%, 나머지 20.8%가 혼합림이다. 수직적으로 보면 위로부터 소나무-굴참나무, 소나무-상수리나무 혼합림과 소나무, 밤나무, 일본잎깔나무, 리기다소나무등이 자라고 있다.

2) 발굴조사 개략

석장리 유적을 처음 찾은 것은 선사시대 유적조사를 위해 한국에 와 있던 미국인 대학원 학생 앨버트 모어와 그의 아내 샘풀이었다. 그후 1964년 11월 본격적인 발굴이 연세대학교 사학과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사적 제 334호로 지정되면서 석장리에 구석기유적 전시관을 짓는 계획이 세워졌고, 그에 따라 기념관 전시계획이 마련되고 전시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12차 발굴을 하게 되었다. 현재까지 12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발굴시기는 다음과 같다.

차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발굴	64.11.11	65.4.5	66.4.1	67.4.28	68.4.6	69.3.25	70.3.28	71.3.23	72.4.7	74.5.9	90.3.23	92.9.2
연도	-12.13	-5.3	-4.30	-7.27	-5.12	-5.9	-5.25	-4.24	-5.29	-6.13	-4.25	-12.3

또한 석장리 발굴과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여러 분야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①처음에는 석기의 연구에 힘을 기울였다. 석기의 폐임새, 생김새, 모습, 떼어진 격자와 몸돌을 되맞추는 연구, 발견된 자리와 석기의 쓰임새, 쓰임새와 사람의 행동과의 관계에서 밝히려 하였기에 석기를 사냥, 부엌, 일반연장, 석기떼는연장, 나머지연장들로 나누었다. ②석기의 이름은 알

기 쉽게 우리말로, 생김새보다는 쓰임새를 생각하여 만들었다. 예를 들어 찍개, 굵개, 밀개, 뚜르개, 찌르개, 새기개, 꽃개, 사냥돌(팔매돌), 주먹도끼, 주먹괭이, 주먹대패, 망치, 마치들의 우리말에서 찾게된 것은 실제 우리 조상이 쓴 말에 가깝게 갈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었다. ③또한 땅바닥의 자취를 최대한 빼뜨리지 않기 위해 먼셀흙빛깔표를 이용해 흙빛깔을 가늠하였으며, 이러한 길목에서 화덕 자리, 기둥 자리, 나무뿌리 자리, 벌레구멍, 언땅트기 자리, 땅바닥에 새겨진 고래 모습을 찾아내었다. ④그리고 발굴에서 가장 기대되었던 사람의 몸체와 관련된 유물로는 석장리 후기 구석기 집터에서 발견된 머리털이었다. 전자현미경으로 조사한 결과 동아시아 사람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그 빛깔, 모양새와 유전 색소의 밀도로써 가늠할 수 있다. ⑤숯과 꽃가루 분석 또한 이루어졌다. 이것으로 당시 옛사람들이 살았던 나무, 풀 등의 자연환경을 가늠할 수 있어 그들의 삶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 ⑥또 쌓임층을 이루하는 돌, 모래, 뱀, 찰흙 등을 따지고 돌도 모난돌, 모가 좀 죽은 돌, 뺨질뺀질한 강돌, 자갈돌, 조약돌, 잔자갈, 좀자갈, 굵은모래, 가는모래, 뱀 등을 가늠하고 그 나님새(분급)도 가늠하면 쌓임층이 이루어진 환경을 알 수 있다. 세찬 물, 서서히 흐르는 물, 소를 이룬 물, 늪지 등의 환경에서 쌓인층, 무너져 내린 비탈쌓임층, 강가 쌓임층, 강바닥 쌓임층 등의 조건을 파악내어 옛사람의 삶과의 관계를 밝히는 일도 중요한 일이었다. ⑦돌감의 연구는 석기를 만들기 위해서 돌을 어디서 구해왔는가를 밝히고, 그 돌의 폐임새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석기로서 규장암, 흑요석, 옥수들이 더러 발굴되는데, 옥수가 나는 곳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흑요석은 일부가 백두산에서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흑요석 돌감에 감마선을 죄인 다음 그 성분을 방사화하여 분석하면 미량원소인 스트론튬(St), 바륨(Ba), 지르코늄(Zr)등의 원소를 통해 처음 폭발한 곳을 가려낼 수 있었다. 규장암은 20km쯤 떨어진 장소에서, 반암과 수정등은 유적 언저리에 많이 흩어져 있었다. ⑧연대를 찾아내는 연구로서는 방사성탄소 연대가늠법이 많이 쓰였으며, 집터 1호 화덕의 재로 가늠한 값은 20,830년 전으로 나왔고, 언땅트기층의 두 층 가운데 그 사이 층에서 찾은 숯으로는 30,690년, 그보다 아래층에서는 50,270년보다 오랜 연대를 얻었다. ⑨발굴된 유물 가운데 가장 많은 석기들은 편의상 이름과 부호를 붙였으며 사람과 동물의 뼈 화석에도 마찬가지였다. ⑩마지막으로 연구의 목적이자 가장 바라는 바였던 것은 위의 연구를 통해 얻어진 자료로 석장리 사람들의 삶을 밝혀내는 것이다. 삶의 모습과 내용,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자연환경을 알아내 시간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에 갔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이상과 같은 과학적 방법에 의한 다양한 연구로 이루어진 연구 성과와 이를 근거로 옛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추측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발굴된 유물의 수와 종류가 극히 한정되어 있어 전체적인 삶을 세밀히 조명하기 어려웠다. 이에 석장리 전기·중기 구석기 문화층에서는 석기분석과 당시 문화상에 대해 간단히 조명한다. 다만 후기 구석기에 해당하는 문화층에서 집터가 발견되고, 다양한 유물이 나오게 되어 이를 근거로 당시 문화를 비교적 밝게 재구성 해 보았다.

3. 석장리 전기·중기 구석기 문화층

석장리 유적에서 발굴되는 석기의 구성성분이나 수법으로 보아 분명한 전기구석기 시대에 해당하는 문화층이 존재하였다. 석장리의 제 2문화층인 주먹괭이·자르개 문화층부터 제 6문화층인 우뚝 잡이긁개·자르개 문화층에 이르는 사이가 이 시기에 발달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제 7문화층에서 제 9문화층까지를 중기, 나머지 13문화층까지를 후기 구석기 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

-제 2문화층(21쌓임층)으로 보여지는 지표 하7.8~8.2m에 있는 층은 모난돌이 많으나, 그 밑쪽으로 작은 조약돌이 있고 그 위에 쌓인 것이 이 층을 이루고 있다. 이 층에서는 석기라고는 큰 주먹괭이 1점, 작은 격지자르개 2점이 나왔을 뿐이다. 주먹괭이는 한쪽이 넓고 다른 쪽이 뾰족한 3각추 모양의 반암 자갈들을 약간 손질하여 쓴 것이다. 손잡이 쪽인 넓은 쪽이 두터움기에 앞뒤를 떼어 내었다. 주먹괭이의 끝에는 쓴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 이 석기를 도살용으로 썼을 것이며, 작은 격지자르개에는 가벼운 잔손질이 들어 있어 약간의 기술의 발전을 엿볼 수 있다.

-제 3문화층(19쌓임층)은 양쪽찌개·긁개 문화층으로 석기는 모두가 몸돌 석기이고 석영 계암석을 쓴 것이 두드러진다. 석기의 기능을 따라 분류한다면 사냥·도살용으로 양쪽 외날 찌개 2점, 부엌조리용이 20점으로 80%에 달하고, 그 중에서도 긁개가 16점으로 64%를 차지한다. 석기의 기능을 본다면 한 석기가 여러 가지로 쓰인 흔적이 있어 거의가 다목적석기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문화층이 이룩된 이 자리는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일이 주가 되고 음식을 먹던 곳으로 노천생활의 근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 4문화층(17쌓임층)은 주먹도끼·찌르개 문화권으로 성격 지어진다. 이 층의 석기의 용도별 분포를 보면 사냥·도살용 석기가 14점으로 20%, 부엌용 석기가 45점으로 64.3%, 일반연장이 11점인데 15.7%로 구성되어 있다. 기능면에서 본다면 부엌용이 더욱 늘어나서 67.1%가 된다. 이중 가장 많은 기능수는 긁개로 40.6%이고 다음이 자르개로 14.1%이다.

-제 5문화층(15쌓임층)은 주먹도끼, 양쪽찌개 문화층으로 석기의 수도 86점이나 된다. 용도별로 나누어 보면 사냥·도살용이 37.4%, 부엌·조리용이 50.2%, 일반용 연장이 12.4%로 이 문화층이 주된 생활근거로 나타난다.

-제 6문화층(157 지층)은 우뚝잡이 긁개, 자르개 문화층이다. 용도별로 보면 부엌 조리용이 일반용 석기보다 2배에 해당한다. 이 문화층의 긁개의 날 경사각은 60-68도 사이

에 있고, 잡이에 잔손질을 더하여 잡이를 만든 것이 특징이다. 이 문화층까지의 구석기인 원인계통의 사람이지만 창끝을 돌로 만들고 나무자루를 달아서 동물을 잡고, 사냥돌을 동물의 힘줄에 달아서 던져 잡기도 하였다.

-제 7문화층(13쌓임층)은 격지 석기 문화층으로 특징 지을 수 있다. 이 지층은 고운 모래층 위에 굳은 염토가 생긴 류산·파리 간빙기의 따뜻한 조건하에 이루어 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출토된 석기는 6점중 격지 석기가 5점이고 작은 몸돌 석기가 1점이다. 전기의 전통을 벗어나서 격지를 쓰는 문화가 생기고 석기의 크기도 작을뿐더러 잔손질에서도 양상은 아주 달라지는 것이다. 즉 르발루아 수법을 역력히 볼 수 있고 격지석기가 주가 되는 것이다.

-제 8문화층(13쌓임층)은 찌르개·긁개 문화층이다. 모룻돌은 석영암, 반암, 편마암이 짹을 이루고 돌망치에는 무거운 흑운모쉬스트암이 많아서 석기 제작용 석기가 풍부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작업장으로 생각된다. 석기의 수도 267점으로 찌르개가 90점이나 되어 전체 석기의 33.7%에 해당한다. 밀개와 긁개는 31.5%로 나타난다. 특히 우뚝잡이 긁개가 특징을 이루고 있는 이 문화층의 석기는 1석기 1목적으로 변하였고 다목적 석기는 13점밖에 없다는데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 문화층의 주인들은 좀 많은 수의 인구를 거느린 것으로 보여진다. 적어도 제 4빙하기가 시작했던 7만년 전쯤에 쌓인 층으로 가늠된다. 아직도 언어는 크게 발전하지 못했지만 현생인류로 발전해 가는 기틀은 마련해 갔던 것으로 보여진다.

-제 9문화층(9쌓임층)은 자갈돌 찌개 문화층이다. 이 문화층은 굳은 염토층 속에서 발굴되었다. 이 굳은 염토는 잔잔한 호수와 같은 물밑에서 쌓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후는 따뜻하였고 메마른 상태에서 쌓인 층의 문화로 당시 한국은 빙하의 영향이 극히 적은 시기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 문화층의 석기는 거의가 반암 자갈을 썼다. 사냥·도살용 석기로는 주먹도끼 2점, 쌍날찌개 11점, 외날찌개 3점, 찌르개 10점으로 38.8%를 차지하고 부엌 조리용이 긁개 18점, 밀개 9점, 자르개 9점으로 53.7%이며 일반 연장으로는 새기개 또는 뚜르개가 5점으로 극히 적은 비율인 7.5%에 해당한다. 이 문화층의 활동을 추측하면 생활하는 속에서 석기를 계속 만드는 작업장이었음을 추측하게 한다.

또 석기의 크기로 보아 큰석기, 중간석기, 작은석기로 나누고 그 비를 보면 대략 4:3:2의 비율로 나타난다. 이로써 당시 인구의 구성과 관련지어 본다면 이 지층에서 석기를 만들던 사람의 수가 10명 이내고 남·녀·유년의 비가 이러한 4:3:2의 비율로 써 추측 할 수 있는 듯하다. 이 문화층의 전체의 인상은 쌍날찌개를 보면 동남아시아의 자갈돌찌개 문화층이 가지는 전기구석기의 냄새를 풍기지만 그 나머지 격지 긁개는 그 잔손질이 거칠기는 해도 무스페리앙기의 라끼나형을 닮은 점, 밀개의 등장, 르발루아 수법이 보이는 등 중기구석기의 수법이 나타난다. 이들은 주황색의 뿌리태를 사용하여 물감을 만들

고 그것으로 그림을 그리고 몸에 칠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마치 후기 무스페리앙인들이 자갈들에 색칠한 것과 같이 말이다

4. 석장리 후기 구석기 문화

석장리 유적의 구석기시대 문화층에서 집터가 발견되었다. 1969년에 1지구 1호 집터가 드러난 뒤, 11-12차 발굴에서 다시 후기 구석기시대 집터가 나왔다. 1호 집터는 절대 연대 측정에서 20,830+1880로 나타났는데, 이번에 드러난 집터(3호)는 층위에서도 1호 집터보다 위층일 뿐만 아니라, 집터에서 나온 석기 구성으로 보아도 1호 집터보다 조금 뒷 시기에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근거로 당시 자연환경과 더불어 당시의 문화를 재구성해 본다

1) 자연환경

후기 구석기시대의 환경에서 중요한 지질·지리·기후는 제4기 지질학의 연구결과로써 고찰되어야 한다. 먼저 지질문제에서 25,000년전은 뷔름 III~IV 또는 따리 III~IV기에 해당하는 빙간기이므로 강수면이 현재보다 많이 얕았고, 집자리와 물가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져 멀리 바라보는 위치에서 생활하였을 것이다. 집자리 뒤의 배경은 장군봉(將軍峰)에서 내려오는 완만한 경사를 가진 구릉이 떠를 이룬 곳이었다.

지층의 구성을 보면 굳은 염토층으로서 염토가 더 굳어졌고 모래질이 늘어나고 뱀이 줄어든 층이다. 모래에 갈철광과 적철광이 들어 있고, 모래 형태가 모가 없어 당시 기후는 어느 정도 따뜻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식물상의 구성을 보면 한반도 중부지방에는 넓은 잎을 가진 참나무계통의 여름나무 숲이 분포되어 있어, 석장리 집자리 주위에도 온대성의 숲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식물상의 성격은 토양시료에서 검출한 꽃가루 분석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복원되었다. 소나무속, 가문비나무속, 전나무속, 오리나무속, 자작나무속, 고비과, 쥐똥나무, 목련과, 수련과, 석송목, 단풍과, 백합과, 방동사니과 그리고 판별이 되지 않은 꽃가루가 적은 수로 나타났고 포자도 10개정도 나왔다. 이것을 통해 볼 때, 따뜻한 온대기후에서 자라는 침엽수와 주로 활엽수 등 중간지대의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다. 25,000년전의 석장리 기후가 따뜻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집자리에서 탄화된 오리나무계의 나이테 단면이 보이는 목탄이 출토되었다. 이것의 단면이 5.5mm, 5.6mm, 7.5mm, 7.8mm, 5.4mm로 나타났는데 나이테의 길이로 보아서 따뜻한 환경이었던 것을 알 수 있고, 중간의 두 해는 비가 많이 왔던 것으로 나타난다.

동물상의 분포는 동물의 화석이 발굴되지 않아 그 정확한 분포상을 알 수 없다. 동

불화석의 존재 여부에 관해서 당시의 석장리 후기 구석기시대인들이 가졌던 신앙을 표현한 예술품에 의하는 것뿐이다. 이것은 사람의 머리털과 동물의 털이 출토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추측을 더 강하게 해 주고 있다. 동물의 모습을 표현한 입체조각품과 음각조각품에는 거북, 개, 사냥개, 맷돼지, 새, 고래, 곰, 물고기 등이 있고, 평면조각품에도 새, 물고기, 토끼, 사람이 약간 묘사되어 있다. 당시 석장리 주위에는 최소한 위의 동물들이 서식했을 것이다. 다만 고래는 그들이 전에 살았던 다른 곳에서 보았었거나, 강물이 해일에 의해 범람했을 때 금강유역을 거슬러 올라왔던 고래를 보았을지도 모른다. 석장리 주위에 살았던 동물은 대부분 따뜻한 기후를 좋아하는 온대성 서식 특징이 있는 동물들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당시 석장리 유적지 주위의 기후가 따뜻하였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2) 생활환경

① 의식주 문화

당시 사람들이 지은 집의 구조를 보면 따뜻한 기후에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남쪽으로 향하고 그들의 급수진인 금강을 상당한 거리에 두고 동남쪽으로 바라보는 위치에서 집자리를 잡았다. 서남쪽을 향해 문돌을 약 150cm 간격으로 양쪽에 놓고 문돌을 중심으로 바람막이 담을 쌓고 문돌 바로 안에 1~1.5m인 불멸자리를 만들어 불을 피우고 집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둥자리를 5개 이상 파고서 기둥을 세우고 서쪽보다 지형이 낮은 동쪽에 커다란 당김돌을 준비해 놓고 동물의 가죽이나 힘줄로 만들었을 끈을 당겨 묶어서 양쪽 경사의 차이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집을 지었다. 지형을 이용해서 기둥을 세우고 동물의 가죽이나 풀, 짚으로 지붕을 씌웠다. 당시 석장리 집의 구조는 천막형태를 취했을 것이다.

집의 구조에서 보면 우선 문돌을 놓고서 담을 쌓고 그 안에 불멸자리를 만들어 불을 피웠던 것만으로 보아도 당시 사람들은 이미 집이라는 개념 다시 말하면 바깥과 구분되어 집안에 불을 피워 놓고 한 장소 안에서 생활하며 정착하여 산다는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는다는 단순한 목적에서 뿐 아니라 다른 외부와 또는 다른 것과 경계를 막는다는 의식에서 담을 양쪽으로 쌓았을 것이다. 당시 사람들이 이곳에 처음 왔을 때 무엇보다도 먼저 불을 피웠을 것이다. 불은 구석기시대 사회에서 생활에 절대 필요한 것이었고 특히 이곳은 강을 면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마찰된 흙운모 편암을 이용해서 마찰로써 불을 피웠다. 불을 땐 노지(爐址)는 불 규칙한 타원을 이루고 있는데 그 면적이 115×105cm이다.

문돌을 중심으로 구조를 보면 강과 가까이 있는 관계로 그들이 강가에서 고기를 잡거나, 강가로 물을 먹으로 내려오는 주위의 동물을 쉽게 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즉 그들은 생활과 직접 연관이 있고 생활에 용이하도록 하는 그들만이 지녔던 과학 방법에 의하여 자리를 정했으며 계속 생활을 하였다. 그들의 늘쌍의 출입구가 있는 지역에서 그들

의 생활 나아가서는 신앙과 깊은 관련이 있는 유물의 분포를 볼 수 있다. 착살, 새모양, 화살촉, 솟대같은 장대 위에 새가 앉아 있는 듯한 그림, 사람모양 등이 새겨진 자갈들이 출토되었다. 새겨진 자연면이 강을 바라보게 세워져서 서남쪽으로 향하였는데 이것은 강에 대한 그들의 생활의 소망을 표시한 것이겠지만 문돌의 방향과 같은 그림이 있는 자연면이 서남쪽을 향하게 놓아졌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또한 문돌과 이 조각품이 연결되는 선위에 제단으로 보이는 뾰족하게 땅에 세워져 있는 채로 발굴된 것과 자연면에 옛날 비슷한 그림이 새겨진 조각품이 모두 일렬로 이어져 있다. 이것은 바로 그들 식생활에 걱정이 없도록 예술품을 만들어 놓고서 그 주위에서 조리를 함으로써 경원의 마음을 더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석장리 사람들의 식생활에 대한 정확한 고찰을 하기에는 자료의 부족으로 불가능하지만 아마 가장 좋은 자원으로 생각한 것은 강에 살던 물고기였을 것이다. 이것은 강이 가까운 곳에 있다는 점에서도 가능하지만 입체조각품 중 물고기 모양을 머리 부분만 특징 있게 조각한 유물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다. 이외에 조각품으로 알 수 있는 동물을 사냥하여 식생활의 주대상으로 삼았을 것이다. 한편 그들이 강에서 생활한 단면을 알아 볼 수 있는 것은 몸돌로 된 짜르개의 자연면에 옛날이라도 나타내려고 한 조각품으로, 후기 구석기시대에 석장리에서 옛날형식의 배를 엮었을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② 예술(藝術)과 신앙(信仰)

석장리 집자리에서는 강을 면한 평지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동물벽화 등을 찾아내기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러나 그들도 주위에서 얻을 수 있는 돌에 그들의 신앙이 깃든 예술품을 만들었다. 이 예술품의 특징은 대상물의 전체보다는 머리 부분만을 강조해서 묘사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동물의 죽음에 대해서 동물의 영혼이 계속 살아 있을 것을 바라는 그들만의 원시신앙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예외로 거북모양의 조각품은 자연면을 이용하여 자세하게 묘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항상 출입하는 문돌과 바람막이로 쌓은 담안에 소원을 표시하고 생활의 일면을 묘사한 조각품을 배열하여 놓고 제단(祭壇)모양을 마련하여 생활과정에서 지녔던 신앙의 일면을 드러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생활하고 있던 생활 근거지에 대해 신성한 곳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은 제단을 올리고 조각된 예술품으로 함축된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또 사냥한 동물을 그곳에서 도살하였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새겨진 자갈들이 강면을 바라보고 있고 새겨진 내용 중에 솟대 같은 장대 위에 새가 앉은 듯한 그림은 집자리 지역을 신성한 장소로서 밖의 다른 곳과 구분하였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노지도 서남쪽 문돌 가까이에 자리 잡아 놓았고 입체조각품은 개모양 석상을 중심으로 담선을 끼고서 북쪽에 배치되었다. 다른 위협이 침범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집자리에서 더욱 안쪽에 배치된 입체조각품 중 제일 앞에 개모양 석상이 위치하고 있어 이것은 개모양 석상 안쪽에 있는 동물의 영혼을 「지킨다」는 의미를 나타낸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또한 집자

리에 살던 사람들이 외출했을 때와 돌아 왔을 때의 개모양 석상의 자리가 달랐을 것이라는 생각에서도 이러한 추측은 가능하다.

음각된 고래상은 당시 그들의 식생활을 반영해 주는 좋은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주로 물고기를 잡아서 생활했을 것으로 보이며 그래서 그들이 보았던 물에 사는 동물 중에서 제일 큰 고래를 집자리 안에 음각해서 고기잡이가 잘 되기를 바랐을 것이다. 고래를 입체조각품으로 만들지 않고 땅을 파서 음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중요한 뜻을 나타내고 있다. 그들이 본 물고기 가운데 가장 커다란 것을 경원의 마음으로 집자리 안에 땅을 파고서 가까이 접하고 있다는 의미와 함께 보호하고 있다는 의미로나, 잡아 두었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조각품 중에서 그 특징을 제대로 살려 전체를 묘사했고, 또 제일 큰 것은 거북모양 조각품이다. 거북도 석장리 후기 구석기시대 집자리에서 살던 사람들의 신앙심을 뚜렷하게 표현해 주고 있고 위치한 자리와 놓여진 방향으로 보아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미리 정해 놓고 생활했던 것 같다. 더욱 중요한 것은 거북이 지난 의미에서 그러할 것이다. 거북은 전래된 한국민속에서 장수(長壽), 벽사(辟邪), 상서롭고 귀여운 놈이라는 길한 동물로 믿어 왔다는 점에서 이미 한반도에서는 후기 구석기시대부터 거북에 대한 토템 사상을 가졌고 이것이 발전하여 고대부터 민속으로 전래되어 온 거북신앙으로 변하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다. 한편 조각품 외에 예술과 관계 있는 것은 물감이다. 붉은색, 검붉은색, 검은색, 주황색 등의 물감이 출토되었고 커다란 물감 덩어리도 출토되었다.

6. 맷음말

이상 석장리 유적의 고고학적 발굴과 그 연구 성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초반에서 언급했듯이 고고학은 단지 유물을 발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자연환경과 더불어 우리겨레의 조상인 당시 사람들의 삶의 참모습을 재현하고, 나아가 문화발달과 진화과정을 알아내 역사시대에 연결시켜 줘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과학적 방법을 동원한다고 해도 극히 한정된 유물로 얼마나 역사적 진실에 가깝게 고대인의 참모습을 재현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여전히 제기된다.

마지막에 의견을 넣고자 한다. 과학이론 중 흘로그램 이론에 이런 점이 있다. 수면에 돌을 던져 물결 파장을 만든다. 그것을 급속히 냉동시켜 수면만을 떼어낸다. 그 파장을 간직하고 있는 얼음판을 특수한 장비에 의해 빛을 쪼이면 처음에 수면에 던졌던 돌 모양이 나타난다. 심지어 얼음판을 깨뜨려 그 조각만으로도 돌의 위치와 모양을 정확히 재현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고고학에선 유물 한 조각만이 전체 삶을 간직하고 있는 유일한 단서이며, 빛을 쪼이는 흘로그램 장치가 고고학자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선 풍부한 학식과

끈기, 지적 상상력 이외의 남다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석장리 발굴과 연구업적을 훑어보며 새삼 그들의 수고를 조금이나마 느낀다.

7. 참고문헌

- 손보기, 1967, 「충위를 이룬 석장리 구석기문화」, 『역사학보』 35·36합집
 손보기, 1968, 「석장리의 자갈돌 찍개 문화층」, 『한국사연구』 1.
 손보기, 1970, 「석장리의 후기구석기시대 주거지」, 『연세논총』 8.
 손보기, 1970, 「석장리의 새기개 밀개 문화층」, 『한국사연구』 5.
 손보기, 1972, 「석장리의 전기 중기 구석기 문화층」, 『한국사연구』 7.
 손보기, 1972, 「한국의 구석기 문화」, 『백제연구』 3.
 손보기, 1973, 「구석기문화」, 『한국사 1』, 국사편찬위원회.
 손보기, 1973, 「석장리의 후기 구석기시대 집자리」, 『한국사연구』 9.
 박희현, 1975, 「韓國 後期 舊石器時代의 生活과 環境 -石壯里 後期 舊石器時代의 집자리층을 중심으로-」, 『白山學報』 18. ; 『한국의 구석기·신석기문화 연구』.
 이융조, 1977, 「구석기시대」, 『한국사론 1-고대-』, 국사편찬위원회.
 이융조, 1981, 「한국 구석기문화의 이해에 대한 몇 가지 문제 -한국 구석기문화 연구 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35.
 손보기, 1983, 「인종과 주거지」, 『한국사론』 12, 국사편찬위원회
 손보기, 1988, 『한국 구석기학의 길잡이』.
 손보기, 1990, 『구석기 유적 -한국·만주-』, 한국선사문화연구소
 손보기, 1993, 『석장리 선사유적』, 동아출판사
 이융조 우종윤 길경택 하문식 윤용현, 1994, 『우리의 선사문화』 (I), 지식산업사

聖住寺址에 관하여

- 新羅末 禪宗九山門과 關聯하여

사학과 3학년 정 준

1. 머리말
2. 선종구산파의 성주사
3. 성주사지의 유물 및 유적
4. 맺음말

1. 머리말

新羅의 國都를 따라 지방산림에 創建된 이름높은 伽藍은 智異山 華嚴寺나 伽倻山 海印寺와 같이 아직도 그 웅장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것도 있고, 또는 이제는 寺址만 남아 옛날의 榮華를 되새겨주는 것도 많다. 하지만 이런 寺址에 대한 注目은 해방 후 그것도 6·25전쟁이 수습되고 나서인 1960년대서야 이루어졌다.

충청남도 보령군 외산면 성주리에 위치한 聖住寺 또한 三國時代의 거대한 寺刹로 지금은 寺址만 남아있지만, 그 沿革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百濟·新羅의 三國에서부터 高麗, 朝鮮에까지 이르는 遺構한 寺刹이다.

聖住寺는 百濟時代의 烏舍寺(烏舍寺 또는 烏會寺)로 新羅 下代인 景文王代에 唐에서 돌아온 朗慧화상이 住持로 들어서면서 禪宗九山派 중의 하나로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하였다.⁴¹⁾ 그리하여 9세기 중엽에 이르러 伽藍을 크게 重唱하였고 그와 때를 같이하여 金立之의 事蹟碑(聖住寺事蹟碑)가 건립됨으로써 그 思惟를 새기었고, 그 후 다시 수십년이 지나 重唱主인 朗慧和尚이 入寂하여서는 崔致遠의 유명한 四山碑의 하나로 오늘날에 전해지는

41) 三國史記 卷二十八, “義慈王十五年條에 夏五月 馬入北岳烏舍寺 鳴佛宇數日死”

三國遺事 卷一, “百濟烏會寺 亦元吳舍寺 有大赤馬 야시崑寺行道”

이외에도 ‘崇巖山 聖住寺 寺蹟’, 聖住寺址의 聖住寺事蹟碑 등의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음

「聖住寺 朗慧和尚 白月葆光塔碑」가 전립되었다.

또한, 그 후 高麗와 朝鮮을 거쳐 계속 寺脈을 이어나가다가 壬亂 이후에는 더 이상 寺脈을 잊지 못하고, 오늘날의 寺址로만 남아있게 되었다. 이렇게 三國·高麗·朝鮮의 三時代를 이어왔기에, 聖住寺址에서 출토되는 遺物은 三時代 각각의 特性을 가지고 있다.

2. 禪宗九山派와 聖住寺

聖住寺가 역사상에서 그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理由가 禪宗九山派 중의 하나였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禪宗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主旨하다시피 新羅下代에서 後三國末期까지는 정치·사회·경제적으로 극심한 혼란기였다. 骨品制度의 崩壞와 지방 호족 세력의 跋扈, 신라 사상계를 이끌던 教學佛教의 世俗化 및 抽象화와 이에 따른 여러 사상들의 對頭, 寺刹의 肥大化로 인한 국가 경제의 혼란과 그에 따른 民生苦 등은 당시 신라인들에게 지금 이 시기가 末世라는 의식을 갖게 할 정도였다.

이러한 극심한 혼란기에 나타난 주도적 사상들 가운데 하나였던 禪宗은 지방 호족 세력과 연계하여 '高麗'라는 새로운 국가의 탄생을 가져오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다.

禪宗을 처음 新羅에 들여온 사람은 도선이었다. 하지만 도선이 禪宗을 신라에 전파하였을 당시는 왕실이나 중앙 귀족에게 사회적 기반을 두고 있었던 華嚴이나 戒律 같은 教學佛教(敎宗)가 득세하고 있어서, 도선은 禪宗을 新羅내에 광범위하게 전파하지 못하고 설악산에 은둔하여 제자를 양성하게 된다. 하지만 新羅下代에 들어서서 骨品制의 崩壞로 왕실의 힘이 약해지고 六頭品 세력이 성장하면서 禪宗은 점차 그 세를 늘리게 되었다. 특히 지방의 호족 세력의 경제력과 결합하면서 禪宗은 그 자체가 하나의 세력을 형성해 나가게 되었다.

禪宗이 성장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新羅下代의 혼란기에 骨品制度의 矛盾을 克復하고 정치개혁을 모색하고 있었던 與德王이 唐에서 南宗禪을 수학하고 돌아온 洪陟에게 彙依하면서 禪宗은 점점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홍덕왕이 禪宗의 革命的인 성격에 共感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종은 이후 왕실이나 중앙 귀족보다는 六頭品 세력을 위시한 지방세력과 더 많이 결탁하는데, 그 이유는 禪宗의 賾悟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교리가 骨品制라는 身分制下에서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던 眞骨 이하의 신분층에 기종 사상보다 더 매력을 느끼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禪宗은 九山派로 정립했는데 이를 禪宗九山派라 한다. 禪宗九山派는 전남 장흥군 가지산 寶林寺의 運智山派, 전북 남원군 智異山 實相寺의 實相山派, 전남

곡성군 奉安寺의 桐裏山派, 경남 창원군 鳳林寺의 鳳林山派, 강원도 영월군 輿寧寺의 獅子山派, 강원도 五臺山 堀山寺 閣堀山派, 경북 문경군 奉巖寺의 曜陽山派, 황해도 해주군 首陽山 廣照寺의 須彌山派, 마지막으로 충남 보령군 聖住寺의 聖住山派가 있다.

禪宗九山派는 그 창시자들이 모두 非眞骨인 六頭品의 신분이었으며 그 사회적 기반 또한 왕실이나 중앙 귀족이 아닌 지방 세력이었다. 또한 禪宗九山派는 막대한 田莊과 田丁을 소유하고 있어 하나의 莊園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으며, 新羅 下代에 성행한 도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무장도 하고 있어 사찰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지방 세력을 이루었다.

이 중 聖住山派의 聖住寺는 禪宗九山派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寺刹로서 그 門下人이 2000여인이나 되었다고 한다. 聖住寺는 朗慧和尚(無梁)이 그 지방의 토착세력이었던 김흔의 경제력 바탕⁴²⁾에 힘입어 百濟 때 지어진 烏合寺를 重唱하여 세운 것이다. 그리하여 문성왕이 聖住寺로 改稱케하고 大興輪寺에 編錄하였으며, 다음 현강왕시에 境界를 標定하고 聖住寺의 題額을 賦하여 주었다. 이것은 「朗慧和尚碑」⁴³⁾의 내용으로 보아 寺院에 寄進하거나 投托하는데 대해 형식적인 것이기는 하였지만 국가로부터의 承認이나 免稅의 특권에 대한 認定은 重視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성주사는 지방 세력의 경제적 기반과 왕실의 면세 특권으로 그 세를 확장해 나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聖住寺址의 遺物·遺蹟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3. 聖住寺址의 遺物 · 遺蹟

聖住寺址의 대표적인 遺物·遺蹟으로는 우선 崔致遠의 유명한 四山碑⁴⁴⁾ 중의 하나인 大朗慧和尚百月葆光塔과 4基의 石塔이 있으며, 門址·金堂址·三千佛殿址 등의 많은 建物址, 佛像과 百濟·新羅·高麗·朝鮮 시대의 기와류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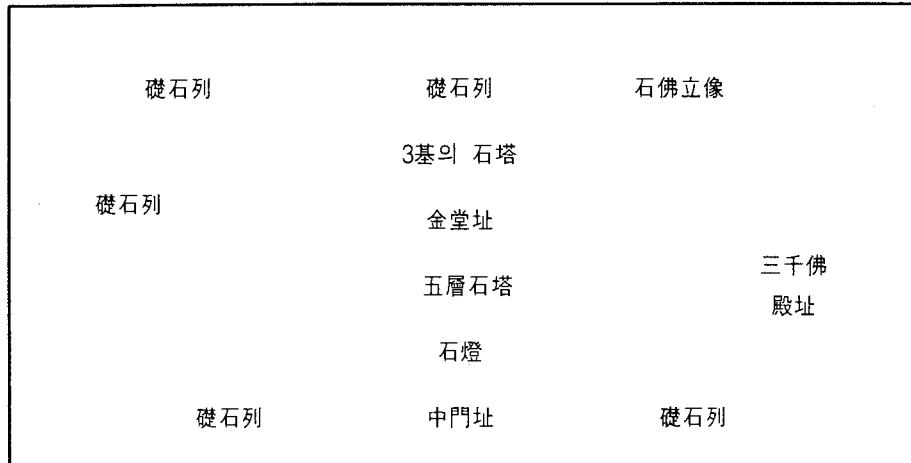
우선 聖住寺址의 지형을 살펴보면 聖住寺址는 東西가 길고 南北이 짧고 寺中部가 東쪽에 치우쳐 있는 長方形寺址를 형성하였으며, 外廓으로는 城郭 형식의 石築 담장이 둘러져 있어 寺內를 一目瞭然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寺中心은 中門이라고 불

42) 성주사는 비록 문성왕 같은 왕실과 왕실측근의 중앙귀족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낭해화상이 오합사를 중창할 때, 문성왕이 "성주사"라는 사명을 지어 주었지만, 중창의 직접적인 기반은 김흔의 경제력이었다.

43) “於是 遣幹 標放生場界則鳥獸說 銀鈎 札聖住寺題則龍蛇活 盛事畢矣。”

44) '聖住寺大朗慧和尚碑'를 비롯하여 '大崇福寺石碑'(경상북도 경주), '雙溪寺眞鑑禪師碑'(경상북도 하동), '鳳巖寺智證大師碑'(경상북도 문경)가 있다.

수 있는데, 이 中門은 塔·金堂등과 함께 南北一直線上에 南向으로 놓여 있다. 이를 간단하게 도면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이처럼 聖住寺址는 소위 一塔式 伽藍에 속하며, 方向은 一塔式伽藍과 같은 南向을 보이고 있다. 一塔式은 三國式(특히 百濟式)으로 統一新羅時代의 重唱때에 이 형식을 따르고 있다는 것은 이 지방 특유의 百濟 스타일의 發露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金堂뒤로 3基의 石塔이 나란히配置된 것은 時代의 또는 數理的인 變遷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이 聖住寺址의 配置에 있어서 그 位置決定은 他寺의 예와 같이 각 건축간의 中心距離를 基準으로 한 것 같다. 이 金堂과 前塔(五層石塔)과의 中心거리는 18.8m, 前塔과 中門址간의 中心거리는 12.4m로서 金堂과 前後塔간의 中心거리는 동일하지 않으며, 金堂과 塔의 中心거리는 塔과 中門址간의 中心거리보다 더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百濟時代의 거리와는 반대되는 현상이며 각 中心간의 거리 또한 百濟때보다 약 1/3이나 축소되고 있다.

다음은 각 遺蹟址·遺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가. 金堂址

金堂址는 佛臺座가 놓여 있는 中心부분이 돌더미로 덮여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노출되어 있으며, 基壇部는 南面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고 西面은 흙을 퇴적하여 基壇의 끝쯤에 도달해서 오솔길이 나있다. 臺座는 잘 보존된 형태였으나 下臺 밖에 없는데, 方形인 점으로 보아 苣石이나 上臺도 方形이었을 것이며 결국 이는 羅末麗初에 성행하던 方形臺座였을 것이다.

基壇이 제대로 남아있는 곳은 南面(正面)의 西端일부이다. 발굴시 이 西端부근을 시굴하였을 때, 지면 9cm아래에서 地臺石이 나타났으며 地臺石 아래는 10cm의 石層을 이루어 前面으로 연장되고 있었다. 또한 石層상부 30cm토층에서는 新羅·百濟·朝鮮의 瓦가 차례로 출토되었으며 석층아래 40cm지층에는 百濟 瓦가 출토되었다.

基壇石의 구조는 地臺石 위에 面石을 세우고 그위에 甲石을 얹는 單層基壇이다. 面石은 똑같은 규격의 板石을 이맞추어 세우고 있고 南面의 중앙부분과 北面의 정면중앙은 階段으로 되어 있다. 南面의 正面階段은 디딤돌과 층계석이 층층이 놓였으며, 좌우의 隅石 역시 완전한 상태로 남아있는데, 이것은 圓을 四等分한 四分圓形(몰딩形) 板石으로 되었으며 前檀部에 獅子 1구씩을 안치하였다. 隅石은 전체가 1石으로 되어 있어서 동시대의 양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몰딩形 수법이라든가 사자를 隅石 전반부에 표현한 것은 동시에의 양식을 그대로 반영한 장식적 표현이다. 北面의 隅石은 南面隅石과는 달리 四分圓의 아니라 一石으로 된 \triangle 形이었으며 사자같은 장식물도 없는 당시의 一般式 隅石이다.

基壇의 규모는 東西가 19.6m 南北이 14.4m이며 甲石을 뺀 基壇의 높이는 3.8尺이다. 이같은 基壇규모는 金剛寺址나 彌勒寺址 등과 비슷한데, 이런 규모로 보아 基壇 위에 세워진 건물은 正面(東西)이 16m 側面이 11.4m인 正面 5間 側面 4間의 건물으로 추정된다. 이 정면 5간의 金堂址는 事蹟記⁴⁵⁾에 '大雄寶殿五間'이라 언급된 바로 그 大雄殿으로 간주할 수 있다.

나. 中門址

中門址는 前塔에서 14.4m지점에 위치하였는데, 塔基壇에서 8m거리에 長大石이 東西로 놓여 있었으며, 여기서 4m지점에 下枋石이 있었다. 下枋石은 內外側으로 구분되게 했으며 그 중앙은 틈이 벌어져 있는데 각側은 層段을 표시하여 門扉를 여닫게 한 구조를 보여준다. 이 지점에서 또 남쪽으로 長大石이 놓여 있는데 이 남북의 두 長大石列은 中門址의 南北基壇의 築臺일 것이다 규모는 正面(東西)이 10.4m 側面(南北) 5.6m인 正面 5間 側面 3間의 건물로 여겨진다. 이는 事蹟記에⁴⁶⁾서 東西南北 각 3間의 그 南門에 해당되는 正面 3間의 中門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다. 三千佛殿址

事蹟記에⁴⁷⁾ 보면 9間 규모의 三千佛殿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의 金堂址에서 동쪽편에 위치한 건물지가 바로 三千佛殿址라고 여겨진다. 三千佛殿址의 발굴과정에서 많은 기와와 佛像들이 발굴되었는데, 이 중 '千佛當草'銘 기와가 출토되고 붉은 기와와 숯 같은 것이 섞여 있는 점으로 보아 新羅時代나 高麗時代에는 千佛殿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千佛當草'銘 기와가 출토된 다음층의 층에서는 朝鮮時代의 기와가 출토된 것으로 보아 三

45) 「崇巖山聖住寺事蹟」

46) 「崇巖山聖住寺事蹟」

47) 「崇巖山聖住寺事蹟」

千佛殿은 高麗末期 또는 朝鮮初期에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三千佛殿址에 출토된 佛像들은 製造坐佛로 三千佛로 조성된 것이다. 三千佛은 大乘佛教의 독특한 教理인 無限佛 사상에서 나온 것으로, 過去에 千佛이 있었고 現在에도 千佛이 있고 未來에도 千佛이 존재할 것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디에나 佛性이 있고 누구나 佛이 될 수 있다”는 禪宗의 사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 佛臺座

佛臺座는 金堂의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는데, 下臺밖에 남아있지 않다. 이 하대도 覆蓮部는 4片으로 갈라져 있고 곳곳에 손상을 많이 입었으며 蓮花紋도 떨어져 나간 곳이 많다. 제일 윗쪽의 평면은 長方形이며側面은 몰딩形이다. 그 아래쪽에는 覆蓮을 표현하고 있는데 4面의 각面에 3葉의 覆瓣蓮花紋이 표현되어 있다. 蓮花紋은 上下 모두 좁은 것이며 各面의 중앙의 것을 제외하고는 羅末부터 유행되던 옆으로 비스듬하게 표현한 빗긴 蓮花紋이다. 이 蓮花紋을 받치도록 角形받침이 마련되어 있고 그 아래에도 역시 角形의 地臺石이 놓여 있다. 여기에는 各面에 4개씩의 眼象을 표현하고 있는데 廣幅短高의 안상이다.

地臺石과 받침, 覆蓮이 모두 長方形인데, 이것은 苫石과 上臺가 모두 직사각형임을 시사하므로 이 臺座는 羅末麗初에 8角形臺座 대신에 등장하였던 4角形 佛臺座임에 틀림없다.

마. 大朗慧和尚白月葆光塔

朗慧孚圖는 보통 金堂 후편에 있는 3點의 3層石塔 중 하나일 것으로 여겨졌으나, 事蹟記에⁴⁸⁾ 적혀 있는 ‘朗慧和尚白月葆光安干西麓’이라는 기록으로 말미암아 이 孚圖는 寺 西麓에 있을 것이라 추정하였다. 그 결과 마을 인가에서 8角孚圖의 部材들인 연자방아와 彫刻石을 발견하였고 마을 서측 산등성이에서 8角孚圖의 破材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 8角孚圖는 地臺石, 蓮花下臺石, 蓮花上臺石, 屋蓋石, 塔身, 隅石등으로 이루어졌으며 地帶石은 8角으로 1板石인데 各面에 眼象이 새겨져 있고 蓮花下臺石은 地帶石 바로 위에 놓인 下臺石으로 16葉覆瓣蓮花紋인데 金堂佛臺座의 것과 유사하다. 蓮花上臺石은 八角一石의 完品인데 16葉單瓣의 仰蓮紋이 조각되어 있으며 下面에는 隅石上面위에 놓였던 角 및 몰딩이 있으며, 上面에는 塔身을 받기 위한 三段 받침이 마련되어 있다. 屋蓋石은 3片으로 조개져 있는데 頂部에는 單瓣覆蓮이 있으며 擔端은 모두 결실되었다. 塔身은 연자방아로 쓰여지고 있었던 것으로 원래는 8角形으로 추정되나 지금은 原形이 변질되었다.

48) 「崇巖山聖住寺事蹟」

바. 石佛立像

石佛立像是 講堂地로 추정되는 建物址의 東端部에서 南向에 위치하였는데, 머리는 素髮이며 肉感의 표현은 뚜렷하지 않다. 더구나 시멘트로 때워지기도 해서 전체적인 인상은 일그러졌지만, 자세히 보면 세련되고 우아한 모습이 엿보이기도 한다. 목에는 三道가 뚜렷하며 어깨의 線은 부드럽다. 石佛立像是 오른손을 내리고 왼손을 들어 배에 대고 있는 형상이지만 손은 거의 깨어져서 구분하기가 어렵다.

신체는 부드럽게 처리하였는데 理想主義의 경향보다는 寫實的인 경향이 농후하다. 衣는 通衣인 두 어깨에서 배에까지 U形의 衣紋을 흘리고 있으며 양팔등에는 階段式衣紋을 표현하고 있다.

사. 瓦類

기와는 숫막새기와와 암막새기와 두 종류가 출토되었는데, 숫막새기와는 蓮花紋, 唐草紋, 文字 등 10종류의 기와가 출토되었고 이 중 百濟 숫막새기와의 3종류를 포함하여 新羅·高麗·朝鮮의 기와가 각각 2·3종씩 있다. 암막새기와는 6종류가 출토되었고 역시 각 시대의 것을 망라하고 있지만 백제시대의 것은 불분명하다. 平瓦들도 다소 출토되었는데 이중 「聖住寺金堂」, 「聖住寺佛堂」, 「聖住千佛堂草」 등 상당량의 在銘瓦가 있다.

4. 맷음말

지금까지 禪宗九山門과 그 중의 하나인 聖住寺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禪宗九山門의 대표적인 伽藍이었던 聖住寺는 朗慧和尚이 百濟 때의 烏合寺를 重唱하여 王室의 후원과 그보다 더 중요한 지방 세력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하여 사원 자체가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는 그 당시의 말세적인 시대적 배경하에서 六頭品을 비롯한 지방세력이 자신들의 지지기반을 견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禪宗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聖住寺는 新羅末부터 高麗때까지 번성하였고, 抑佛崇儒의 朝鮮朝에서도 그 명맥을 유지해 나갔다.

이렇게 三國, 高麗, 朝鮮의 三時代를 거쳤기에 오늘날의 聖住寺址에서는 三時代의 형식의 유물들이 많이 출토되고 있지만, 머리맡에서도 밝혔다시피 寺址에 대한 오늘날의 연구는 1960년대에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직 더 밝혀내야 할 사실들이 많

이 있다.

5. 참고문헌

- 황수영, 1968, 숭암산 성주사 사적, 「고고미술」 98, 고고미술동인회
 박일훈, 1962, 보령 성주사지 逸名塔片, 「고고미술」 14, 고고미술동인회
 황수영, 1968, 신라 성주사 대낭혜화상 백월보광탑비의 조사, 「고고미술」 100, 한국미술사학회
 미술사학회, 성주사 관계자료, 「불교미술」 2
 최병현, 1972, 신라하대 선종구산파의 성립 - 최치원의 사산비명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7
 김복순, 1993 신라하대 선종과 화엄종 관계의 고찰 「국사관논총」 48
 김복순, 1994 신라하대 불교계의 동향 「신라문화」 10·11합, 동국대신라
 무학연구소
 추만호, 1994 신라말 사상계의 동향 「한국고대사연구」 7 한국고대사연
 구회

대원군 정권의 개혁 정치

사학과 3학년 심호수

1. 대원군의 세력기반
2. 내정개혁
 - (1) 서원정비
 - (2) 민란 수습책
3. 결론

1. 대원군의 권력 기반

세도정권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발생에서 잘 나타나 있다. 19세기 이후 조선의 왕계는 장자에 의한 왕위 계승이 순조롭지 못해 특정 외척 가문의 권력 독점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다분히 비정상적인 정권 구도인 탓에 이들은 진보적 정치 세력은 물론 자신의 권력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왕족 마저도 숙청을 단행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몸을 낫춰 뒷날을 도모하던 대원군은 조대비의 후원을 받아 자기의 아들을 왕으로 옹립시키고 자신은 해진 이유로 기본적으로 대원군의 정체 방향은 영·정조계열의 왕족이고 왕권은 세도정권에 의해 약을 위해 대원군은 권력 재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첫째로 중앙관제를 고치고 둘째로 새 관료를 선발하여 등용하며 셋째로 경외서리를 포섭하고 넷째로 璿派人 중심의 병권장악이 그것이다. 중앙관제의 개편은 비변사의 기능 축소와 의정부와 6조 그리고 3군부를 복구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제도상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안동 김씨들이 장악하던 비변사를 축소시켜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축소시키기 위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대원군의 정권 재조직에서 모든 안동 김씨 일족이 제거 된 것은 아니었으며 대원군 자신도 안동김씨 일부의 지지를 받은 탓에 이들 각 세력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심스레 자신의 세력화를 꾀했다. 이를 위해 안동김씨 이외의 명문 양반가를 포섭하며 양반지배층 내부의 각 정치 세력에 관직을 고루 안배하여 세력 균형 속에 정권을 유지해 나갔다. 한편으로는 종친과 선파인을 키우고 발탁하여 왕실의 권위와 자신의 친위세력을 만

들어 나갔다. 아울러 실무를 주로 담당하는 중인 서리총을 적극 활용하여 그들의 의견을 정부에 반영하고 감영과 유수 영문에 중인 서리를 요소마다 배치하여 중앙 집권화를 노렸다.

그렇지만 대원군은 독자적 정치기반이 없었던 탓에 세도문벌의 완전 배척은 불가능했고 그가 중용한 남인이나 북인의 경우도 정치에서 실각한지 오래되어 많은 사람들을 등용하는데는 무리가 따라 노론 세력을 견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2.내정개혁

1)서원정비

대원군의 집권 초기의 서원 정책은 서원의 마구잡이 설립을 막고 그 소유 재산을 제한하여 면세 부분을 축소해 군포 수입 증대를 노렸다. 하지만 그의 권력 기반이 확고해지자 만동묘의 철폐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서원 정비를 시작했는데 이는 단순한 서원 없애기 차원을 넘어 노론에 대한 공격적 성격과(특히 만동묘 철폐) 귀족 관료권과 지방토호권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이후 서원 정비는 병인 양요가 지난 후 대원군 정권이 재정적으로 가장 곤란했던 시기인 고종 5년 경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시작했다.

2)민란 수습책—삼정의 개선

1862년 농민 반란의 원인을 정부에서는 삼정의 문란으로 파악하여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전면적인 개혁이 아닌 부분적인 개선과 개혁을 추구 하는 것으로 결정을 보았다.

전정은 도결·방략의 금지등 수세상의 폐단과 결함을 제거하고 군정의 경우는 군현 조정, 피역 방지와 군현 조정 등의 개선책을 내놓았고 환곡의 경우 이 제도를 혁파하고 환곡의 고유기능을 위해 사창제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 과제는 철종의 승하로 인해 대원군에게 넘어온 과제가 되었고 대원군은 일단 군정에서는 호포제를 시행한다. 하지만 대원군이 시행한 호포제는 각 신분별로 균등히 호포를 내는 것이 아니고 신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징수했는데 양반을 우대하였다. 호포법은 신분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이 법을 시행해도 신분질서 명분은 지켜나가는 것이 지배층의 의도였다. 또한 징수 방법도 동리 단위로 일괄 징수하여 책임상납하는 방법을 취했기에 종래의 군포제와 마찬가지로 농민들은 공동체적 구속에서 해방되진 못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종래 군역제와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는데 이것은 군액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부세 대상을 양반신분의 말단 지배층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곧 상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의 감소'라는 측면 이외에도 호포법이 군역민으로서의 사회적 천시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생각이 펴지게 되었다. 비록 신분이 해방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양반도

호포법으로 군역을 지게 되므로 양반과 상민이 동등해졌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조선봉건 사회 해체기에서 나타나는 민의 의식 성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까닭으로 양반층은 유교적 명분론을 앞세워 반대했지만 더 이상 종래의 군역제로 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었고 이 제도는 갑오개혁 때 근대적 조세제도로 호포제로 이어지게 되었다.

환곡의 개혁은 환곡 복구와 사창제 도입으로 집약되었다. 이를 위해 '社倉節目'이 마련되고 경기, 삼남, 해서 5개도에서 시행되었는데 "첫째로는 면 단위의 사수를 선출하고 그를 중심으로 향촌민에게 사창운영을 일임하되 이속이 관여하지 않는다. 둘째로 환곡의 분배를 통의 대소 빈부를 비교해 차등을 두고 양반과 상민을 논하지 않고 해아려 똑같이 나눈다."

물론 이런 개혁안이 나온다하여 환곡의 모든 문제가 해결 되는 것은 아니었으며 그럴 수도 없는 것이었지만 오랜 세월에 걸친 환곡제 이정의 단서가 열리게 되었고 이 법을 바탕으로 갑오개혁에서 '社還條例'가 법제화 될 수 있었다.

3)결론

결국 농민항쟁의 수습책으로 실시된 삼정의 개선책은 이른바 당평정국의 개량 노선을 반영한 조선 후기 200~300년 동안 논의되어 온 양반 지주층 중심의 개혁론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정치 개혁의 귀결점이었다. 따라서 대원군 정권의 성격은 진보적 정권이 아닌 철저한 개량정권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들 개혁의 핵심은 강력한 조선조의 재건이지 결코 근대 국가 수립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세제도의 군부 군세의 방향은 이시기 평등적 신분의식과 결합하여 민의 정치적·사회적 의식을 고조시켰다.

김정희 (金正喜)

(1786~1856) ; 정조 10년~철종 7년

본관은 경주이며 자는 원춘(元春) 호는 秋史(추사) · 阮當(완당) 등 약 100여개가 있다. 병조 판서인 노경(魯敬)과 기계유씨(杞溪愈氏)의 장남으로 태어나 큰아버지 노영(魯永) 앞으로 출제하였다. 그는 1819년(순조 18년) 문과에 급제하여 암행어사, 예조참의, 설서, 겸교 · 대교 · 시강원 보덕을 지냈으나 1830년 생부 노경이 운상도의 옥사에 배후조종 혐의로 고금도에 유배되었으나 순조의 특별 배려로 사면이 되어 判義禁府事로 복직되자 1836년 병조참판과 성균관대사성을 지냈다. 하지만 현종 즉위 후 다시 운상도의 옥에 연루되어 1840~1849년까지 유배 생활을 하다 풀려 났지만 1851년 친구인 영의정 권도인의 일에 연루가 되어 함경도 북청에 유배되어 2년만에 돌아오는 등 굴곡 많은 삶을 살았다.

그는 어려서부터 박제가의 눈에 들어 그의 제자가 되었고 박제가가 북학파의 거두인 까닭에 그의 학문적 성향도 고증학적인 요소가 많아지게 되었다. 또한 그가 24세 때 아버지가 동지부사로 청에 가게 되자 아버지를 수행하여 연경에 체류하면서 옹방강(翁方綱), 완원(阮) 등의 거유와 접할 수 있었는데 이는 그의 학문세계의 형성과 인식 그리고 그의 인생관—正道의 수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된다. 이 시기의 연경학계는 고증학의 전성기였으며 종래 경학의 보조 학문으로 인식되던 금석학, 사학, 문자학, 음운학 등이 모두 독립적인 전전을 보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금석학은 문자학과 더불어 서도사(書道史)의 연구와 더불어 독자적 학문의 틀로 인정받고 있었다. 이러한 연경학계의 조류에 크게 영향을 받은 김정희는 금석학 연구에 몰두하고 금석 자료의 발견과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니 북한산 순수비의 발견과 많은 금석문 관련 책의 저술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한편 그의 경학적 사상은 옹방강의 ‘한송불분론’(漢宋不分論)을 바탕으로 하며 그의 경학관을 집약했다고 할 수 있는 『실사구시설』(實事求是說)은 경세치용(經世致用)을 주장한 완원의 학설과 방법론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밖에도 불교학, 음운학, 천산학, 지리학 등에도 빼어난 깊이를 자랑했다.

이러한 학문적 업적 뿐만 아니라 예술 부문에서도 큰 족적을 남겼는데 그의 예술은 시·서·화 일치 사상에 기반을 고답적인 이념미를 구현하니 이는 고도의 발전을 보인 청의 고증학 영향이 컸다.

‘김정희’ 체의 연원은 단순이 그의 재능에 의지한 감각적인 서체가 아닌 스승 옹방강으로부터 배운 조맹부·소동파 체 등을 배우고 김정희 자신이 평생을 걸고 노력해 왔던 ‘도’의 수련이 모인 결과이다. 이처럼 ‘정도의 수련’이라는 다소 형이상학적 목표에 진력한 까닭으로 그의 그림에서도 대체로 소동파로부터 이어지는 시·서·화의 일치의 문인취미를 계승하니 기법 보다는 심의(心意)를 중시하는 문인 화풍을 존중했다.

이러한 모습은 그의 전각에서도 빈번하게 드러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김정희의 수많은 편지글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 글들은 단순한 편지가 아닌 수필과 평론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내면 생활을 자세히 드러낸 것에 의미를 둘 수 있으며 더욱이 당대 사대부로서는 드물게 39통의 언간(諺簡)을 남길 정도로 한글에 정통했던 점이 이채롭다.

그는 단순한 예술가나 학자로 한정짓기에는 그의 학문·문화·예술의 폭이 깊으며 그런 그의 업적은 결국 시대의 전환기를 산 지식인의 기수로서 새 학문과 사상을 받아들여 조선 왕조의 구 문화체제로부터 신문화전개를 가능하게 한 선각자로 후학들이 평가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하응 (李星應)

(1820~1898); 순조 20~고종 25

조선의 왕족, 정치가 자는 시백, 호는 석파 영조의 현손 남연군(南延君) 구(球)의 아들이며 대원의 대감이라고도 불렸다. 12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17살 때 아버지를 여읜 탓으로 어려운 유·소년기를 보냈다. 철종 때 안동 김씨 문중이 왕실과 종친에 여러 통제와 압박을 가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안동 김문을 상대로 구걸을 하거나 시정의 잡배로 알려진 천희연·하정일·장순규·안필주 등과 어울려 건달 생활을 하였으며 이 시기를 통해 타 왕족이나 지배층 보다 민중의 삶을 이해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뒷날을 기약하며 당시 왕실의 최고 어른인 조대비와 연줄을 만들어 후사가 없는 철종이 승하할 경우 자신의 아들인 명복을 왕위 계승자로 지명하도록 했다. 1863년 철종이 승하하자 조대비는 아들 명복을 익성군으로 봉하고 익종대왕의 대통을 계승하자는 정원용의 말을 받아들여 명복은 왕의 자리에 오르니 그가 고종이다. 이에 흥선군은 흥선대원군(이하 대원군)으로 봉해지게 되었다.

대원군은 세도정치를 분쇄하고 왕권강화를 꾀하며 조선의 중흥을 목적으로 개혁정치를 시도한다. 이를 위해 당색과 문벌을 초월한 인재 등용과 서원정리, 양반·토호의 면세전결의 조사와 징세·무명 잡세·進上 폐지·은광의 개발 허용 등의 개혁을 단행하였고 종래 군포제를 호포로 바꿔 양반에게도 일부 세금을 부담도록하고 복식 간소화, 사치 금지 등의 풍속 개혁 시도와 『대전회통』 『육전조례』 등의 법전을 편찬하니 법질서 확립을 꾀하였고 의정부의 부활 비변사의 폐지와 삼군부의 설치로 정무와 군무를 분리하여 군국기무를 맡게하고 국방을 강화하여 세도 정치의 그늘을 벗는데 노력을 했다. 하지만 왕권 중흥의 일환으로 경복궁을 무리하게 중건하여 백성의 원성을 샀으며 천주교도의 탄압으로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초기 대원군의 외교정책은 쇄국 양이의 정책이었으며 이는 식민도발의 방어라는 궁정적 측면과 근대화의 지연이라는 상반된 결과를 가져왔다.

1873년 자신의 며느리인 중전 민비는 장성한 고종에게 친정욕구를 부추겨 최익현의 상소를 계기로 대원군은 하야하게 되었다. 이후 각 정변이 있을 때마다 대원군은 거기에 직·간접적으로 빈번하게 개입하였다. 임오 군란이 일어나 구식군인들의 재집권 요구를 받고 정권에 재등장했으나 청군의 개입으로 3년 간의 억류(抑留) 생활을 겪은 것이나 1887년 원세개와 결탁하여 큰 아들 재황을 옹립하려 한 사건이다. 갑오 농민 전쟁에서의 농민군과의 접응(接應) 시도 등이 좋은 예이다.

대원군의 인생을 살펴보면 초기의 불운을 슬기롭게 극복한 후 집권 초 10년은 내적 정치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다소 개량적이지만 내정개혁에 힘을 썼고 이후에는 변화무쌍한 정치적 행보를 보였다.

홍성 지방의 의병운동과 국가건설운동

홍경수(인문 96)

1. 한말 홍주지방의 의병운동
2. 일제하 홍성지방 정치세력
3. 해방직후 홍성지방의 정치 동향
4. 참고문헌

1. 한말 홍주지방 의병운동

한말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의 전환을 이룩하려는 개화와 근대화, 그리고 개항 전후로부터 침투한 일제를 주축으로 한 제국주의 압력의 배제라는 흐름에서 볼 때 한말 의병 활동은 한국 근대민족운동사의 중요한 면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근대사를 움직인 한 축면이라고 할 수 있다.

청일전쟁후 아시아의 강자로 등장한 일본의 독주는 러시아·프랑스·독일의 이른바 삼국간섭에 의하여 견제 당하자 정세의 변동을 주시하던 조선왕조는 러시아에 접근하여 당시 조선의 내정에 깊숙이 침투했던 친일세력을 축출하였다. 이에 크게 낭패한 일제는 1895년 새벽 궁궐에 난입하여 친러세력의 중심인물이던 민비를 사해하고(을미사변), 다시 조선에 친일내각을 세웠다. 새내각은 난국을 처리해 가면서도 일본 세력의 지원 아래 많은 개혁 사업을 추진시켜 왔는데 특히 단발령의 실시 공포는 왕후가 을미사변에 자극되었던 민족 감정을 크게 격화시켰다.

민비사해의 원흉 일본인과 그 추종자인 친일 개화당에 대한 타도의 소리가 전국에서 울려 나오고 더욱이 사해 사건 2개월 후인 1895년 12월 30일에 단발령이 분포되자 전국은 물끓듯하고 항일무장 투쟁의 선봉인 을미의병이 춘천, 선산, 진주, 장성, 홍주 등에서 일어났다. 이들 의병장은 거의 모두가 덕망있는 유학자였으므로 민중의 호응을 받아 특히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도 지방에서 의병이 크게 일어났다. 을미의병은 관군과 일본군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 친일 지방수령을 숙청하고 일본인을 살해하였으나 고종의 해산 권고와 宣諭使의 파견으로 차차 종식되었다. 그렇지만 의병활동이 종말을 고한 것은 아니고 그 정신은 계승되어 이후 을사조약 후 재연되었다.

을미사변 후 홍주성 의병 활동에 있어서 주동적인 인물인 前승지 김복한은 홍주성에서 멀지 않은 보령에 거주하던 안동 김씨로, 그의 父 김상용은 선조 23년 문과에 급제하여 병자호란 때 廟舍를 모시고 강화도에 건너 갔으나 적병이 강화성으로 쳐들어와 함락되자 화약에 불을 질러 자살하였다. 또한 그의 숙부 김상현은 병자호란 때 청과의 화의를 극력 반대하였으나 끝내 화의가 성립되자 청나라에 3년이나 갇혀 있다가 청나라 사람들이 그의 충절에 감동하여 귀국시킨 인물이다. 이런 가문에서 태어난 김복한은 을미의병을 이끌었다가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다시 이설 민종식 등과 함께 시국에 대하여 상의할 목적으로 상경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 때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봉기하여 투쟁하였으니 남원의 양한규, 순천의 백낙구, 안동의 이하현, 보은의 노병대 등이 1905년 말 또는 1906년 초에 봉기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가장 큰 봉기는 1906년 3월의 홍주에서의 민종식 起義와 같은해 6월의 남원에서 최익현의 起義였다.

일제 침략에 대하여 가장 조직적으로 강력하게 항쟁한 의병활동이 충청도 홍주성(지금의 홍성)에 근거를 두고 항쟁한 민종식의 의병이다. 그렇게 조직적이고 강력한 항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조참판직에 있다가 을미사변을 당하자 관직을 버리고 충청도 정산(지금의 청양)에서 은거하면서 의병활동 기반을 닦은 명망있는 명문 민씨가의 인물로 고종의 신뢰를 받고 있었으며 의병활동 자금을 용이하게 마련할 수 있었던 田土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처남되는 명문 한산 이씨가의 목은 이색의 후손인 이용규와 그의 종제 이남규의 적극적인 후원과 을미사변후 홍주성에서 의병 활동을 벌였던 이복한, 이설, 꽈한일 등 그 잔존세력이 견재하여 민종식의 의병에 가담하였기 때문이다.

민종식은 구한말 명문가의 출신으로 당시 모든 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처지였으나 이를 뿌리치고 구국 항일투쟁의 어려운 길을 택한 절의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여홍 민씨가의 29대손으로 전 이조판서 민영상의 3대독자로 1861년에 태어나 20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이조참판직에 있었으나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관직을 버리고 충청도 정산에서 은둔생활을 하고 있었다.

1905년 일제의 위협하에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민종식은 상경하여 을사조약 파기를 주장하는 상소문을 올릴 계획이었으나 일제의 방해로 실패하자 낙향하여 그의 모든 재산을 매각하여 군자금을 확보하고 동지를 규합하여 항일 의병 활동을 전개하여 홍주성을 탈취하는 등 큰 전과를 올렸다. 이에 당황한 일제의 경찰과 현병대를 동원하여 홍주성의 민종식 의병과 싸웠으나 실패한다. 伊藤博文은 일본군사령관에게 군대의 출동을 명령하여 지방수비대까지 합세하는 최강부대를 편성하여 홍주성을 공격하게 하고 치열한 격전 끝에 결국 홍주성의 민종식 의병은 패전하고 말았다.

홍주성 의병은 오적의 처형과 일제의 축출, 그리고 을사조약의 철폐와 왕실부흥에 그 목적이 있었다. 즉, 의병정신이 왕조체제하에서 종묘사직의 보호라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지만 이후 한말의병사에 커다란 추진력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2. 일제하 홍성지방 정치세력

홍성지방 주민들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 방면에 걸친 활동은 차령산맥을 통해 경계지위인 충남 서북부지방을 하나의 단위 생활권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홍성은 경남선(장항선)연변의 중심지로서, 인천과 군산을 잇는 해로 상의 요충으로서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충남 서북부 지방의 정치사회운동을 선도하였다. 그리고 호서 유림의 구심지로서 비교적 발달된 동조촌락을 비롯한 지연, 혈연적 유대를 통해 지역적 통합성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홍성지방의 민족운동과 연합전선운동이 주요한 기반이 되었다. 일제하 홍성군의 사회경제는 중소지주 중심의 토지소유구조와 자소작농층의 발달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농가구성을 보이고 있는데 잘 나타나 있듯이 계급간의 모순보다는 일제의 지배수탈에서 비롯된 민족적 모순이 보다 주요한 모순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이러한 조건들에 기반하여 홍성지방에서는 친일 자산가세력, 유림세력, 기독교세력, 민족주의세력, 사회주의 세력 등 제 정치세력들이 일제 강점기를 통해 형성되어 나갔다.

한말 의병항쟁과 애국계몽운동 아래 3.1운동, 지하 독립운동, 실력양성운동, 사회운동의 과정을 거치며 반일 정치세력들이 홍성지방 민족운동의 다양한 지층 속에서 형성·발전되어 나갔다. 홍성의 반일 정치세력으로는 ① 한말 홍주의병과 3.1운동 당시 호서유림단 파리장서사건을 주도하였던 유교부식회계열의 반일 유림세력 ② 홍성 앵월청년회 등을 통해 교육, 계몽운동을 이끌어 나갔단 기독교세력 ③ 1920년대 전반 광복회, 대동단, 주비단을 비롯하여 해외 독립운동의 군자금 마련 등 비밀 지하운동에 관련을 맺고 있었던 민족주의세력 ④ 1920년대 후반 사상단체 무공회를 비롯하여 혁신 청년회, 노동조합, 학생운동 등을 통해 세를 형성해 나간 사회주의세력이 있었다.

먼저 반일 유림세력들은 호서유종 김복한의 문하생들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사상적 지주였던 김복한의 위정척사론을 바탕으로 호서지방 유림세력의 민족운동과 반일 여론을 주도해 나갔다. 그러나 민족의식의 확기, 유교사상의 부흥, 시대성에 적합한 도의심 양양, 새로운 윤리관 확립 등을 목표로 1927년 유교부식회를 결성하고 성리학 연구원을 부설하여 회원을 교양하는 한편 월간잡지 '人道'를 발간하는 단계에 이르러서는 유교의 대중화와 현대화에까지 그 문제의식이 확장되고 있었다. 이후 유교부식회 계열의 유림들은 신간회 홍성지회의 결성과정에도 참여하면서 홍성지방의 전통적인 민족운동 세력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였다.

다음으로 기독교세력은 한말 독립협회 아래의 애국계몽운동의 선상에서 교육, 계몽운동을 전개하면서 하나의 세를 형성하고 있었다. 홍성지방의 대표적 기독교 사회단체는 이 지역 청년운동의 효시라 할 수 있는 홍성 앵월청년회였다. 홍성은 감리교 선교구역으로 서문리감리교회를 비롯한 다수의 감리교회들이 활동중에 있었는데 앵월청년회를 바로 이 감리교계의 청년조직이다. 이 밖에 홍동면의 경우 홍동청년회장, 신간회 홍동면지회장을 맡고 있었던 이승재를 비롯하여 박석래 등의 기독교세력이 중심이 되어 홍동감리교회를 개척하

는 한편 현광학원을 세워 교육·계몽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홍성의 민족주의세력은 1920년대 전반 광복회, 대동단, 주비단 등의 비밀 결사에 가담하여 독립군자금 모집, 친일파 응징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당초 홍성 지역사회에 부리를 내리고 있던 단일한 조직세력은 아니었다. 이들이 홍성지방 내에서 단일한 진영으로 형성된 계기는 신간회 홍성지회가 결성되면서부터였다. 신간회 홍성지회장 윤대영을 구심으로 하여 새로운 세대의 소장층들이 가담하면서 중도우파 진영을 형성하고는 있었으나 일정한 조직세력으로 정립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홍성의 사회주의세력은 중앙과의 관련 속에서 지역활동을 전개하던 김좌한, 방두파 등의 인사 외에 지역 내에 뿌리를 내리고 자생적으로 성장해온 토착 사회주의그룹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특히 토착그룹은 홍성 노동조합, 혁신 청년회, 그리고 신간회 홍성지회 등에 참여하여 일선 활동가로 활약하는 한편, 일제말에는 중도우파의 유승준 등과 더불어 가야동지회를 이끌어 나가면서 해방직후 홍성군 자치위원회-건준, 그리고 인민위원회-민전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홍성의 사회주의 운동은 사상단체 무공회의 출범 당시부터 중도우파 성향의 인사들을 포함하면서 진행되어, 신간회-가야동지회로 이어지기까지 좌우합작의 틀을 그 전제로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여타 지역의 사회주의 운동과 구반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신간회 홍성지회 출범 이후 무공회, 정진회, 청년회, 노동조합 등 사회단체간의 연대활동이 강화되어 홍성지방의 민족운동으로 그 폭과 깊이에 있어서 커다란 비약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1930년대에 접어 들어 일제의 탄압이 한층 기승을 부리면서, 대부분의 집회가 금지를 당하는 등 신간회를 비롯한 사회단체의 공개 활동은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일제의 탄압과 더불어 신간회 중앙본부의 우경화로 인한 본부와 지회 사이의 갈등, 코민태른이 좌경화와 통일전선 방침의 폐기 등으로 신간회 해소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1931년 5월 15일 전국대회가 소집되자, 홍성지회는 이에 앞서 5월 9일 상무집행위원회를 열고 신간회해소 반대를 결의하였다. 이러한 홍성지회의 결정은 중앙본부의 우경화에는 반대하지만 현실적 대안이 없는 속에서 민족연합전선체로서 신간회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함축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대회가 해소를 결의하고 일제가 이후 일체의 집회를 금지함으로써 홍성지회 역시 해체를 하게 되었다.

홍성지방의 반일 정치세력들이 대동단결하여 결성한, 충남지방의 대표적 지회로서 신간회 홍성지회의 운동은 이로서 출범 3년 9개월 만에 막을 내렸지만, 민족연합전선 신간회 홍성지회의 경험은 일제말 홍성의 좌우파 청년지식인들이 함께 모여 만든 가야동지회의 과정에, 특히 해방직후 중도우파와 사회주의계열의 연합전선으로 출범한 홍성군 자치위원회-건준의 과정에 그 역사적 전거로서 홍성지방 민족운동의 방향타 역할을 하였다.

3. 해방직후 홍성지방의 정치동향

해방후 홍성지방의 정치사회운동은 국민당계열의 중도우파세력, 인민위원회계열의 좌파세력, 독촉국민회계열의 극우세력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다. 해방직후 홍성지방의 민족국가건설운동은 중도우파계열과 사회주의계열의 좌우합작을 그 기조로 하고 있었다. 홍성은 일제하 충청지방 최초로 신간회 지회를 출범시키고, 충남에서 가장 활발한 신간회운동을 전개하였던 충남지방 민족연합전선운동의 중추지로서 풍부한 좌우합작의 역사적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좌우합작의 연합전선적 관행은 신간회 홍성지회의 운동 뿐 아니라 사상단체무공회, 혁신 홍성청년회, 홍성노동조합 등의 사회운동과 일제말 좌우파 청년지식인들의 모임이었던 가야동지회의 경우에 이르기까지 홍성지방 민족운동의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견지되고 있었다.

홍성지방 민족운동의 이같은 좌우합작의 오랜 관행은 먼저 홍성의 두터운 중소지주층과 자소작농층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농업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던 홍성지방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그 기반을 두고 있었다. 즉 홍성 주민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농업부문에 있어서 타지역에 비해 안정적인 농가구성을 보이고 있었다는 사실은 지역사회내의 계급적 대립의 정도가 그만큼 거세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도우파세력은 중소지주 내지 지역의 중간층에 그 기반을 두고 있었으며, 사회주의계열은 자소작농층 이후 소작농민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홍성의 좌우합작은 이러한 중소지주층과 자소작농층의 존재를 그 계급, 계층적 토대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홍성지방의 좌우합작 관행은 복잡하게 얹혀 있는 지연과 혈연을 매개로 한 생활공동체로서의 지역적 통합성을 그 전제로 하고 있었다. 해방후 정치과정에서 농촌지방의 좌우대립이 마을·문중 간의 대립 양상으로 나타나고, 지연·혈연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던 농촌지역 보다는 도시지역에서 좌우의 대립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었던 사실이 이를 반증해주고 있듯이 지연과 혈연의 문제는 중앙정치에 대해 지방정치를 특징지우는 중요한 하나의 요소였다. 홍성자치위원회-건준의 모체였던 가야동지회가 홍성읍이라는 생활터전에 기반한 좌우파 청년지식인들의 친목모임으로 출발한 것과 홍성군 인민위원회 한보국이 10월 항쟁 이후 지하활동을 하면서 그 자금을 일부 우익인사들로부터 조달받고 있었던 사실, 그리고 이후 좌우의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서도 이들 좌우의 집안간의 교제는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점등은 이같은 지연, 혈연에 기반한 지역적 통합성의 실체를 잘 대변해주는 것들이었다.

홍성지방의 중도우파와 사회주의계열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통일적 추구, 일반민주주주의의 확대 실현, 사유제의 인정과 주요 기간산업의 국유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건설의 원칙에 합의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홍성군 자치위원회의 건준으로의 개편 역시 이러한 합의에 기초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것은 곧 “완전한 독립국가의 건설, 전민족의 정치적·경제적 기본을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정권의 수립, 일시적 과도기에 있어서 국내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하고 대중생활의 확보를 기함”이라는 건준 강령의 수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요컨대 홍성군 자치위원회-건준의 좌우합작 연합전선운동은 이같은 건

준 강령적 수준의 결합에 기초한 ‘통일민족국가수립운동’의 일환이었다.

이와같이 건준의 강령에 근거하여 통일민족국가 건설의 지역적 기초를 닦아 나가던 홍성지방의 중도우파와 사회주의세력의 연합전선운동은 중앙 건준내 좌파계열이 중심이 되어 9월 6일 조선인민공화국의 수립이 선포되고, 곧이어 미군이 진주하여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충남 도인민위원회에의 가입 여부를 놓고 홍성군 건준이 좌우로 분열을 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결국 미군의 진주에 따른 극우진영의 입지강화와 조선인민공화국 출범과정에서의 좌우 연합전선의 퇴조라는 중앙정치의 흐름에 맞물려 홍성지방의 통일민족국가건설운동을 주도해 나갔던 홍성군 자치위원회-건준은 해체되고, 노농동맹에 기초한 통일전선의 형성을 통해 인민정권을 창출해 나가려는 기층 통일전선운동의 일환으로서 홍성군 인민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

홍성군 인민위원회는 10월 1일 출범한 이래 친일파 처리와 일제가 약탈한 전쟁물자에 대한 분배 및 일본인 재산의 몰수, 소작료 3·7제의 시행 등 친일잔재와 봉건잔재의 청산에 있어서 보다 분명하고 강력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민중적 요구를 수렴해 나가는 한편, 농민조합, 청년동맹, 부녀동맹, 직장동맹 등을 포괄하는 부문 사회단체들의 구심으로서 ‘인민정부 수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홍성군 인민위원회-민전을 중심으로 부문 사회단체들을 포괄하면서 진행된 홍성지방의 인민정부수립운동은 10월항쟁을 계기로 좌익의 활동이 사실상 불법화된 가운데 해체의 길을 걷게 되었다.

10월항쟁을 계기로 홍성군 인민위원회-민전을 중심으로 전개된 인민정부수립운동이 와해의 위기에 직면하면서, 홍성지방의 정치사회운동은 독촉국민회로 대표되는 극우진영으로 그 주도권이 넘어가고 말았다. 독촉국민회는 1946년 5월 12일 개최된 독립전취국민대회의 결의 5개조를 통해 반소·반공·친미에 입각한 자율적 자주정부 수립을 표방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반공·반정노선을 견지하고 있었던 극우적 국민운동단체였다. 특히 지방의 경우 독촉국민회 지부는 친일적 극우세력의 활동거점으로서, 지역이권의 확보를 위한 자산가계급의 이익단체로서 기능하고 있었다.

남한 단독정부가 수립되는 단계에 이르러 좌익세력들 역시 통일민족국가의 건설보다는 북한의 인민공화국 수립을 지지하는 현실노선을 걷게 됨으로서 남북분단은 더욱 고착화되어나갔다. 홍성 지역사회에 있어서 이러한 민족분단의 파장은 주민들, 특히 좌우의 집안들 사이의 유혈사태를 동반한 대립으로 번져 나갔는데 그 직접적인 발단을 이룬 것은 이른바 보도연맹사건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불씨가 되어 7월 12일 홍성에 인민군이 들어오면서, 이어 다시 국군이 진주하면서 희생자 유가족이 중심이 된 상호간의 유혈보복극이 전개되었다. 그 결과 이념상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게 얹혀있는 지연, 혈연을 매개로 유지되던 생활공동체로서의 홍성 지역사회의 통합성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해방후 홍성지방 정치사회운동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었던 사회주의 세력은 궤멸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요컨대 홍성군 인민위원회-민전을 중심으로 부문 사회단체들을 포괄하면서 진행된 홍성지방의 인민정부수립운동은 10월항쟁을 계기로 좌익의 활동이 사실상 불법화된 가운데 해

체의 길을 걷게 되었고, 이후 홍성지방 정치사회운동의 주도권은 독촉국민회를 중심으로 하는 국우진영에 넘어가게 되었다. 독촉국민회는 경찰의 후원하에 면·리 단위에 이르기까지 지부조직을 확대하는 한편, 이승만과 한민당의 단독정부수립운동에 호응하여 서북청년회, 대동청년단, 대한부인회 등의 우익단체들과 더불어 단독정부의 지역적 기초를 닦아 나갔다. 결국 미국이 한국문제를 UN에 상정하여 남한 단독선거가 실시되면서 이를 국우세력은 홍성지방의 지배세력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고, 선거에 불참한 중도우파세력은 뒤에 민주당 홍성군당 결성에 합류하여 홍성지방 보수야당의 흐름을 형성해 나갔다. 반면 사회주의세력은 단정수립과 6.25전쟁의 과정을 거치며 폭력적으로 배제되어 홍성지방 정치사회운동의 무대에서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4. 참고문헌

강병식, 1980, 「한말 의병활동의 일연구 : 홍주성 의병활동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규식, 1992, 「해방후 홍성지방 중도우파·사회주의 진영의 국가건설운동」,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참 고 자 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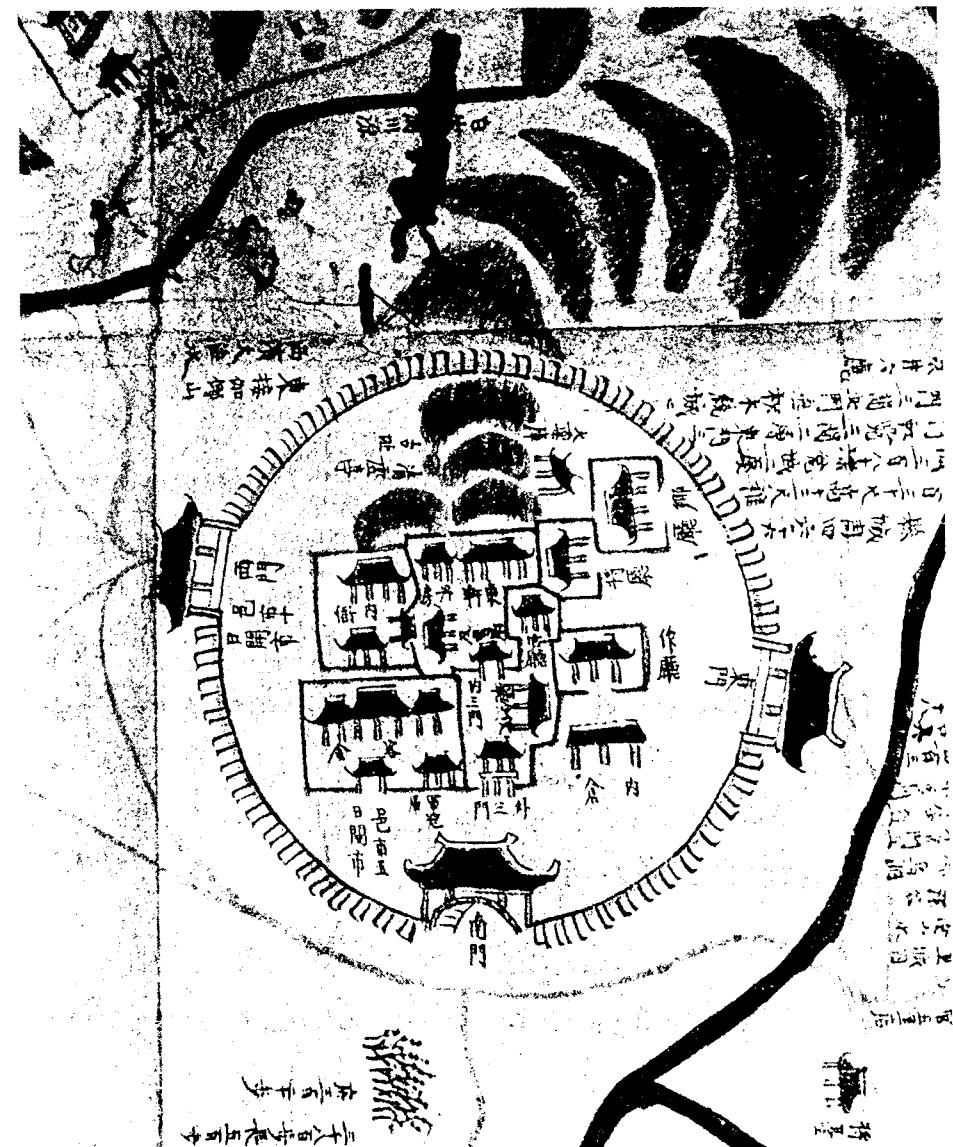


그림 1 해미읍성 고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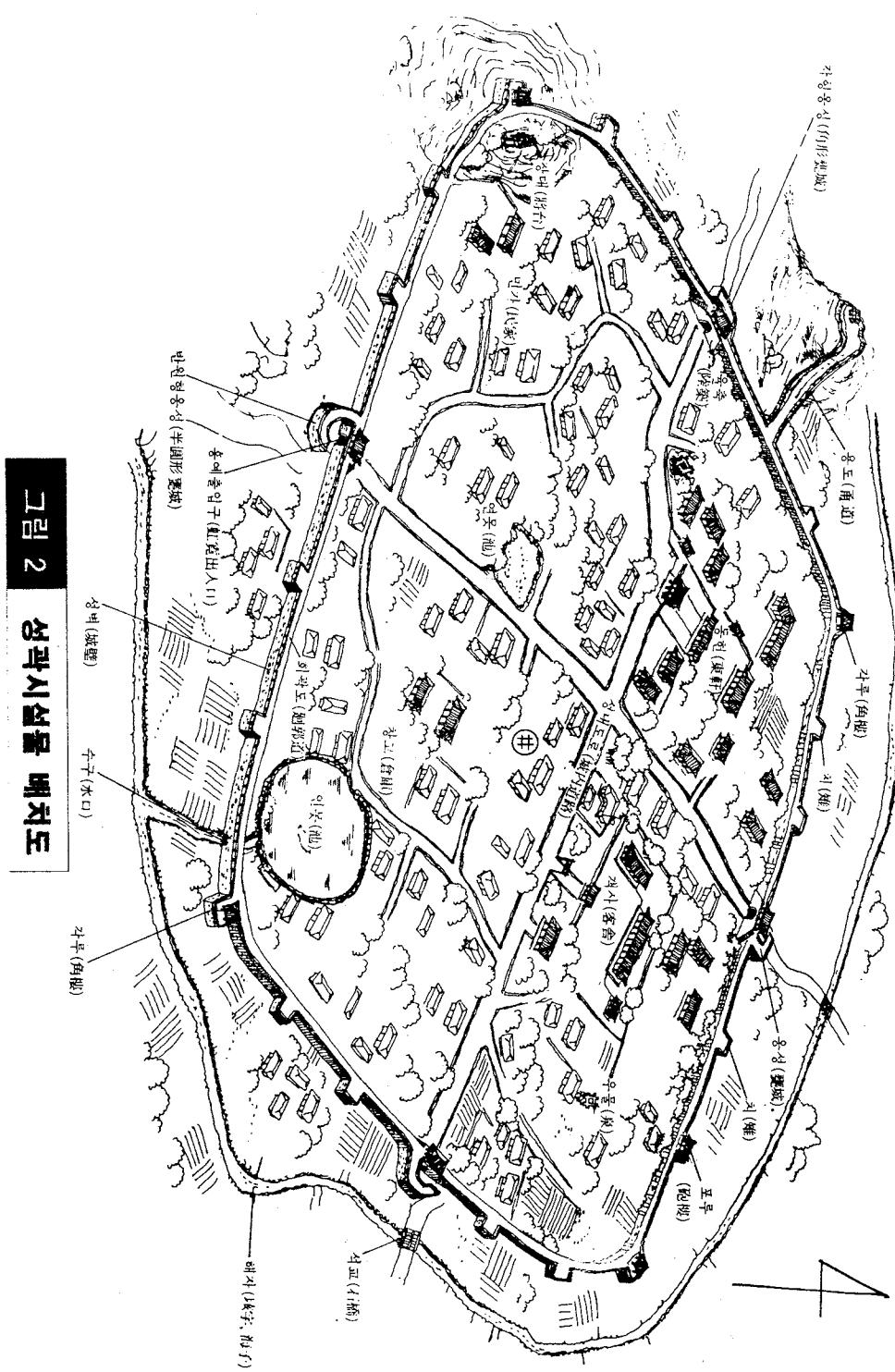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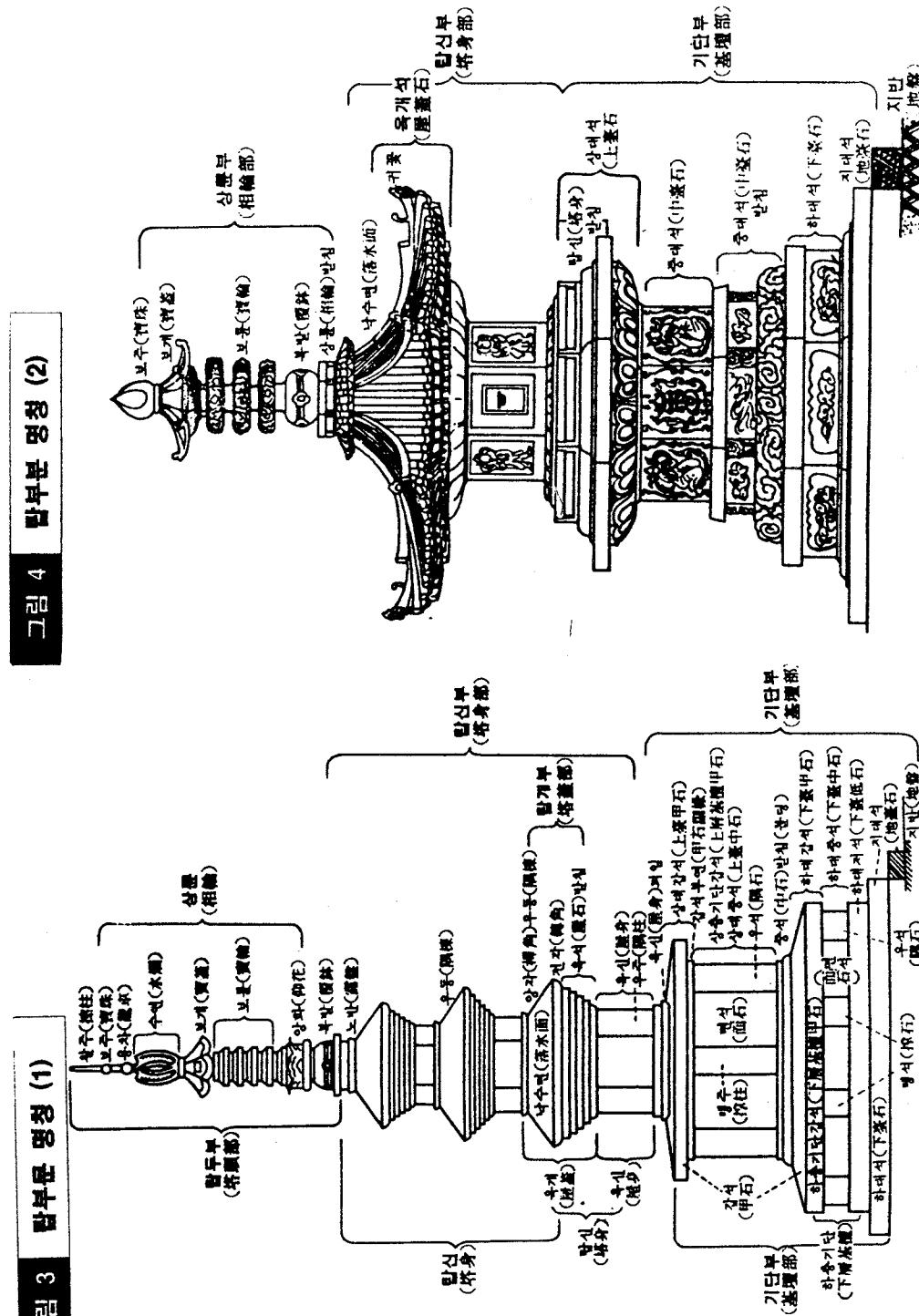


그림 2 성곽시설을 배치한



四書語彙(2)

제1장 명제(1)

卷之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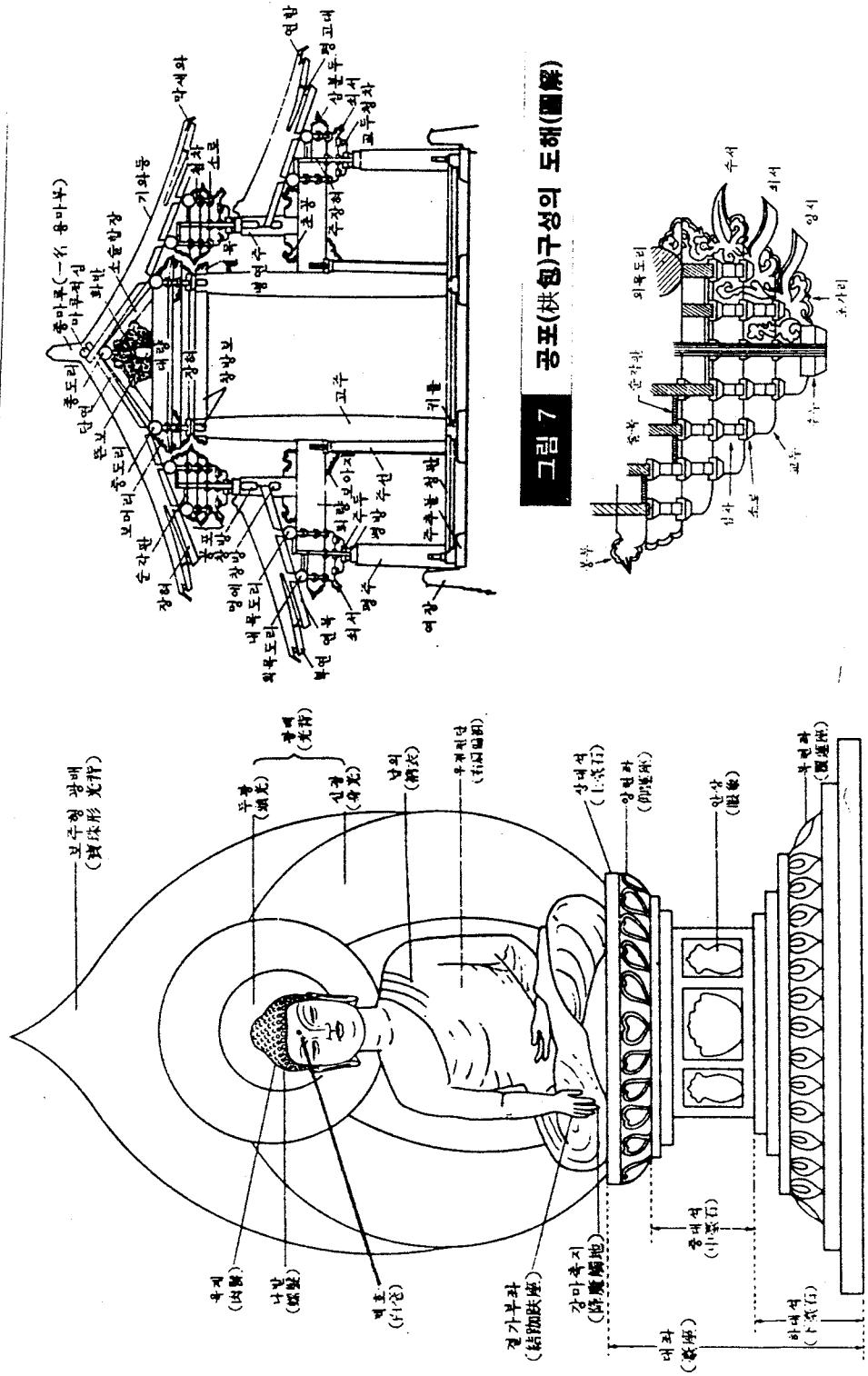


그림 6 건축물 각부분 명칭

19 가을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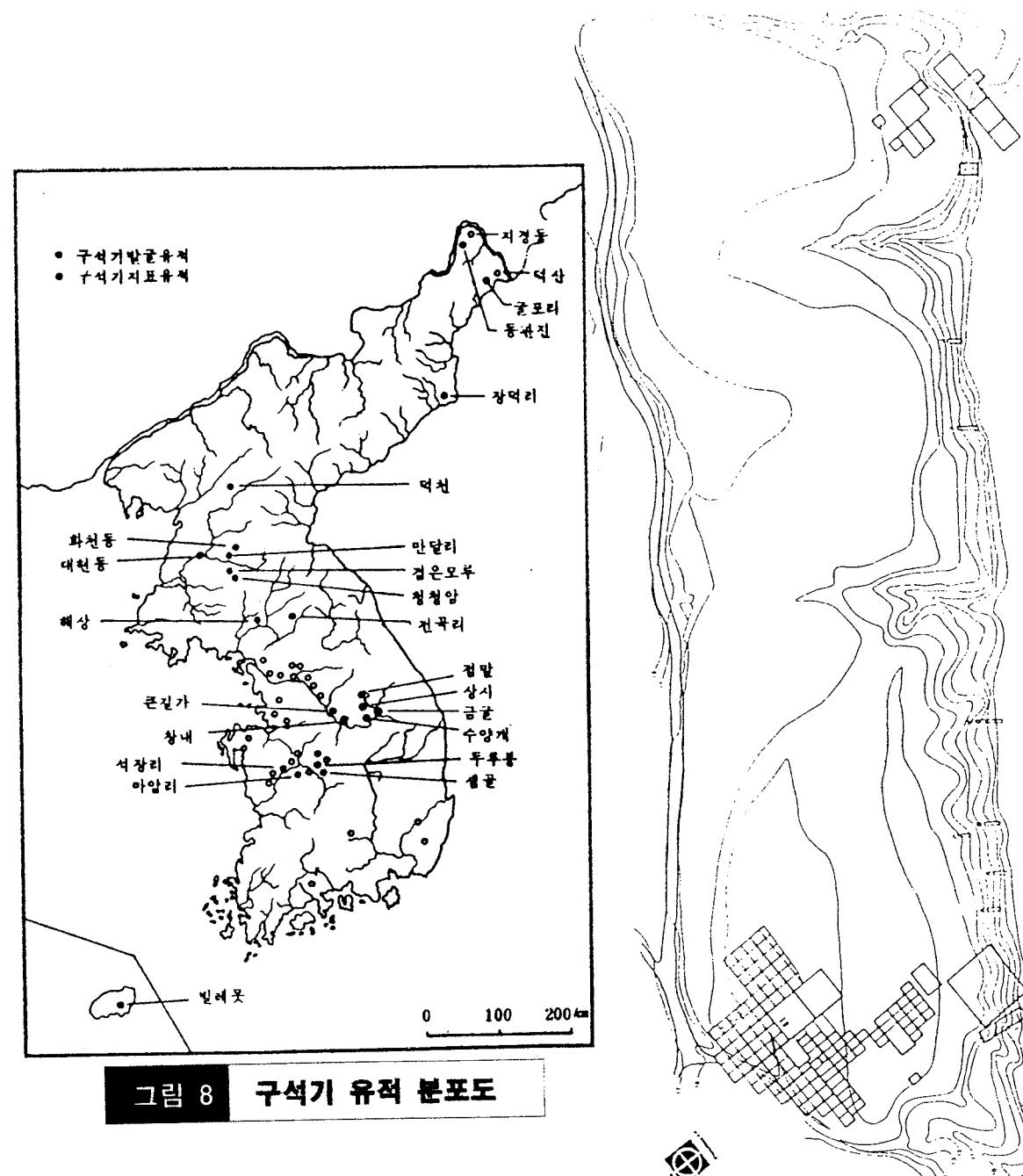


그림 8 구석기 유적 분포도

그림 9 석장리 유적 전체 평면

답사를 준비한 사람들

준비팀장 : 이종오 (94)

사전답사 : 이종오 (94), 나진호 (94), 이은율 (96)

답사지 : 서선일 (94), 홍정완 (94), 정준 (95), 전민석 (95),
홍경수 (96), 심호수 (96), 차효라 (97), 이은령 (99)

기획 / 홍보 : 최형수 (94), 유상훈 (94), 장한님 (97), 권성민 (97),
조한라 (97)

회계 : 심형선 (95)

답사준비에 도움을 주신, 여러 사학과, 인문학부 및, 유럽 어문학부 학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답사준비를 하는 후배들에게 세심하고 열성적인 도움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대학원 선배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외 이름을 다 적지 못하지만 도와주신 모든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림 1 해미읍성 고지도

그림 2 성곽시설물 배치도

그림 3 탑부문 명칭 (1)

그림 4 탑부분 명칭 (2)

그림 5 불상 각부분 명칭

그림 6 건축물 각부분 명칭

그림 7 공포(拱包)구성의 도해(圖解)

그림 8 구석기 유적 분포도

그림 9 석장리 유적 전체 평면도

